

예비후보자공약집 | 강진군수 선거

돈을 버는 강진군! 답을 내는 김보미!

3대 추진전략과 5대 분야 62개 공약

1

김보미

강진군수 예비후보 김보미 정책공약집

더불어
민주당

차례

김보미의 길 5

김보미 공약집을 발간하며 7

김보미의 출마선언문 11

1. 3대 추진전략	19
가. 정보공개 기반 투명행정 정착	19
1) 정보 공개가 투명행정의 전제조건	19
2) 계약집행의 전주기 공개	22
3) 주민 체감지표와 대시보드 운영	25
나. 민원 365 시스템을 통한 행정혁신	28
1) 파일럿에서 '실패 리포트'까지	28
2) 민원 365 자동처리 시스템	30
3) 안전장치와 윤리 규범	32
다. 주민심사·예산참여 플랫폼 구축	34
1) 대표·공개·반영의 원칙	34
2) 주민심사·예산참여 플랫폼	36
3) 신뢰성 측정지표 개발	38
2. 5대 분야 62개 공약	41
가. 복지·교육	41
1) 생애주기별 복지시스템 구축	41
2) 돌봄 협동거점과 돌봄 코디네이터	43
3) 일자리를 만드는 돌봄 생태계 조성	45
4) 복지 자동지급과 AI 활용 돌봄 강화	47
5) 인권보호형 공공요양마을 건립	49
6) 맞춤형 건강 급식과 건강식당 운영	51

7) 로봇과 사람의 통합돌봄 연합작전	53
8) 전국 최초 장애인 전용 캠핑장 유치	55
9) 소멸의 파도를 막을 '햇빛 연금' 도입	57
10) 지역과 학교를 연결하는 창의인재 양성	59
11) 특성화 교육을 통한 작은 학교 살리기	61
12) 국립 숲유치원 조성	63
나. 산업·경제	65
1) 강진 정착 목적의 취업·창업 교육	65
2) 강진형 창업 파이프라인 구축	67
3) AI 고령친화산업 육성	69
4) 농기계 구독시스템 구축	71
5) 창업농 육성을 위한 선도 농가 멘토링	73
6) 청년농 대상 스마트팜 지원	75
7) 컨테이너 수직농장 보급	77
8) 강진 AI농업시범단지 조성	79
9) 농산물 직거래와 지역브랜드 개발	81
10) 강진군민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	83
11) 수산업과 양식업 혁신	85
12) 가치소비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87
13) 공동체를 살리는 순환형 지역화폐 도입	89
14) 지역화폐를 활용한 공사대금 지급	91
다. 문화·관광·스포츠	93
1) 찍으면 엽서가 되는 강진 조성	93
2) 세계적으로 유명한 공동체 축제 개발	95
3) 강진만 생태 치유벨트 조성	97
4) 질환별 치유농업 프로그램 개발	99
5) 문화예술 치유마을 운영	101

6) 다산 생활교육 프로그램 운영	103
7) 주민창작과 문화 브랜드 육성	105
8) 세대통합 스포츠 플랫폼 구축	107
9) 스포츠를 통한 체류형 관광 유치	109
10) 파크골프장의 세대공감형 체육시설 전환	111
11)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113
라. 도시·교통	115
1) 주거·창업·보조금 패키지 지급	115
2) 지역맞춤형 주거재생 모델 개발	117
3) 리턴랩 운영을 통한 정착 지원	119
4) 문화·관광·교통·공공시설 무료특구 조성	121
5) 편리하고 빠른 시내 무료교통 제공	123
6) 수요응답형 버스(DRT) 도입	125
7) 15분 생활권 스펀지시티 조성	127
8) 미래형 드론·UAM 물류 배송 거점 구축	129
9) 어린이와 어르신 동행, '생명보호구역' 확대	131
10) 농어촌 에너지 복지, 'LPG 배관망' 고도화	133
11) 강진만 자전거 고속도로, 퍼스널 모빌리티망 구축 135	
12) 군민 안전을 지키는 스마트 세이프 로드	137
13) 지역 상권에 '걷기 활력거리' 조성	139
마. 환경·에너지	141
1) 생태환경을 지키는 그린 강진 클러스터	141
2) 자연이 주는 햇빛연금·바람연금	143
3) 월급을 주는 컬러태양광 주택 보급	145
4) 단계별 무상전기 보급	147
5) 강진 RE100 산업단지 유치	149

6) 일석4조 태양광 둠벙 보급	151
7) 강진형 생활권 녹색 관광도시 조성	153
8) 자원순환 보상, '강진 에코포인트' 운영	155
9) 전봇대 활용 '강진형 촌촌 전기차 충전망' 보급 ..	157
10) 수산부산물 활용 '해양바이오매스센터' 건립	159
11) 관광객의 발걸음이 에너지가 되는 '압전 파크' ..	161
12) 마량항 수소선박 그린 인프라 구축	163

김보미의길

학력 ▶ 초·중·강진고(26회) 졸업
전남대학교 졸업 · 석사 수료


주요 경력 ▶ 제9대 전반기 강진군의회 의장
(제8대·9대 강진군의회 의원)
전남대학교 총동창회 부회장

현)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상임위원

전)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정책자문위원

전) 더불어민주당 청년정책연구소 부소장


전) 더민주전국혁신회의 2기 상임대표

 유튜브 | 강진의봄,김보미TV

 페이스북 | kimbomi1989

 인스타그램 | kimbomi1989

 블로그 | <https://blog.naver.com/kimbom1204>

 홈페이지 | <https://김보미365.com>
<https://gangjinbom.netlify.app/>

AI 기반 참여형 행정·재정 플랫폼

예산은 공개하고, 민원과 정책은
군민이 직접 제안하는 플랫폼

김보미365.com

전라남도 강진군 예산·집행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군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합니다.

[김보미 공약집을 발간하며]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2025년 6월 4일,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사가 울려 퍼지던 그 현장의 공기를 기억합니다. 그 말은 단순히 흘러나온 구호가 아니었습니다. 떨리는 음성과 주변의 숨소리, 서로의 어깨 너머로 교차하던 간절한 눈빛들이 모여 그 한 문장에 거대한 무게를 실어주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이 묵직하게 뛰었던 이유는 무엇이였을까요? 아마도 ‘국민이 주인’이라는 그 선언이 저의 귓가를 지나, 제 내면 깊은 곳을 건드렸기 때문일 것입니다. 제가 정치를 하려고 했던 이유, 제가 정치를 통해 이루고자 했던 가치, 그리고 그것을 위해 노력했던 지난날의 기억을 소환했기 때문입니다.

그 뜨거웠던 선언은 저를 다시 정치에 처음 도전하던 그때의 김보미로 이끌었습니다. 변화를 만들고자 강진의 골목으로, 장터로, 그리고 아이들의 등하굣길로 뛰어다녔던 저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왜 그토록 저는 정치에 진심이였을까. 그 어떤 해명도 하지 못한 채 제명을 당했어도, 그 어떤 연락을 받지 못한 채 의장 불신임안이 제출되었어도, 왜 그토록 정치에 진심이였을까. 그건 바로 국민이 주인인 나라, 군민이 주인인 강진을 꿈꿔왔기 때문입니다. 이 취임식에서 울려 퍼진 주권의 목소리가 우리 강진의 일상에서도 똑같은 무게로 울려 퍼지길 원했기 때문입니다.

선언을 현실로 옮기겠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길은 여전히 멀고 험해 보였습니다. 아직 그 길이 멀어 보였습니다. 그 먼 길을 좁혀야 할 것 같았습니다. 강진 장날의 북소리와 이장님의 투박한 목소리, 학교 운동장에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왁자지껄한 이야기에 그 거대한 선언이 마주치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국민 주권이 우리 강진의 삶 속에서 실질적인 의미가 있으려면, 그것을 현실로 옮기고 만드는 누군가의 희생이 있어야 한다!

그 깨달음은 저를 정치의 본질로 더 깊이 안내했습니다. 삶의 위기 앞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지켜야 할 것은 단순한 권력의 교체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일상의 행복이고 그 일상을 지탱하는 사람들 사이의 '신뢰'입니다. 정치가 바로 그 일상을 따뜻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정치가 그 신뢰의 사슬을 끊임없이 연결해야 합니다. 우리 밥상의 온기가 식고 이웃 간의 약속이 흔들린다면, 정치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정치가 제 역할을 다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제가 할 일입니다.

정치의 본질에 대한 갈망은 저를 숫자가 아닌 구체적인 삶의 현장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밭머리 농부의 무거운 한숨과 시장통에서 맞잡은 뜨거운 손, 놀이터 엄마들의 걱정 어린 눈빛에서 저는 정치가 더 이상 선언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새로운 강진, 그 변화를 실감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그 대답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김보미, 수많은 벽에 부딪혀 왔습니다.

정치를 하면서 저는 수많은 벽에 부딪혀 왔습니다. 변화를 만들고자 노력했던 그 길에 마주한 정치의 현실은 견고한 관행의 ‘유리벽’이었습니다. 설명 없는 결정과 소통 없는 관행,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돌던 불신임 서명지는 군민주권을 가로막는 구조적 문제를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그 벽 앞에서 주저앉으려 할 때, ‘이 정도 했으면 최선을 다했잖아. 이제 그만할까?’ 생각하며 포기하려 할 때마다, 저를 다시 일으켜 세운 것은 군민들이셨습니다. 제명 후 복당했을 때 저에게 최다 득표를 보내주신 분들도 우리 강진군민들이셨습니다. 의장 불신임안이 제출되었을 때 함께 “우리가 지켜주겠다”라며 나서 주신 분들도 우리 강진군민들이셨습니다. 그 응원엔 위로를 넘어 저에게 새로운 동력을 안겨 주었습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이 이곳 강진에서 설계했던 ‘백성이 주인인 행정’을 이제는 실질적인 시스템으로 완성하라는 준엄한 명령을 저는 받았습니다.

이제 저는 그 명령을 실천하기 위해 이 책을 세상에 내놓습니다. 대통령 취임식의 한 문장이 저를 움직였듯, 이 책의 문장들이 강진의 골목과 마을회관을 잇는 튼튼한 다리가 되길 꿈꿉니다. 예산의 흐름을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투명한 행정 체계, 군민이 직접 사업의 실효성을 검증하는 참여 장치, 청년과 여성, 취약계층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안전망 구축, 군민의 명령이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제안을 정책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말’이 ‘정책’이 되고, 그 ‘정책’이 다시 ‘제도’로 정착되면서, 군민들의 일상을 지키는 그런 강진을 만들려고 합니다.

제 살을 도려내서라도 바꾸겠습니다

쉽지 않은 길이라는 걸 왜 모르겠습니까? 생각이 정책으로 이어지고 예산을 만들어 집행하는 과정은 때론 소모적이기도 하고 때론 고통스럽습니다. 이해관계와 관행의 저항, 무관심과 냉소가 늘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노력이 가치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설사 실패를 하더라도 그런 노력과 시도들이 정약용의 ‘백성이 주인인 행정’, 이재명의 ‘국민이 주인인 나라’, 그리고 김보미의 ‘군민이 주인인 강진’을 실제로 만들어 낼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저는 약속합니다. 변화를 만들겠습니다. 지금 문제가 없다면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다면 제 살을 도려내더라도 바꾸겠습니다. 군민 여러분께 묻고 설계하고 검증해서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군민이 주인인 강진’, 끝이 없는 여정입니다. 김보미가 이 험난한 여정의 첫머리에서 맨 앞에 서겠습니다. 길을 열겠습니다. 진짜 군민주권의 시대를 김보미가 열겠습니다. 군민이 주인인 강진, 김보미가 만들겠습니다.

[김보미의 출마선언문]

군민주권 강진시대를 열겠습니다.

위대한 강진군민 여러분, 군수는 군민을 위해 있습니까? 아니면 군수를 위해 군민이 있습니까? 저는 오늘 다산 정약용 선생의 이 준엄한 질문을 던지며, 두렵지만 절박하고 엄숙한 마음으로 민선 9기 강진군수 출마를 했습니다!

군수가 존재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군민을 더 잘 살게, 더 안전하게, 더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지금 강진은 어떻습니까? 인구 소멸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덮쳐오고, 청년은 일자리를 찾아 떠나고 상권은 활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마을마다 빈집은 늘어만 갑니다. 세상은 AI와 디지털로 급변하는데, 강진은 여전히 종이 서류와 탁상행정애 갇혀 있습니다. 예산은 있지만 정작 꼭 필요한 곳에는 가지 못하고, 축제에만 돈을 쏟아붓는 행정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강진군 재정이 꼴등입니다.

강진군 재정은 꼴등입니다. 군민이 낸 세금을 맡겨둔 은행 이자율은 전국 243개 지자체 중 꼴찌에서 세 번째, 광주·전남권에서는 꼴등입니다. 선거 때마다 군민을 천국에 보내 줄 것처럼 공약을 늘어놓았지만, 4년, 8년이 지나도록 강진군민이 먹고 살 전략산업 하나 제대로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마을은 비어가고 시장에는 사람이 없고 민주주의는 거꾸로 돌진하고 있습니다. 어느 곳 하나 병들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풀리지 않는 얽힌 과거는 단칼에 끊어내고 길이 없으면 길을 내서 미래로 나아가야 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강진의 딸 김보미가 해보겠습니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강진을 지킨 김보미가 군민 여러분의 손을 잡고 함께 강진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김보미가 군민에게 위임받은 권한으로 돈을 쓰는 강진이 아니라, 돈을 버는 강진을 만들겠습니다. 떠나가는 강진이 아니라, 찾아오는 강진을 만들겠습니다. 김보미가 강진을 살릴 정답을 반드시 내놓겠습니다.

군민의 뜻대로 정책이 결정되는, 새로운 강진

정치 13년 의원 8년 여러분과 함께 논두렁에서 시장 통에서 함께 울고 함께 웃었던 김보미가! 온갖 기득권의 공격에, 그야말로 탈탈 털리면서도 전국 최연소 군의회 의장직을 곳곳하게 수행했던 김보미가! 군민 위에 군림했던 제왕적 군수직은 무덤으로 보내겠습니다. 군수의 뜻대로 정책을 펼치는 강진이 아니라 군민의 뜻대로 정책이 결정되는, 새로운 강진을 만들겠습니다.

김보미가 ‘군민주권 강진시대’를 활짝 열겠습니다. 이 재명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진정한 국민주권시대, 강진에서 김보미가 군민 여러분과 함께 가장 먼저 실천하겠습니다. 1995년 서른여섯 김두관 남해군수가 세운 전국 최연소 군수 기록, 30년 동안 깨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저 김보미가 반드시 갈아치우겠습니다. 최연소 군수의 등장은 강진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업, 새로운 사업가들이 강진으로 몰려들 것입니다. 그리고, 전남·광주특별시와 중앙정부의 지원도 쏟아질 것입니다.

거리낄 것이 없습니다. 저는 신세 진 사람도, 갚아야 할 빚도, 챙겨주어야 할 업자도 없습니다. 이것이 저의 가장 큰 무기입니다. 최연소 김보미 군수가 당선되면 군민이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군수 주변만 잘

되는 강진이 아니라, 모든 군민이 골고루 돈을 버는 강진으로 완전히 다시 태어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약속드립니다.

통합지원금 20조, 강진에 많이 가져와야 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지금 전남과 광주는 행정통합을 앞두고 있습니다. 매년 5조 원, 4년간 20조 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행정통합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광주를 더 잘 살게 하자는 겁니까? 아닙니다. 강진 같은 소멸 위기 지역은 대도시로 이사를 가라는 겁니까? 아닙니다. 바로 우리 강진 같은 소멸 위기 지역을 살리기 위한 통합입니다. 그렇다면 행정통합의 주인은 바로 우리 강진군민입니다. 20조 원에 이르는 돈을 어디에 쓸지 바로 우리 강진군민이 주도해서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미 한 차례 제안한 바 있지만, 다시 한 번 공식적으로 제안합니다. 전남·광주 행정통합에 따른 강진군 미래전략에 대한 군수 후보자 토론회를 제안합니다. 강진의 운명이 걸린 행정통합을 앞두고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요구해야 할지 군민 앞에서 토론하고 결의하여 전남도청에 요구해야 합니다.

김보미는 주인되는 군민, 돈을 버는 군민, 그리고 돌아오는 군민을 위해 온힘을 다할 것입니다. 첫째, 군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행정을 하겠습니다. 김보미가 만든 '강진 365' 시스템에 군민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의 핸드폰으로 강진군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 모두 알 수 있도록 공개하겠습니다. 군민이 예산 낭비 사례를 신고하고, 군민이 필요한 예산은 직접 신청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저 김보미가 전국 최초로 예산주권 시대를 강진에서 열겠습니다! 군수예산을 군민예산으로 완전히 돌려 놓겠습니다. 군청에 가지 않아도 내 손안에서 모든 민원이 해결되는 스마트 행정, 강진의 민원행정을 대한민국 AI 스마트 행정의 표준으로 만들겠습니다. 이재명의 속도전 행정, 강진은 더 빠른 속도전으로 응답하겠습니다.

강력한 세일즈 행정으로 군민이 돈을 벌게 합니다.

둘째, 강력한 세일즈 행정으로 군민이 돈을 벌게 하겠습니다. 축제장 다니며 박수받고, 책상에 앉아 결재만 하는 군수와 결별하겠습니다. 강진의 가치를 만들고, 산업과 기업을 만들어 돈을 벌어오는 '1호 강진 영업사원'이 되겠습니다. 전남·광주 행정통합 인센티브 20조 원! 최연소 군수 김보미가 가장 많이 가져오겠습니다. 중앙정부와 국회, 전남광주특별시를 내 집처럼 드나들며 예산을 확보하고 강진을 살릴 전략산업을 육성하는데 쓰겠습니다.

스포츠를, 강진의 신성장동력으로 키우겠습니다. 엘리트 선수단은 물론, 생활체육 동호인의 체육대회와 전지훈련 명소로 만들고, 선수단이 강진에 머물며 강진에 돈을 쓰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민들의 생활체육도 대폭 지원해 어르신과 청년이 함께 땀 흘리고 서로 이해하고 돕는 세대통합의 강진을 만들겠습니다.

로봇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로봇 농기계 구독시스템을 도입하고 수직농업이나 스마트농업, 아쿠아 농업과 같은 새로운 농업에 종사할 분들에게는 로봇 농기계를 대여하겠습니다. AI 농업시범단지를 만들어 AI 시대에, 중소농이 낙오되지 않도록 철저히 지원하고, 행정통합 인센티브를 확보해서 강진군민에게,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급하겠습니다. 수산·양식업 혁신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공동

체를 살리는, 순환형 지역화폐를 도입하고 공사 대금의 일부는 지역화폐로 지급해서 전통시장을 비롯한 전통 상권과 소상공인을 살리겠습니다.

관광으로 군민이 돈을 벌어야 합니다.

관광산업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투자한 사람만 돈을 벌어가는 구조는 안됩니다. 군민이 돈을 벌어야 합니다. 마을 환경을 잘 꾸미고 민박과 치유농업을 육성해서 찍으면 엽서가 되는 강진을 만들겠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공동체 축제를 만들어 전 세계 관광객이, 강진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강진만 생태 치유 벨트를 만들어, 치유관광객을 유치하고 질환별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만들어 농가에 보급하겠습니다. 시내버스는 공영제를 도입하고 신안군처럼 시내교통은 관광객까지 무료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셋째, 탈출을 준비하는 군민이 아니라 ‘돌아오는 군민’을 만들겠습니다. 어르신이 편안하게 노후를 보내고, 청년은 돌아와서 창업을 하고, 은퇴 세대가 찾아와서 경제 활동을 하며, 그렇게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다시 들리는 강진, 김보미가 여러분과 함께 만들겠습니다. 전 세대가 어르신 복지에 총출동하는 강진, 어르신을 공경하고 돌보면서 청년은 일자리를 얻고, 중장년은 역할을 찾고, 아이들은 존중을 배우는 공동체를 만들겠습니다.

생애주기별 복지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어르신 복지는 특정 세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르신을 제대로 모시는 강진에 청년도 안심하고, 아이도 즐겁게 미래를 꿈꿀 수 있습니다. 생애주기별 복지시스템을 구축하고, 농번기에는 돌봄 코디네이터를 보내 드리겠습니다. 인권보호형 공공요양마을을 만들고 어르신들에게는 건강상

태에 맞게 맞춤형 식단을 보내드릴 것입니다. 로봇과 사람이 함께 돌보는 융합돌봄을 시작하고, 전국 최초로 장애인이 마음껏 즐기는 ‘장애인 전용 캠핑장’도 만들겠습니다. 강진에 정착하는 군민들을 위해 취업·창업 교육을 강화하고 돌봄과 헬스를 기반으로 AI 어르신 친화산업을 육성할 계획입니다.

돌아오는 강진을 위해서는 교육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녀 교육이 보장되지 않으면 부모들이 강진에 남아 있을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특성화 중학교, 특성화 고등학교를 만들겠습니다. AI 기반 자기주도학습 플랫폼을 지원해 지역에서도 최고 수준의 교육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이 직접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고등학생 도전 수당도 지급하겠습니다. 학교와 기업, 마을과 문화예술이 연결된 지역 연계 교육 시스템을 구축해 학생들의 지역 활동을 넓히고, 아이들이 강진에 소속감과 애정을 가지고 강진을 자신의 미래로 선택하게 하겠습니다. 일자리와 주거, 교육과 돌봄이 서로 끊이지 않고 맞물려 돌아가는 지속 가능한 행복생태계, 어르신이 존경받는 강진, 모든 세대가 살고 싶은 강진, 반드시 김보미가 만들어 내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일단은 던지고 보는 아무 알맹이 없는 말,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천은 누구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걸리는 것이 없어야 합니다. 깨끗해야 합니다. 기득권에 물들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김보미가 꼭 필요하다고, 감히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누가 여러분과 김보미가 함께 가는 길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전문가 몇 명이면 그럴듯한 공약집은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천은 쉽지 않습니다. 누군가 미래에 무엇을 할지, 아니 무엇을 못 할지, 궁금하다면, 그 사람의 과거를 보면 됩니다. 저 김보미는 어디서 잠시 내려와 있는 강진

출신 정치인이 아닙니다. 선거 때만 강진을 찾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기 살았고 앞으로도 여기 살 사람, 평생 강진 사람입니다.

약속보다 실천으로 증명해 왔습니다.

김보미는 지난 정치 13년, 그리고 8년의 의정활동 동안 말보다 행동으로, 약속보다 실천으로 증명해 왔습니다. 최연소 기초의회 의장으로 있으면서, 조례 하나, 예산 하나 하나 꼼꼼히 챙기며 만들어 낸 구체적인 성과들 이것이 바로 김보미의 미래입니다. 가장 깨끗하고, 강력한 에너지로 강진의 목은 때를 벗겨내고 새 시대를 열 유일한 강진 사람, 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맞서 반드시 답을 내고야 말 사람, 강진 사람 김보미가 여러분과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군민의 삶을 정책으로 만드는 깨끗한 정치, 낡은 관행을 완전히 갈아엎는 새로운 정치, 잘못된 것은 고치고, 부족한 것은 채우고, 오직 실력으로, 오직 성과로, 보답하겠습니다. 회의실이 아니라 장터에서, 군수실이 아니라 논두렁에서, 군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현장에서 해답을 찾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진군민 여러분! 저 김보미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강진을 확 바꿀 수 있는 도구로, 젊고 깨끗한 김보미를 써 주십시오. 여러분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반드시 증명하겠습니다. 어디 가서 “나, 강진 사람이다” 당당하게 자랑할 수 있는 강진, 저 김보미가 반드시 만들어 내겠습니다.

위기의 강진, 지금은 김보미입니다! 새로운 강진! 돈을 버는 강진! 김보미가 답을 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3대 추진전략

가. 정보공개 기반 투명행정 정착

1) 정보 공개가 투명행정의 전제조건

강진군은 2025년 본예산 4,864억 원 규모를 운영하고 있으나, 재정자립도는 전국 243개 지자체 중 231위에 그치고 있어 한정된 재정을 투명하게 운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입니다.

현재 강진군 홈페이지에는 예산·결산 자료가 PDF 형태로 공개되어 있으나, 행정 용어와 복잡한 표로 가득해 실질적으로 군민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축제 예산 7억1,300만 원이 의회 의결 없이 타 예산에서 전용·집행된 사실이 밝혀지는 등, 예산 집행의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도 76.1%의 지자체가 주민참여예산제도에서 '개선 필요' 등급을 받고 있어 기초자치단체 재정 투명성은 전반적인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강진군의 모든 행정정보를 군민의 눈높이에 맞게 공개하여, 군민이 '수혜자'를 넘어 '행정의 설계자'가 되는 군민주권 시대를 열겠습니다. 예산 편성부터 계약·집행·결산까지 전주기를 실시간 대시보드로 공개하고, 전문 용어를 쉬운 말로 바꿔 스마트폰으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소외 계층을 위한 읍·면 순회 설명회를 정례화하고, 군민이 직접 예산에 질의하면 14일 이내에 처리

보고서를 의무 제출하는 '응답받는 주권자' 제도를 도입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행정과 국민 사이에 신뢰의 사슬을 잇고, 강진의 투명행정을 전국 모범사례로 만들어 나갈 예정입니다.

예산 전주기 공개 대시보드 구축

- 실시간 온라인 대시보드 구축
 - ✓ 예산 편성→계약→집행→결산 전 과정을 실시간 시각화하는 온라인 대시보드를 구축
 - ✓ 사업계획서·계약서·집행 증빙·지출 현황 자동 업데이트 설계
- 프로젝트 타임라인, 핵심 성과지표(KPI), 집행률 그래프를 함께 제공하여 비전문가도 한눈에 파악 가능하도록 구성
- '강진 365' AI 민원 플랫폼과 연동하여, 대시보드에서 발생한 국민의 질문이 즉시 접수·처리되는 체계 마련

쉬운 정보공개 시스템 운영

- 시각화된 정보공개 시스템
 - ✓ 기존 PDF·표 중심의 공개 방식을 탈피하여 요약 카드뉴스, 인포그래픽, 핵심 해설 동영상 등 다양한 포맷으로 정보 제공
 - ✓ 모바일·PC 외에 읍·면 게시판 QR코드, 정보상점(키오스크), 담당자 음성메시지 기능을 활용하여 디지털 소외 계층의 정보 접근 보장

디지털 소외 계층 정보 접근 지원

- 1읍 10면 행정복지센터에 '예산 알리미 창구'를 신설
- 고령자·장애인 등에게 대면 설명 서비스 제공
- 월 2회 이상 읍·면 순회 설명회 개최
- 사업 예산 현황과 집행 결과를 직접 보고하고 질의응답
- 마을이장 및 통·리장 대상 '예산 정보 전달자' 교육
 - ✓ 프로그램을 연 2회 운영하여 풀뿌리 정보 전달 체계 구축

군민 질의·검증·피드백 제도화

- 응답 의무제 도입
 - ✓ 공개된 정보에 대해 군민이 질의하면 14일 이내에 판단 근거·예산 반영 여부·향후 보완 계획이 포함된 처리보고서를 의무 제출하는 '응답 의무제' 도입
- 주민검증팀 분기별 운영
 - ✓ 무작위 표본·신청 표본으로 이원화한 '주민검증팀'을 분기별로 운영하여 현장 방문 확인 및 공개검증 보고서 발행
- 주민 대표를 포함한 '예산 감시단' 구성
 - ✓ 주요 공사·용역에 대한 실질적 점검 권한 부여, 이상 징후 자동 알람 시스템 가동
- 예정위치 : 강진군 전역
(강진군청 및 1읍 10면 행정복지센터)
- 사업예산 : 8억 원
- 이행기간 : 2027년~2030년
- 재원조달 : 국비, 도비, 군비
행정안전부 디지털행정 지원사업
- 우선순위 : 1순위
- 사업목표 : 예산 전주기 실시간 공개율 100%
군민 이해도 70% 이상 달성
읍·면 순회 설명회 연 24회 이상

2) 계약·집행의 전주기 공개

강진군은 2014년부터 계약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하여 나라장터·지방재정관리시스템과 연동한 실시간 계약정보 공개를 시행하고 있으나, 공개 범위와 접근성 측면에서 여전히 한계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2025년 행정안전부 정보공개 종합평가에서 강진군은 '보통' 등급에 머물렀으며, 같은 전남 내 해남·곡성·장성·진도군이 '최우수' 등급을 획득한 것과 대비됩니다.

특히 2025년 7월 강진군의회 임시회에서는 특정 외지 업체에 168억 원 규모의 사업이 집중 배정되고, 계약정보공개시스템 운영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지방계약법 제43조는 발주계획·입찰·계약·설계변경·감독·검사·대가 지급 등 계약 전 과정의 공개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현행 시스템은 단순 문자들이 나열되는 방식으로 군민의 실질적 접근과 이해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강진군의 모든 계약·집행 정보를 발주 단계부터 준공·정산까지 전 주기에 걸쳐 시각화하여 공개하고, 군민이 직접 질의·검증·피드백할 수 있는 쌍방향 투명행정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계약서 전문과 집행 증빙을 타임라인 형태로 실시간 공개하여 예산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읍 10면 고령 군민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모바일 경량 페이지와 대면 설명 서비스를 병행하여 디지털 소외 없는 정보 접근권을 보장할 예정입니다.

군민 누구나 계약 정보에 대해 질의하면 14일 이내에 답변하는 '응답 의무제'와 주민검증팀 운영을 제도화하여, 투명행정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행으로 이어지는 강진을 만들겠습니다.

계약서 전문 공개 및 요약서 제공

- 1,000만 원 이상 모든 계약서 전문을 플랫폼에 공개
- 계약 체결 즉시 자동 업로드 체계 구축
- 계약 건별 '한눈 요약서' 동시 제공
- 계약명·계약상대자·금액·기간·주요 조건 요약
- 개인정보 보호 기준에 따른 비식별 처리 병행

집행 증빙 타임라인 공개

- 계약 이후 집행 과정을 타임라인 형태로 시각화
- 지급요청서→승인→영수증→현장사진 순서 공개
- 설계변경·계약금액 조정 사항 실시간 반영
- 공정률 대비 예산 집행률 비교 그래프 제공
- 준공검사 결과 및 최종 정산 내역까지 전 과정 공개

시각화 기반 정보 접근성 강화

- 모바일 최적화 경량 페이지 구축
- 주요 사업별 QR코드 제작·현장 게시
- 그래프·지도·아이콘 활용 직관적 정보 제공
- 읍·면별 주요 사업 예산 집행 현황 지도 서비스
- 반기별 '예산 집행 리포트' 인포그래픽 발행

디지털 소외 계층 정보 접근 지원

- 사업대상 : 고령자·장애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
-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예산 알리미 창구' 신설
- 고령자·장애인 등에게 대면 설명 서비스 제공
- 월 2회 이상 읍·면 순회 설명회 개최
- 사업 예산 현황과 집행 결과를 직접 보고·질의응답
- 마을이장·통·리장 대상 '예산 정보 전달자' 교육
- 연 2회 운영, 풀뿌리 정보 전달 체계 구축

군민 질의·검증·피드백 제도화

- '응답 의무제' 도입
- 공개 정보에 대한 군민 질의 시 14일 이내 답변
- 판단 근거·예산 반영 여부·보완 계획 포함 처리보고서 제출

- '주민검증팀' 분기별 운영
- 무작위 표본·신청 표본 이원화 구성
- 현장 방문 확인 및 공개검증 보고서 발행
- 주민 대표 포함 '예산 감시단' 구성
- 주요 공사·용역 실질적 점검 권한 부여
- 이상 징후 시 자동 알람 시스템 가동

외부 검증 및 실패 리포트 공개

- 연 1회 외부 회계법인 독립감사 실시
- 감사 결과 전문 군 홈페이지 공개
- '실패 리포트' 연 1회 발행
- 중단·지연·초과 사업의 원인과 개선 방안 공개
- 감사원·전라남도 감사 지적 사항 후속 조치 공개

- 예정위치 : 강진군 전역 적용
- 사업예산 : 3억 원
(기존 계약정보시스템 고도화·플랫폼 구축)
- 이행기간 : 2027년~2027년
- 재원조달 : 국비, 도비, 군비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혁신사업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 구축·개방 확대사업
- 우선순위 : 1순위
- 사업목표 : 계약·집행 정보 전주기 공개율 95% 이상 달성

3) 주민 체감지표와 대시보드 운영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지만, 때로는 진실을 가리기도 합니다. 현재 행정 보고서에는 '예산 집행률 95%', '만족도 90%'와 같은 화려한 숫자가 등장하지만, 정작 강진군민이 실제로 행정서비스를 통해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보여주는 체감도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기존 행정 지표가 얼마나 많은 예산을 투입했나에 맞춰져 있는 투입 중심 평가 체계이다 보니, 사업은 완료되었으나 군민의 삶은 달라지지 않는 보여주기식 성과가 반복되어 왔습니다. 「지방재정법」 제60조에 의해 재정정보 공개 의무가 있고, 지방재정365 등 통합공개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으나, 이는 전문가 중심의 재정 데이터 나열에 그치고 있어 일반 군민이 체감하기 어렵습니다.

한편, 전국적으로 시민의 정책 체감도를 정량적으로 측정하고 시각화하는 자동 리포트 시스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채널(온라인 설문, 민원 데이터, SNS 감성 분석 등)을 통해 시민 반응을 수집·분석하여 '정책별 만족도/신뢰도 추이 그래프', '지역 간 비교 차트' 등을 생산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추어, 강진군의 행정 성과를 군민이 얼마나 변화를 느꼈는가라는 관점에서 새롭게 측정하고, 그 결과를 군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는 대시보드로 공개하여, 행정의 나침반을 주민의 삶을 향해 정확하게 돌려놓겠습니다. 이를 통해 행정은 군민의 삶과 동떨어진 기관이 아니라, 군민의 삶을 함께 설계하는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

'주민 체감지표' 체계 개발

- 기존 투입 중심 지표(예산 집행률, 사업 완료 건수 등) 대신 '주민 삶의 변화'를 측정하는 체감형 성과지표 설계
 - ①복지·돌봄 : 도움이 필요할 때 적시에 서비스를 받았는가
 - ②교통 : 이동 시간이 줄었는가, 원할 때 버스를 이용 가능한가
 - ③경제 : 소득이 안정되었는가, 창업·취업 기회를 체감하는가
 - ④안전 : 생활환경이 개선되었는가, 재해 불안이 줄었는가
- 각 지표는 '행정 데이터 기반 객관지표'와 주민 설문 기반 주관지표를 결합한 복합지표로 구성
 - ✓ 연령대별·읍면별 표본 설계를 통해 대표성 확보

실시간 대시보드(강진 365) 구축

- 주민 누구나 스마트폰·PC로 주요 사업별 체감지표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공개 대시보드 구축
- 사업별 진행률, 예산 집행 현황, 주민 체감도 점수를 하나의 화면에 통합 표시
- 지역별(읍·면) 비교 그래프, 시간 흐름에 따른 변화 추이 곡선, 분야별 만족도 순위 등 시각화 콘텐츠 제공
- '강진 365' 플랫폼과 연동하여 대시보드에서 직접 의견 제출·질의가 가능한 양방향 소통 기능 탑재

다층적 데이터 수집 체계 마련

- 정기 설문(반기 1회 이상)
 - ✓ 무작위 표본 + 자발적 참여 병행, 온라인·오프라인(읍면 주민센터 전용 접수창구) 동시 진행
- 민원 데이터 분석
 - ✓ '강진 365' 및 군수 직통 스마트폰으로 접수된 민원을 자동 분류·키워드 분석하여 체감도 간접 측정
- 현장 모니터링
 - ✓ 분기별 읍면 순회 간담회에서 주민 체감도를 직접 청취하고 정성 데이터 수집

- ✓ 수집 데이터의 정제 필터링(중복 평가 방지, 악성 패턴 제거)을 통한 데이터 품질 관리

체감지표 기반 행정 환류 시스템

- 대시보드에 공개된 체감지표 결과를 분기별 행정 평가에 반영하는 체감 성과 평가제 도입
 - ✓ 체감지표가 일정 기준 미달(예 : 5점 만점 중 3점 미만) 사업에 대해 원인 분석 및 개선 계획 수립 의무화
- 개선 조치 이후 재측정하여 환류 사이클 완성
 - ✓ 측정→공개→평가→개선→재측정
- 분기마다 군수가 직접 대시보드를 열람하고, 현장에서 공무원에게 즉각 개선 지시하는 공개 점검의 날 운영

디지털 소외 계층 접근성 보장

- 읍면 주민센터에 대시보드 전용 키오스크 설치, 어르신 대상 활용 교육 실시
 - 체감지표 결과를 읍면 게시판·마을회관에 인쇄물로 게시
 - 분기별 읍면 순회 설명회를 통해 대시보드 결과를 쉬운 말로 직접 설명
-
- 예정위치 : 강진군청 홈페이지·모바일 플랫폼
읍·면 11개 주민센터(키오스크)
 - 사업예산 : 4억 원(체감지표 개발·설문 1억, 대시보드 구축 2억, 키오스크·운영·교육 1억)
 - 이행기간 : 2027년~2028년
 - 국비사업 : 행정안전부 주민참여 혁신행정사업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 활용기반구축사업
 - 재원조달 : 국비, 도비, 군비
 - 우선순위 : 1순위
 - 사업목표 : 주민 체감지표 4개 분야 20개 지표 개발
공개 대시보드 1개 구축
반기별 주민 설문 실시(연 2회 이상)

나. 민원 365 시스템을 통한 행정혁신

1) 파일럿에서 ‘실패 리포트’까지

행정혁신은 인구 3만 2천여 명, 1읍 10면 293개 리로 나뉜 강진군의 행정환경 속에서 출발합니다. 65세 이상이 30%를 훌쩍 넘는 초고령사회, 여성세대주 비율이 1/3을 넘는 강진군 현실에서, 군청과 읍·면사무소에 직접 방문해야만 해결되는 민원 구조는 고령층·취약계층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매년 처리된 각종 인·허가 및 신고성 민원은 4만 건을 상회하며, 이 중 상당수가 단순 반복 민원이어서 행정인력의 피로도와 오류 가능성을 동시에 높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AI 기반 민원 시스템과 정책실험 플랫폼을 한꺼번에 전면 도입할 경우, 시스템 오류나 예측 실패가 곧바로 군민의 삶에 피해로 돌아올 수 있다는 우려도 큼니다.

이에 강진군은 ‘작게 시작해 크게 배우는 행정’을 원칙으로, 소규모 파일럿으로 먼저 적용한 뒤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전략을 추진하겠습니다. 읍·면별 민원 유형과 처리 패턴을 데이터로 분석하여 AI 도입 효과가 높고, 주민 수용성이 검증된 분야부터 시범 적용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지연·불편 사례를 ‘실패 리포트’로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실패와 한계를 숨기지 않고 공유함으로써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학습 시스템을 만들고, 주민·공무원·전문가가 함께 개선안을 도출하는 참여형 행정혁신 모델을 완성하겠습니다. 이러한 파일럿-평가-확대-재평가의 전 과정을 제도화하여, 강진군이 AI 시대에 걸맞은 ‘실사구시형 스마트 행정’의 전국 표준 모델을 만들겠습니다.

소규모 파일럿(Pilot) 시범도입

- 특정 읍·면 또는 특정 민원 분야에 한정하여 시범 운영

- ✓ 시범 대상 분야 : 대형 생활폐기물 처리 민원, 복지 혜택 안내, 농번기 돌봄 정보 등 군민이 가장 많이 문의하는 분야부터 우선 적용
- ✓ 시범 기간 중 시스템 응답 정확도, 군민 만족도, 오류 발생률 등을 정밀 측정

'실패 리포트' 의무 공개 체계 구축

- 파일럿 과정에서 드러난 오류, 한계, 군민 불편 사항을 숨기지 않고 '실패 리포트'로 공개
- ✓ 실패 원인 분석 → 수정 계획 수립 → 군민 공유 → 보완 재시행의 선순환 구조 확립
- 실패를 숨기면 예산과 인력을 낭비하고 또 실패할 확률을 높이므로, 실패를 공개하고 그 속에서 성공의 단서를 찾아 더 많은 군민의 참여와 신뢰를 확보

분기별 점검 및 단계적 확산 추진

- 파일럿에서 검증된 서비스부터 읍·면 전체로 순차 확대
- ✓ AI 정책실험 시스템을 통해 확대 적용 시 예상 효과를 사전 시뮬레이션 후 집행
- 매 단계 '실패 리포트'를 축적하여, 강진군 행정혁신의 학습 자산으로 활용
- 예정위치 : 강진군 전지역(행정 전산망,민원 접수)
- 사업예산 : 3억 원(시스템 구축비)
- 이행기간 : 2027년~2029년
- 국비사업 : 행정안전부 디지털 행정혁신 시범사업 연계
- 재원조달 : 국비, 군비, 민자
- 우선순위 : 1순위
- 사업목표 : 파일럿 시범사업 완료
실패 리포트 공개 체계 구축

2) 민원 365 자동처리 시스템

현재 강진군의 민원 체계는 평일 주간 근무시간에만 상담과 처리가 이뤄지고, 복합 민원일수록 부서 간 이관 과정이 길어지면서 처리 지연과 책임 공백이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특히 1읍 10면이 세로로 길게 분포한 농산어촌인 우리 강진군의 지역특성상 교통 여건까지 더해져, 단순 사실 확인이나 서류 안내를 위해 주민센터나 군청을 여러 번 찾아야 하는 비효율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민원 365 자동처리 시스템은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넘어서기 위한 '상시 가동형 지능 행정 창구' 구축을 목표로 합니다. 군수 직통전화나 기존 콜센터만으로는 365일 24시간, 복합·전문 민원에 실시간으로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생성형 AI(ChatGPT)와 검색 증강생성 기술을 결합해 강진군 고유의 조례·지침·FAQ를 학습한 '챗봇'을 도입하겠습니다.

이 시스템은 밤과 주말에도 민원을 자동 접수·분류하고, 단순·반복 민원은 즉시 답변하며, 복합 민원은 담당 부서에 정확히 배분해 공무원은 사람 판단이 필요한 사안에 집중하도록 돕겠습니다.

나아가 민원 처리 이력과 군민 질문 패턴을 축적·분석해, 자주 묻는 질문은 선제적으로 안내하고 제도 보완 과제를 도출하는 데이터 기반 행정혁신의 기반으로 삼겠습니다.

AI 기반 민원 자동응답 체계 구축

- 생성형 AI와 RAG(검색 증강 생성) 기술을 결합하여, 강진군 행정 데이터를 학습한 맞춤형 챗봇 '강진 365' 개발
- 24시간 365일 군민의 민원에 정확하게 답변하는 최적의 정보 전달 통로 역할 수행

- 단순 정해진 답을 내놓는 것이 아니라, 최신 정보를 학습하여 허위 정보 없이 정확한 답변 제공

10대 핵심 분야 우선 적용

- 대형 생활폐기물 처리, 복지 혜택 안내, 농번기 돌봄 정보, 청년 일자리 정보 등
- 군민이 일상에서 가장 궁금해하는 10대 분야의 최신 정보를 우선 학습

민원 데이터의 정책 연계

- 접수된 민원과 질문이 실시간 데이터로 축적되어, 올해 대책은 물론 내년도 대책까지 과학적으로 수립하는 기반 마련
- 질문과 민원이 데이터가 되고, 데이터가 정책이 될 때 행정의 비효율과 낭비를 제거
- ✓ 강진 365 시스템에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군민 제안 → 데이터 분석 → 정책 반영의 선순환 시스템 구현

AI 정책실험 시스템 연계

- 민원 365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를 AI 정책실험 시스템에 투입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사전 검증
- 강진군의 모든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책을 가상 공간에서 시뮬레이션한 뒤 집행

- 예정위치 : 강진군 전 지역(통합 민원 플랫폼)
- 사업예산 : 10억 원(챗봇 개발, 서버인프라 구축, 운영)
- 이행기간 : 2027년~2028년
- 국비사업 : 행정안전부 지능형 정부 구현 사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AI 공공서비스 사업
- 채용조달 :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강진군비
- 우선순위 : 1순위
- 사업목표 : 365일 24시간 AI 자동응답 시스템 구축운영, 민원 응답시간 대폭 단축

3) 안전장치와 윤리 규범

앞서 설명드린 ‘파일럿에서 실패 리포트까지’, ‘민원 365 자동처리 시스템’은 군민의 생활민원부터 정책 아이디어까지 방대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분석하는 도구인 만큼, 혁신의 속도만큼이나 정보를 어떻게 지키고 사용하는지가 중요합니다.

특히 강진군은 노령자나 여성처럼 행정 시스템을 믿고 의지하는 취약계층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한 번의 개인정보 유출이나 데이터 오남용이 신뢰 붕괴로 직결될 수 있습니다. 디지털 기술을 결합한 민원 365는 군민의 문의에 365일 24시간 답변하는 동시에, 답변 과정에서 군민의 민감정보를 처리하고 축적하게 됩니다.

따라서 파일럿과 자동처리 시스템을 아무리 잘 설계 하더라도, 개인정보 비식별화, 데이터 접근 통제, 알고리즘 편향 방지, 기록 관리 등 안전장치와 윤리 규범이 뒷받침 되지 않으면 지속가능한 행정혁신이 될 수 없습니다. 이 사업은 ‘투명한 공개’와 ‘철저한 보호’를 함께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예산 집행과 정책효과는 최대한 투명하게 공개하되, 군민 개개인의 신상과 정치·경제적 이해가 연결될 수 있는 정보는 비식별화와 최소수집 원칙으로 지키겠습니다.

아울러 AI가 특정 지역·세대·계층에 불리한 결론을 내리지 않도록 윤리적 감사 시스템과 로그 기록을 제도화하고, 최종 판단과 책임은 항상 사람에게 있다는 원칙 아래 군민 상식에 비추어 판단을 검증하는 구조를 확립하겠습니다.

개인정보 비식별화 및 데이터 오용 방지

- 민원 365 시스템에 수집되는 모든 개인정보를 비식별화 처리하여 데이터 유출 및 오용을 원천 차단
- ✓ AI 학습용 데이터와 개인정보를 분리 관리하는 이중 보안 체계 구축

AI 윤리 규범 제정 및 운영

- 강진군 AI 윤리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AI 시스템의 공정성·투명성·책임성에 관한 윤리 규범 제정
- AI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군민이 AI의 판단 근거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설명 가능한 AI 원칙 적용

AI 오류 감시 및 품질 관리

- AI 자동응답의 오류율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오류 발생 시 즉시 인력 대응으로 전환
- 정기적인 AI 성능 점검과 데이터 갱신을 통해 답변의 정확성과 최신성 유지
- 민원 365 시스템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 사례를 '실패 리포트'에 포함하여 공개

군민 권리 보호 체계

- AI 답변에 불만이 있거나 오류가 의심되는 경우, 군민이 즉시 담당 공무원에게 연결되는 이의제기 채널 운영
- AI 시스템이 처리할 수 없는 복합 민원은 반드시 담당자가 직접 대응하는 원칙 확립

- 예정위치 : 강진군 행정 전산망 전체
- 사업예산 : 1억 원(개인정보 비식별화, 윤리자문위 운영)
- 이행기간 : 2028년~2029년
- 국비사업 : 해당사항 없음
- 채용조달 : 강진군비(100%)
- 우선순위 : 1순위
- 사업목표 : AI 윤리 규범 제정
개인정보 비식별화 체계 구축
AI 오류율 감시 시스템 운영

다. 주민심사·예산참여 플랫폼 구축

1) 대표·공개·반영의 원칙

강진군의 각종 위원회와 심사·참여 기구는 군민 전체의 목소리를 담아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특정 연령대와 성별, 지역에 편중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강진군 인구에서 60세 이상이 전체 인구의 약 50% 가까이 차지하는 반면 20~40대 비중은 약 20%에 불과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2025년 전국 주민참여예산제도 성과 평가에서 강진군은 '개선 필요' 판정을 받았으며, 예산 추진 현황의 누리집 공개 등 제도 운영 전반에 걸쳐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강진군의 모든 주민참여 기구에 '대표성·공개성·반영성'이라는 3대 원칙을 제도적으로 확립하겠습니다.

첫째, 대표성의 원칙으로 위원 구성 시 청년·여성·농어업인·귀농귀촌인 등 다양한 계층이 균형 있게 참여하도록 할당제를 도입하겠습니다.

둘째, 공개성의 원칙으로 모든 회의 안건·논의 과정·결정 사항을 군민에게 실시간 공개하겠습니다.

셋째, 반영성의 원칙으로 주민이 제안하고 심의한 사업이 예산에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의무 반영률을 설정하고 이행 결과를 공표할 예정입니다.

3대 원칙의 조례화 및 제도 정비

- 강진군 주민참여 기본조례에 대표성·공개성·반영성 3대 원칙을 명문화
 - ✓ 모든 주민참여 기구(주민참여예산위원회, 주민자치회, 각종 심의위원회 등)에 일괄 적용
 - ✓ 위원 구성 시 청년(만 19~39세) 20% 이상, 여성 30% 이상, 읍·면 지역 안배를 의무화하여 특정 계층·지역 편중을 방지

- 2024년 12월 제정된 강진군 주민자치 조례와 연계하여, 주민자치회·주민총회 운영에도 동일한 원칙을 적용

공개성 강화를 위한 실시간 공개 체계 구축

- 모든 위원회의 안건·회의록·표결 결과를 강진군청 홈페이지와 민원 365 시스템에 48시간 이내 공개 의무화
 - ✓ 주요 위원회 회의는 유튜브·SNS를 통해 생중계하고, 군민이 실시간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댓글·채팅 창구를 운영
- 회의 자료를 고령 군민도 이해할 수 있도록 요약본·카드뉴스 형태로 제작·배포

반영성 확보를 위한 의무 반영 체계 마련

-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선정된 사업의 예산 반영률을 50% 이상으로 설정
- 미반영 사업에 대해서는 사유를 공개적으로 설명하는 '반영 결과 보고회'를 연 1회 이상 개최
 - ✓ 주민제안 사업의 접수→심의→반영→집행→평가 전 과정을 추적할 수 있는 '제안 이력 추적 시스템'을 구축하여 투명성 확보
- 매년 '3대 원칙 이행 보고서'를 발간하여 군민에게 공표하고, 실패 리포트와 연계하여 개선 사항을 지속 보완

- 예정위치 : 강진군 전 지역
- 사업예산 : 1억 원
(조례 제·개정, 위원회 운영, 공개시스템 구축)
- 이행기간 : 2027년~2028년
(1단계 제도화, 2단계 전 읍·면 확대 적용)
- 재원조달 : 국비, 군비
행안부 주민참여예산·민관협치 공모
- 우선순위 : 1순위
- 사업목표 : 주민참여 기구 위원 다양성 지수 30% 이상
주민제안 사업 예산 반영률 50% 이상 확보

2) 주민심사·예산참여 플랫폼

강진군은 매년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통해 군민 제안 사업을 심의하고 있으나, 2025년 기준 위원 10~12명이 연 1회 회의에서 30여 건의 제안을 심의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접수 방식도 군청 홈페이지·우편·읍면 방문 접수에 한정되어,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청년층은 물론 이동이 불편한 고령 군민의 참여도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전국적으로도 주민참여예산 제도 운영에서 '개선 필요' 판정을 받은 지자체가 185개(76.1%)에 달할 정도로, 형식적 운영이 만연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결합한 '강진 주민심사·예산참여 플랫폼'을 구축하겠습니다. 군민 누구나 스마트폰이나 PC로 사업을 제안하고, 온라인 투표와 토론에 참여하며, 예산 편성 과정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디지털 플랫폼을 조성하겠습니다.

동시에 디지털 접근이 어려운 고령 군민을 위한 오프라인 참여 창구를 읍·면별로 운영하여, 전 세대가 예산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온라인 주민심사·예산참여 플랫폼 구축

- 군민이 언제 어디서나 사업을 제안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웹·모바일 기반의 '강진 예산참여 플랫폼' 개발
 - ✓ 제안 접수 → 부서 검토 → 주민 온라인 투표 → 위원회 심의 → 예산 반영 → 집행 모니터링까지 전 과정을 플랫폼에서 원스톱 처리
- 민원 365 시스템과 연동하고 민원 데이터 기반의 사업 제안 추천 기능을 탑재하여, 심의 효율성을 제고

주민참여예산 심의 체계(연 2회) 운영

- 기존 연 1회 심의 체계를 연 2회(상반기 본예산, 하반기 추경예산)로 확대하여 군민 참여 기회를 두 배로 확대
- 온라인 플랫폼에서 사전 토론(2주) → 온라인 선호도 투표(1주)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최종 심의 → 결과 공개의 4단계 프로세스 운영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수를 현행 10~12명에서 20명으로 확대하고, 읍·면별 최소 1명 이상 배정

오프라인 참여 창구 운영 (디지털 격차 해소)

- 11개 읍·면사무소에 터치스크린 키오스크를 설치하여 고령 군민도 화면 터치만으로 사업 제안·투표에 참여 가능
- 읍·면 이장단 회의, 경로당 방문 등을 통한 '찾아가는 예산 설명회'를 연 2회 이상 운영
- 군민 디지털 활용 교육을 연 4회 이상 실시하여 온라인 플랫폼 접근성을 단계적으로 확대

예산 편성·집행 실시간 모니터링 기능

- 강진군 전체 예산(2026년 기준 5,355억 원)의 편성·집행 현황을 플랫폼 대시보드에서 실시간 확인 가능하도록 공개
- 주민제안 사업의 진행 상황(설계→발주→시공→준공)을 단계별로 표시하여 '내가 제안한 사업'의 이행 과정을 추적
- 분기별 예산 집행률 및 사업 성과를 카드뉴스·영상으로 제작하여 군민에게 안내
- 예정위치 : 강진군 전 지역
(온라인 플랫폼 + 읍·면 오프라인 참여 창구)
- 사업예산 : 5억 원
(플랫폼 개발·구축, 운영비)
- 이행기간 : 2027년~2028년(시범운영-고도화)
- 재원조달 : 강진군 군비 100%(플랫폼 구축·운영비)
- 우선순위 : 1순위
- 사업목표 : 주민참여예산 플랫폼 가입률 군민 20% 이상
주민제안 사업 접수 건수 연 100건

3) 신뢰성 측정지표 개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군민의 신뢰는 행정의 근간이지만, 이를 체계적으로 측정하고 관리하는 기초자치단체는 극히 드문 실정입니다. 우리 강진군의 경우 2025년 본예산 4,864억 원 규모의 재정을 운용하면서도 군민이 행정을 얼마나 신뢰하는지, 정책에 얼마나 만족하는지를 정기적으로 측정하는 체계가 부재합니다.

행정안전부의 주민참여예산 성과 평가에서 저조한 평가를 받은 것도, 군민 체감과 행정 성과 간의 괴리를 파악하고 개선할 수 있는 측정 도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군민이 체감하는 행정 신뢰도를 과학적으로 측정하고, 그 결과를 정책 개선에 환류하는 '강진형 신뢰성 측정지표'를 개발하겠습니다.

투명성·소통성·반응성·공정성·효과성의 5대 영역별 지표를 설계하고, 반기별 정기 조사와 실시간 체감 피드백 시스템을 구축하여 군민의 목소리를 우리 군 행정 개선의 나침반으로 삼겠습니다. 측정 결과는 전량 공개하고, 낮은 점수 항목에 대해서는 반드시 개선 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가겠습니다.

'강진형 신뢰성 측정지표' 개발

- 대학 연구진·전문 조사기관과 공동으로 강진군 특성에 맞는 5대 영역별 측정지표 개발
- ✓ 5대 영역 : ①투명성(정보 및 예산 공개 체감도, 만족도), ②소통성(민원 응답, 주민 의견 수렴 만족도), ③반응성(제안 사업 반영률, 불편사항 해결), ④공정성(예산 형평성, 행정서비스 균등성), ⑤효과성(정책 체감도, 생활환경 개선 만족도)
- 각 영역별 6개, 총 30개의 세부 측정 문항을 개발하고, 정량화된 점수로 산출

반기별 정기 신뢰도 조사 체계 구축

- 매년 상반기(6월)·하반기(12월) 2회 정기 조사를 실시하여, 정책 변화에 따른 군민 신뢰도 변화를 추적
 - ✓ 조사 대상 : 읍·면별·연령별·성별 인구 비례 할당 대표성 확보
- 온라인, 전화, 읍·면 현장조사를 병행하여 전 세대 응답률 확보

실시간 체감 피드백 시스템 운영

- 민원 처리·정책 집행 직후 군민이 즉시 평가
 - ✓ 실시간 축적되는 체감 데이터를 AI로 분석하여, 만족도 하락 징후가 감지되면 해당 부서에 즉시 알림 발송
- 분기별 '체감 리포트'를 작성하여 군수·부서장에게 보고하고, 개선이 시급한 항목을 선정하여 즉각 대응

측정 결과 공개 및 정책 환류 체계

- 반기별 신뢰도 조사 결과를 군민에게 전면 공개하고, 영역별 점수·전년 대비 변화·읍면별 격차 등을 상세히 보고
 - ✓ 100점 만점 중 60점 미만 영역에 대해서는 30일 이내 개선 계획을 수립하여 공표하는 '신뢰 개선 약속제' 시행
- 연간 '강진군 행정 신뢰 백서'를 발간하여, 측정 → 분석 → 개선 → 재측정의 선순환 구조를 제도적으로 정착시키고, 전국 기초자치단체 최초의 군민 신뢰관리 모델로 확산

- 예정위치 : 강진군 전 지역
- 사업예산 : 2억 원
(지표개발 연구, 시스템구축, 정기조사 운영비)
- 이행기간 : 2027년 지표 설계
2027년~2028년 시범 적용 및 보완
- 재원조달 : 강진군 군비 100%(학술연구 용역)
- 우선순위 : 2순위
- 사업목표 : 5대 영역 30개 세부 측정지표 개발·운영
행정 신뢰도 점수 임기 내 20% 이상 향상

2. 5대 분야 62개 공약

가. 복지·교육

1) 생애주기별 복지시스템 구축

2025년 12월 기준 강진군 인구는 31,799명으로 3만 2,000명 선이 무너진 인구 소멸 위기 지역이며, 세대당 인구는 1.76명으로 점점 감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0~4세 영유아 인구는 600 여명(2% 미만)에 불과해 출생률이 매우 낮으며, 면 단위의 아동·청소년 돌봄 인프라가 도심에 비해 현저히 취약한 실정입니다.

현재 강진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부재하며, 교육과 돌봄 기반 부족으로 인해 학령기 자녀를 둔 인구가 도시로 지속 유출되고 있어 이를 막기 위한 촘촘한 생애주기별 안전망 구축이 시급합니다.

태어나서 생을 마감할 때까지 강진이 책임지는 전생애적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영유아기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설립과 긴급돌봄 시스템을 통해 보육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겠습니다.

청소년기에는 전국 최고 수준의 '청소년수당'을 지급하여 학업과 문화 활동을 보장하겠습니다. 청년 정착을 위한 '리턴랩' 운영과 시니어를 위한 문화예술학교를 개설하겠습니다.

또한 시니어 세대를 위한 디지털 교육을 결합하여 전 세대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복지 강진을 실현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전 세대가 소외 없이 존엄한 일상을 누리는 '군민 행복 강진'을 실현할 예정입니다

영유아 보육 인프라 및 긴급돌봄 체계 구축

- 강진군 육아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 강화
- 면 단위 유희 공간 활용 거점별 육아 나눔터 설치
- 장난감, 도서, 육아 물품 무료 대여 시스템 마련
- 읍면 배송 서비스 실시를 통해 접근성 확보

청소년수당 지급 및 교육·문화 이용 지원

- 7세~18세 아동·청소년 대상 생활 지원금 차등 지급
- 강진군 관내 체육·문화·학습시설 무료 이용권 제공
- 1인 1스포츠 및 1문화예술 창작 활동 지원금 편성

청년 정착 '강진군 리턴랩' 및 주거 패키지

- 귀농, 창업, AI 영농 교육 통합 지원 리턴랩 설치
- 화순군 모텔 벤치마킹 월세 1만 원 주택 단계적 공급
- 청년 일자리 매칭 및 문화·체육 무료 이용권 제공

시니어 건강·배움 공동체 및 일자리 육성

- 경로당 및 복지관 활용 시니어 문화예술학교 운영
- 스마트폰, AI 활용 등 디지털 소외 계층 교육 강화
- 전문성 연계 봉사 및 돌봄 분야 노년 일자리 창출

▪ 예정위치 : 강진군 전역 (강진읍 거점 및 면 단위 확산)

▪ 사업예산 : 50억 원

▪ 이행기간 : 2027년~2030년 (4년 상설 추진)

▪ 재원조달 : 국비, 도비, 군비
보건복지부(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 우선순위 : 1순위

▪ 사업목표 : 육아종합지원센터 1개 건립
청소년수당 수혜자 2,500명 확보
리턴랩 정착률 70% 달성

2) 돌봄 협동거점과 돌봄 코디네이터

강진군의 농번기에는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 경제 활동에 제약을 받는 여성 농업인들이 많으며, 이는 지역 경제 활력을 저해하는 핵심 요소로 지목됩니다.

현재의 돌봄 서비스는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이 단절되어 있어 긴급 상황 발생 시 대응력이 떨어집니다. 특히 고령화로 인해 거동이 불편한 노인 가구가 2025년 기준으로 전체 인구의 1/3을 넘어감에 따라, 마을 단위의 촘촘한 돌봄 관리 체계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마을 주민이 서로를 돌보는 ‘돌봄 협동거점’을 조성하여 공동체 중심의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각 읍면별로 전문적인 (가칭)돌봄 코디네이터를 배치하여 돌봄 수요와 공급을 실시간으로 매칭하고, 긴급 상황에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돌봄을 단순한 복지가 아닌 지역 산업을 지탱하는 핵심 인프라로 격상시키고 주민들의 정주 만족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예정입니다.

마을 중심의 돌봄 협동거점 공간 조성 및 환경 개선

- 마을회관 및 유희 공공시설 돌봄 공간 리모델링
 - ✓ 기존 마을회관 및 경로당을 다세대 돌봄이 가능한 공간으로 전환
- 아이와 어르신이 함께 머물 수 있는 세대 통합형 시설 보강
 - ✓ 유아부터 고령자까지, 노유자의 편의 위한 무장애시설 조성
- 야간·주말도 이용 가능한 마을 공동체 식당 및 쉼터 운영

전문적인 돌봄 코디네이터 양성 및 현장 배치

- 읍면별 전문 돌봄인력 배치 및 긴급수요 대응
 - ✓ 읍면별 사회복지사 및 유관 경력자를 돌봄 코디네이터 채용

- 가정 방문형 돌봄서비스 스케줄링 및 품질 관리
- ✓ 마을별 돌봄 대상자 전수 조사 및 실시간 관리 대시보드 구축
- 긴급돌봄·병원동행 등 맞춤형 서비스 원스톱 매칭 지원

농번기 특별 돌봄 패키지 및 이동 지원

- 농번기 아동·노인 야간 및 주말 긴급 돌봄 센터 운영
- 돌봄 거점 이동을 위한 전용 셔틀버스 또는 택시 연계
- 부모 노동 참여 시간 확대를 위한 식사 제공 서비스

주민 참여형 돌봄 품앗이 및 시간은행 제도 도입

- 이웃 간의 돌봄 노동을 화폐로 가치화하는 시간은행 시스템 구축을 통한 지역화폐의 활용을 확대
- 돌봄 활동 시간을 지역화폐(강진사랑상품권)로 보상하는 체계 마련 추진으로 공동체 회복 지원
- 건강한 노인이 불편한 노인을 돕는 '노노케어' 조직화

▪ 예정위치 : 11개 읍·면 거점 마을회관 및 유희시설

▪ 사업예산 : 45억 원

▪ 이행기간 : 2027년~2029년

▪ 채용조달 : 국비, 도비, 군비

농림부 농촌 돌봄서비스 활성화 지원

농림부 농번기 돌봄지원

전남 행복드림 돌봄 공동체 활동 지원

▪ 우선순위 : 1순위

▪ 사업목표 : 읍면별 돌봄 코디네이터 22명 채용 및 교육
마을 단위 돌봄 협동거점 30개 지정 및 운영

3) 일자리를 만드는 돌봄 생태계 조성

우리 강진군은 초고령사회로 전체 인구에서 약 1만 명 이상이 노령인구(65세 이상)입니다. 돌봄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전문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현재 관내에 보건·복지 서비스업 종사자는 약 2,000여 명으로 지역 고용의 10~13%를 차지하고 있으나 대부분 처우가 불안정하고 경력 개발 경로가 미비합니다. 청년과 경력 보유 여성이 지역에 정착하고 싶어도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여 강진을 떠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어, 돌봄 서비스를 전문 산업으로 육성하는 인식의 전환이 필수적입니다.

돌봄 노동을 전문 기술직으로 정의하고, 이를 통해 강진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돌봄 산업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전문 교육 과정을 거친 '강진 돌봄 아카데미' 수료생을 양성하여 전문성을 강화하고 합리적인 생활임금을 보장하겠습니다.

단순 채용을 넘어 돌봄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을 통해 안정적인 고용 구조를 마련하겠습니다. 돌봄이 일자리가 되고 그 일자리가 다시 마을을 살리는 지속가능한 돌봄 생태계를 구축하여 지역 경제의 선순환을 이끌어내겠습니다.

전문 돌봄 인력 양성 '강진 돌봄 아카데미' 운영

- 기초 돌봄, 응급처치, ICT 기기 활용 등 실무 교육
- 수료자 대상 지역 공공일자리 우선 등록 및 배치
- 경력 단절 여성 및 은퇴자 맞춤형 재취업 프로그램

돌봄 노동자 처우 개선 및 생활임금제 도입

- 지역 최저임금 이상의 강진형 돌봄 생활임금 책정
- 근속 수당 지급 및 유급 휴가 보장 등 복리후생 강화
- 돌봄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상담 지원 센터 운영

돌봄 일자리 경력 사다리 설계 및 직급화

- 돌봄 보조에서 전문 매니저까지 단계별 경력 개발 지원
- 코디네이터 선발 시 아카데미 수료 및 경력자 우대
- 전문성 강화를 위한 보수 교육 및 자격 취득 지원

사회적기업 및 돌봄 협동조합 육성 지원

- 돌봄 서비스 제공 기관의 사회적 경제 조직 전환 유도
- 초기 운영비 지원 및 공공 조달 시장 진입 컨설팅
- 지역 화폐와 연계한 서비스 바우처 이용 활성화

- 예정위치 : 강진군 전 지역
- 사업예산 : 15억 원
- 이행기간 : 2027년~2029년
- 재원조달 : 국비, 도비, 군비
고용노동부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전라남도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및 재정지원
- 우선순위 : 2순위
- 사업목표 : 돌봄 아카데미 수료생 100명 배출
사회적기업 5개 육성
돌봄 일자리 150개 창출

4) 복지 자동지급과 AI 활용 돌봄 강화

강진군민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2025년 2월 기준 1,502가구(1,901명)에 달하며,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매년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보 접근성이 낮은 고령층의 경우 본인이 대상자인지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신청주의 복지의 한계가 명확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옴천면과 같이 인구 밀도가 낮은 지역(10.1명/km²)은 대면 방문 위주의 전통적인 돌봄만으로는 고립된 가구의 위기 징후를 실시간으로 포착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행정 데이터를 통합하여 군민이 신청하지 않아도 복지 혜택을 먼저 찾아주는 '자동 지급 시스템'을 전국 최초로 구현하겠습니다.

전기·수도 사용량 및 병원 이용 기록 등 빅데이터를 AI로 분석하여 고립 가구의 이상 징후를 즉각 감지하는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위기 징후 포착 시 돌봄 코디네이터가 즉시 현장에 출동하는 온·오프라인 통합 시스템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기술의 유능함에 행정의 진심을 더해, 단 한 사람의 군민도 복지 그늘에서 소외되지 않는 존엄한 일상을 지켜내겠습니다.

행정 데이터 기반 복지 수혜 자동 알림 및 지급

- 군민 맞춤형 복지 혜택 자동 매칭 시스템 개발 및 운영
- 신청 서류 간소화 및 카드 한 장으로 누리는 통합 복지
- 지급 누락 방지를 위한 실시간 데이터 업데이트 체계

AI 기반 고립 가구 위기 징후 포착 시스템 구축

- 전기, 수도, 가스 등 공공 데이터 이상 패턴 감지 기술
- 일정 기간 전력 미사용 시 자동 안부 전화 및 알람 발송
- 약국·병원 이용 단절 데이터를 활용한 긴급 상황 예측

스마트 돌봄 기기 보급 및 모니터링 강화

- AI 및 IoT 기술을 활용한 24시간 스마트 안심 서비스
- 독거노인 가구 대상 AI 스피커 및 활동 센서 설치
- 긴급 상황 시 119 및 관제센터 자동 연결 시스템 구축
- 돌봄 코디네이터용 실시간 위기 가구 대시보드 운영

데이터 활용 복지 사각지대 제로(Zero) 캠페인

- 이장 및 마을 공동체 연계 데이터 정확도 검증 활동
- 디지털 소외 계층을 위한 읍·면별 대면 안내 창구 운영
- 성공 사례 공유를 통한 타 지자체 확산 및 모델 정립

디지털 소외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정보 관리사' 운영

- 디지털 기기 활용이 어려운 어르신 대상 1 : 1 방문 교육 실시
- 마을 이장 및 부녀회장 대상 복지전달 시스템 교육 병행
- 읍면 사무소 내 '복지 키오스크' 배치, 도우미 상시 운영

▪ 예정위치 : 강진군 전역 적용 (전 가구 데이터 통합)

▪ 사업예산 : 5억 원 (시스템 고도화 비용)

▪ 이행기간 : 2027년~2027년

▪ 재원조달 : 국비, 군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AI기반 취약계층 돌봄사업
행정안전부 디지털 타운 조성

▪ 우선순위 : 1순위

▪ 사업목표 : 복지 사각지대 발굴 50% 향상
AI 돌봄 가입 1,000가구
위기 시 응답 1시간 이내 달성

5) 인권보호형 공공요양마을 건립

2025년 말 현재 강진군에는 군립노인전문요양원을 포함해 7개의 요양시설이 운영 중이나, 대형 시설 위주의 '수용형' 모델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2023년 고령화율이 37%를 넘어서면서 치매 등 노인성 질환자 수는 매년 급증하고 있으며, 시설 입소 시 기존의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어 삶의 질이 급격히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새 정부가 국정과제(78번)로 '사는 곳에서 누리는 통합돌봄'을 제시하고 있는 만큼,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 안에서 존엄을 유지하며 살아갈 새로운 모델이 필요합니다.

강진의 자연 속에서 생활과 돌봄이 하나가 되는 인권보호형 공공요양마을을 건립하겠습니다. 일본의 오무타시의 사례와 같이 치매 어르신들이 수용 시설이 아닌 일반적인 주거 환경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커뮤니티형 마을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개인의 독립된 생활 공간을 보장하되 전문 의료진과 돌봄 인력이 상주하며 24시간 안전을 지키는 통합 돌봄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이 평생 살아온 강진을 떠나지 않고도 가장 존엄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한국형 요양 모델의 표준을 강진에서 만들겠습니다.

자연 친화적 커뮤니티형 요양 마을 마스터플랜 수립

- 기존 시설과 차별화된 단독 주거 형태의 마을 공간 설계
 - 안전 산책로, 텃밭, 주민 편의시설 포함 생태 마을 조성
 - 입주자 취향과 건강 상태를 고려한 맞춤형 공간 배치
- 치매 특화 전문 돌봄 및 의료 연계 시스템 운영

- 정부 국정과제 연계 치매 안심 마을 프로그램 전면 도입
- 상주 간호 인력 및 24시간 ICT 원격 모니터링 체계 구축
- 인근 병원과 긴급 후송 및 협진 체계를 위한 MOU 체결

지역사회 개방형 프로그램 및 세대 교류 활동

- 마을 내 카페, 공방 운영을 통해 지역 주민과 자유로운 교류
- 어린이집·학교와 연계한 세대 통합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 자원봉사자 및 학생 인턴십을 통한 활력 있는 마을 운영

마을 운영 전문가 및 요양 보호사 직접 고용

- 안정적인 서비스 품질 유지를 위한 공공 부문 직접 고용
- 마을 운영 과정에 입주자 가족과 주민 참여 위원회 구성
- 실패 없는 운영을 위한 단계별 파일럿 프로젝트 선행

- 예정위치 : 관내 쾌적한 산림 또는 평지
- 사업예산 : 150억 원
- 이행기간 : 2027년~2030년 (중장기 건립)
- 재원조달 : 국비, 도비, 군비, 민자
- 우선순위 : 2순위
- 사업목표 : 공공요양마을 1개 조성
입주자 만족도 95% 이상
지역 일자리 50개 창출

6) 맞춤형 건강 급식과 건강식당 운영

현재 강진군 관내 초등학교 13개교, 중학교 9개교의 급식은 획일적인 표준 식단으로 제공되고 있어 아이들의 개별적인 건강 상태를 반영하기 어렵습니다.

아토피, 알레르기, 비만 등 맞춤형 영양 관리가 필요한 학생이 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대응 체계는 미비한 실정입니다. 또한 노인인구 비중이 높은 강진의 특성상 당뇨, 고혈압 등 만성 질환 어르신들을 위한 영양식 제공이 절실하지만, 대다수의 지자체가 그렇듯 경로당 식사는 여전히 영양 균형보다는 양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급식의 개념을 '공공의 책임 돌봄'으로 전환하고, 세대별 맞춤형 영양 식단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학생들에게는 건강 기록을 기반으로 한 알레르기·체중관리형 맞춤 급식을 도입하고 강진의 친환경 식재료를 우선 활용할 예정입니다.

어르신들을 위해서는 질환별 건강 식단을 개발하여 지역 식당 및 경로당과 연계한 '건강식당 인증제'를 시행하겠습니다. 지역 식당에서 건강 영양식을 드시면 행정이 비용을 결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밥상 위에서 건강 주권을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별 건강 데이터 기반 맞춤형 급식 모델 도입

- 아토피, 알레르기, 비건 등 유형별 대체 식단 시범 운영
- 학교 영양사와 AI가 협업한 데이터 기반 식단 설계
- 방학 중 무급 문제 해결을 위한 급식노동자 처우 개선

고령자 만성 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식당 인증제

- 당뇨, 고혈압, 근감소증 예방 등 질환별 특화 메뉴 개발

- 인증 지역 식당 이용 시 바우처 및 포인트 자동 결제
- 조리 종사자 대상 영양 및 위생 교육 프로그램 상설화

강진 친환경 농축수산물 공공 급식 조달 확대

- 지역 내 농축수산물 생산과 소비의 선순환을 위한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연계
- 로컬푸드 농가와 계약재배를 통한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
- 급식 재료의 신선도와 투명한 유통 이력 공개 시스템 운영

돌봄 사각지대 아동·어르신 저녁 급식 단계적 확대

- 맞벌이 가정 아동 대상 방과 후 돌봄 거점 저녁 식사 제공
-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을 위한 도시락 배달 서비스 강화
-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마을 부엌' 활성화

- 예정위치 : 강진군 관내 학교 및 지정 건강식당 20개
- 사업예산 : 12억 원 (연간 운영비 및 인증 지원비)
- 이행기간 : 2027년~2027년 (시범 운영 후 확대)
- 재원조달 : 국비, 도비, 군비
교육부 급식 지원비
- 우선순위 : 1순위
- 사업목표 : 맞춤형 급식 만족도 90%
건강식당 20개 지정
친환경 식재료 비중 80% 달성

7) 로봇과 사람의 통합돌봄 연합작전

강진군은 독거노인 수가 5,000여 명에 달하며, 그중에서는 75세 이상 초고령자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상시적인 돌봄이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가용 돌봄 인력의 한계로 인해 모든 어르신을 24시간 밀착 케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이는 고독사 위험과 정서적 고립감 증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술 혁신으로 'AI 반려 로봇' 등이 보급되고 있으나, 단순한 기기 보급만으로는 어르신들이 느끼는 사람의 온기와 교감을 완전히 대체할 수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로봇의 효율성과 사람의 따뜻함을 결합한 강진형 통합 돌봄 연합작전을 전개하겠습니다. 75세 이상 어르신에게 'AI 대화 도우미 로봇'을 보급하여 24시간 빈틈없는 건강 모니터링을 실시하겠습니다.

동시에 주 1회 '사람 대화 도우미(강진 동행지기)'를 파견하여 산책, 취미 활동 등 정서적 교감을 나누는 밀착 돌봄을 병행하겠습니다. 기술이 사람을 소외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술이 사람과 공동체를 더 단단하게 연결하는 모델을 통해, 강진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여겠습니다.

지능형 AI 반려 로봇 보급 및 통합 관제 체계

- 대화, 투약 알림, 치매 예방 퀴즈 기능 탑재 로봇 지원
 - 응급 상황 감지 시 119 및 돌봄 코디네이터 자동 알림
 - 어르신 사용 이력 분석을 통한 맞춤형 건강 콘텐츠 제공
- ### 사람 대화 도우미 '강진 동행지기' 운영 및 교육

- 지역 내 활동을 희망하는 주민을 '동행지기'로 위촉하여 일

자리 창출

- 주 1회 정기 방문을 통한 정서적 교감 및 건강 상태 확인
- 어르신 동행 산책, 식사 지원, 스마트폰 활용 교육 실시

동행 일지 기록 및 맞춤형 케어 계획 수립

- 로봇의 데이터와 사람의 방문 기록을 결합
- 복합 민원이나 의료적 조치가 필요할 경우 부서 연결
- 보건소 방문 간호 서비스와 연계한 질병 집중관리

세대 통합 자원봉사 및 대학생 서포터즈 연계

- 청소년·청년들이 도우미와 함께 어르신 댁을 방문
- 어르신을 위한 1 : 1 스마트 코칭 봉사단 운영
- 우수 활동 사례 발표 및 '동행 지기' 네트워킹 데이 개최

- 예정위치 : 강진군 전 지역 (75세 이상 독거노인 가구)
- 사업예산 : 10억 원 (로봇 구매 및 도우미 활동비)
- 이행기간 : 2027년~2027년
- 채용조달 : 국비, 군비
보건복지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 우선순위 : 1순위
- 사업목표 : 반려 로봇 500대 보급
동행지기 50명 활동
우울감 지수 30% 감소 달성

8) 전국 최초 장애인 전용 캠핑장 유치

2026년 1월 기준, 전국에는 약 4,300여 개의 야영장이 등록되어 있으나, 장애인을 위해 특화된 전용 캠핑장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국내 장애 인구는 약 260만 명(인구의 5.1%)으로 휴양과 여가에 대한 욕구가 높지만, 캠핑장 내 경사로, 장애인 화장실 등 편의시설 부족으로 자연을 즐길 권리에서 소외되어 있습니다.

미국, 독일 등 선진국은 무장애 야영장 인증제와 이동 약자 전용 서비스를 법으로 보장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소득 수준에 맞는 '포용적 관광 인프라' 도입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강진만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배경으로 '전국 제1호 장애인 전용 무장애(Barrier-Free) 캠핑장'을 유치하겠습니다. 휠체어 접근이 자유로운 경사로와 전용 카라반, 특화 화장실을 갖추어 장애인 가족이 제약 없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장애가 휴식의 장애가 되지 않도록 전동 휠체어 대여와 전문 도우미 서비스를 제공하여 강진군의 포용성을 전국에 알리겠습니다. 이를 통해 전국의 장애인 단체와 가족들을 강진으로 불러들여 지역 관광 경제의 새로운 활력소로 키워나갈 예정입니다.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한 캠핑 시설 및 환경 조성

- 경사도가 없는 평탄화된 데크 및 대형 휠체어 진입 가능 카라반 시설 도입
- 장애인용 특화 샤워실, 화장실 및 비상 응급 호출 시스템
- 시각·청각 장애인을 위한 촉지도와 점자 안내판, 수어 가이드

이동 약자 전용 서비스 및 특화 프로그램 운영

- 캠핑장 내 이동을 위한 전동 휠체어 및 특수 바이크 대여
- 장애인 전문 생활체육 지도자 파견 및 숲 체험 프로그램
-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캠핑용 꾸러미 판매, 바베큐 지원

장애인 단체 및 가족 중심의 적극적 마케팅

- 263만 장애인 및 단체를 대상으로 한 힐링 캠프 유치
- 장애인 관광 전문여행사와 협업한 '강진 무장애' 상품개발
- 비수기 평일 할인 혜택을 통한 시설 가동률 증대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장애 인식 개선 캠페인

- 캠핑장 운영 인력 중 지역 장애인 및 취약계층 우선 채용
- 비장애인도 함께 이용가능한 통합 공간 설계
- 정기적 '무장애 축제' 개최로 포용도시 강진 이미지 구축

- 예정위치 : 강진만 생태공원 인근(또는 칠량면 해안가)
- 사업예산 : 40억 원
- 이행기간 : 2028년~2029년 (공모 및 착공)
- 재원조달 : 국비, 군비, 민자
문화체육관광부 열린관광지 조성
문화체육관광부 등록야영장 지원
- 우선순위 : 2순위
- 사업목표 : 전용 캠핑장 1개 조성
연간 방문객 2만 명 유치
편의시설 만족도 95% 달성

9) 소멸의 파도를 막을 ‘햇빛 연금’ 도입

강진군은 풍부한 일조량과 해상 풍력 자원 등 재생에너지 잠재력이 매우 높은 지역입니다. 그동안 재생에너지 사업은 외부 자본이 이익을 독점하고 주민들은 경관 훼손과 갈등만을 떠안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지역 발전에 실질적인 기여가 부족했습니다.

주민의 삶이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하면 어떤 복지도 지속될 수 없기에, 지역 자원을 활용한 새로운 소득 모델 개발이 시급합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수익을 주민 모두에게 배당금 형태로 지급하는 '햇빛 연금'을 도입하겠습니다. 에너지 사업 추진 시 주민들이 직접 '주주'로 참여하게 하여 자연이 주는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는 '에너지 민주주의'를 실현하겠습니다.

지급된 연금은 지역 화폐로 환원하여 지역 소비를 촉진하고 장터 상권을 살리는 동력으로 삼겠습니다. 햇빛 연금을 통해 어르신에게는 든든한 노후 자금을, 청년에게는 정착을 위한 종잣돈을 제공하여 강진을 떠나지 않고도 살 수 있는 '경제적 주권 도시'를 완성하겠습니다.

주민 참여형 에너지 협동조합 설립 및 주주 등록

- 강진에서 추진하는 에너지 사업의 주민 지분 참여 제도화
- 청년들이 조합 운영을 맡고 어르신들이 수익을 나누는 세대 상생 모델 개발 운영
- 발전 수익의 투명한 공개를 위한 블록체인 기반 실시간 배당 확인 시스템 구축

햇빛 연금 및 바람 연금의 단계적 지급 체계 마련

- 거주 기간 및 연령에 따른 차등 지급 가이드라인 수립

- 강진으로 이주하는 청년 및 귀농인 대상 '정착 연금' 우대
 - 현금 또는 지역 화폐 선택 지급을 통한 지역 내 소비 유도
- 재생에너지 이익 공유를 위한 자치 법규 및 기금 조성**
- '강진군 재생에너지 개발 이익 공유 조례' 제정
 - 안정적 지급을 위한 '강진 지속가능 에너지 기금' 설치
 - 외부 대규모 자본의 이익 독점을 방지하는 강진형 이익 환수 모델 개발

에너지 교육 및 주민 홍보를 통한 갈등 최소화

- 에너지 공익성과 주민 소득 증대 효과에 대한 교육 실시
- 사업 부지 인근 마을에 대한 추가 인프라 지원
- 군민이 주도하는 에너지 자립 마을 육성 및 벤치마킹 지원

- 예정위치 : 강진군 전 지역 (해상풍력 및 육상 태양광)
- 사업예산 : 100억 원 (기금 조성 및 배당금 초기 지원)
- 이행기간 : 2027년~2030년 (지속 추진)
- 재원조달 : 국비, 도비, 군비
지방소멸대응기금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산업통상자원부 미래형 분산에너지시스템 구축
전라남도 재생에너지 이익공유형 태양광사업
- 우선순위 : 1순위
- 사업목표 : 전 군민 연간 1인당 100만 원 이상 지급
지역화폐 거래량 30% 증가

10) 지역과 학교를 연결하는 창의인재 양성

강진군의 학령기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2024년 기준 초등학생 930명, 중학생 701명 수준으로 교육을 위한 도시 이주가 인구 유출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학교는 지식 전달에만 머물러 있고 지역 사회의 기업, 농장, 문화 예술 자원과의 연결이 부족하여 학생들이 지역의 미래 가치를 발견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아이들이 강진에서 배우고 성장하여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현장 기반 학습'과 실질적인 도전 기회 제공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학교 담장을 허물어 강진군 전역이 교실이 되는 마을 교육 도시를 건설하겠습니다. 지역 기업과 농장을 실습장으로 활용하는 '마을 교육 허브'를 구축하여 학생 개인이 자신만의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학생들이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프로젝트를 시도할 때 필요한 '학생 수당과 소액 펀드'를 지원하여 도전 정신을 길러주겠습니다. AI 기반 자기주도 학습 플랫폼을 도입하여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고, 세계를 무대로 꿈을 펼칠 수 있는 창의적 인재를 강진에서 직접 길러내겠습니다.

학교-기업-마을을 잇는 '강진 마을 교육 허브' 구축

- 주 1회 지역 농장, 장터, 기업에서 진행되는 정규 교과 과정 연계 및 지역 전문가와 장인이 스승이 되는 '우리 동네 멘토단' 운영
- 현장 경험을 데이터로 축적하는 학생 개인별 디지털 포트폴리오 지원

도전하는 인재 육성을 위한 '학생 수당' 및 소액 펀드

- 지역 문제 해결 및 창작 활동 시 필요한 재료비 및 활동

수당 지급

- 학생들이 직접 기획하는 소규모 창업 및 실험 프로젝트 예산 지원
- 도전 경험을 장려하는 '실패 없는 장학금' 제도 운영

AI 기반 자기주도 학습 및 맞춤형 진로 설계 지원

-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맞춤형 온라인 플랫폼 보급
- 현장 데이터와 연계한 진학 및 취업 경로 추천 AI 서비스
- 농업·문화·예술 등 강진 특화 분야 온라인 모듈 개발

세대 공감 평생 학습 및 마을 교육 공동체 활성화

- 어르신들의 지혜와 청년의 감각이 만나는 세대교실 운영
- 학부모와 지역 주민이 함께하는 교육 과정 개발
- 배움의 결과를 지역 축제나 전시로 승화시키는 '강진 교육 페어' 행사 정기 개최

▪ 예정위치 : 강진군 전역 학교 및 체험 학습장

▪ 사업예산 : 30억 원

▪ 이행기간 : 2027년~2030년

▪ 재원조달 : 국비, 도비, 군비, 민자
교육부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
교육부 온동네 초등돌봄·교육
교육부 학교복합시설 건립
전라남도 학교 밖 교육 지원

▪ 우선순위 : 2순위

▪ 사업목표 : 현장 실습 참여 학생 500명
학생 창업 프로젝트 20건
지역 정착 의지 20% 향상

11) 특성화 교육을 통한 작은 학교 살리기

강진군 관내 초등학교 13개교 중 60명 이하 소규모 학교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으며, 지속적인 학생 수 감소로 인한 폐교 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학교가 사라지면 젊은 층의 유입이 차단되고 마을 공동체 전체가 붕괴되는, 지금보다 더 큰 지방소멸 위기로 이어집니다. 단순히 학생 수를 유지하는 차원을 넘어, 도시 학부모들이 강진의 학교를 매력적인 교육 공간으로 인식하고 스스로 찾아오게 만드는 획기적인 교육특성화 브랜드 전략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강진의 작은 학교들을 폐교 위기에서 구해내 전국에서 가장 주목받는 특성화 명문 학교로 키우겠습니다. 생태·농업, 문화예술, 음악 오케스트라 등 각 학교별로 명확한 주제를 정해 지원하고, 도시 학생들이 찾아오는 '유학형 학교' 모델을 구축하겠습니다.

교육청 예산과 별도로 강진군에서 특화 프로그램 운영비를 대폭 지원하여 스마트 교실과 마을 도서관 등 전국 최고 수준의 인프라를 마련하겠습니다. 학교를 마을 공동체의 중심으로 복원하여 아이와 부모가 함께 돌아오는 강진을 만들겠습니다.

학교별 테마가 있는 '강진형 특성화 교육 브랜드' 개발

- 생태·치유 학교(도암면 등), 예술·디자인 학교 등 지역 연계 테마 선정
- 방과 후 활동을 넘어 정규 과정 내 특화 커리큘럼 편성 지원 강화 및 확대
- 전국 단위 학생 모집을 위한 홍보 브랜딩 및 유학 캠프 운영 지원

도시 가족 유입을 위한 '유학형 주거 및 생활' 지원

- 농산어촌 유학 프로그램과 연계한 유학생 가족 전용 주거 공간 제공 지원
- 부모의 지역 정착을 위한 일자리 매칭 및 취업 교육 연계
- 유학생과 지역 학생이 함께 어우러지는 공동체 통합 프로그램 운영

최신식 교육 인프라 및 스마트 교실 확충

- 노후교실을 스마트 러닝 센터 및 창의 공방으로 리모델링
- 교내 마을 도서관 및 주민 개방형 체육시설 설치 지원
- 학생을 위한 안전한 통학 셔틀 및 수요응답형 버스 연결

교직원 정주 여건 개선 및 전문성 향상 지원

- 우수교원 확보를 위한 지역 근속수당·연수 프로그램 지원
- 교직원 관사 현대화, 생활 편의시설 확충 근무만족도 제고
- 지역 사회와 협업하는 혁신 학교 모델 연구 지원비 편성

- 예정위치 : 강진군 관내 11개 읍·면 소규모 학교
- 사업예산 : 50억 원
- 이행기간 : 2027년~2028년
- 채용조달 : 국비, 도비, 군비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유학 지원
교육부 교육발전특구 지정
전라남도 교육청 작은학교 특성화 프로그램
- 우선순위 : 1순위
- 사업목표 : 특성화 브랜드 학교 5개교 육성
도시 유학 학생 100명 유치
폐교 제로 달성

12) 국립 숲유치원 조성

산림청이 운영하는 국립 숲유치원은 자연 속에서의 체험과 놀이를 통해 아이들의 정서 발달과 창의력을 돕는 생태 교육 시설로 전국적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라남도에는 아직 국립 숲유치원이 단 한 곳도 없어,

생태 교육을 원하는 지역 부모들의 갈증이 큰 상황입니다. 강진군은 군 전체 면적의 약 57%(286km²)가 임야인 풍부한 산림 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이를 활용한 특화된 교육 인프라 구축을 통해 젊은 부부들의 정착을 유도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최초의 '국립 숲유치원'을 강진에 유치하여, 아이들이 자연 속에서 배우고 성장하는 생태 유아교육의 메카로 만들겠습니다. 단순한 유치원을 넘어 산림 자원을 활용한 체험 배움터와 교사들을 위한 숲 교육 전문연수원 기능을 동시에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강진 관내의 모든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개방형 숲 교실을 운영하여 보육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이겠습니다. 숲유치원이 젊은 부모들에게는 '강진에 살아야 할 이유'가 되고, 아이들에게는 건강한 미래를 선물하는 공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청 '국립 숲유치원' 유치를 위한 전략적 공모 추진

- 풍부한 산림 자원과 다산인문학을 결합한 유치 계획 수립
- 중앙 부처 및 국회와 긴밀한 협력을 통한 국비 확보 활동
- 숲유치원 건립을 위한 최적의 부지(국공유지) 선정 및 행정 절차 지원

숲속 교실, 자연 체험장 등 생태 교육 인프라 구축

- 나무 집, 야외 놀이터, 숲 산책로 등 자연 훼손 최소화한 건축 설계와 사계절 자연 변화를 느끼는 특화체험존 조성

- 기상 악화 시에도 교육이 가능한 친환경 실내 생태 학습관 마련

전남 지역 유치원 및 예비 교사 전문 연수 프로그램 운영

- 숲 교육 전문가 양성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 과정 및 자격 연수 실시
- 관내 어린이집·유치원 원아 대상 주 1회 정기 숲 체험의 날 지정
- 가족과 함께하는 주말 숲 캠핑 및 힐링 프로그램 개발

지역 산림 보호와 연계한 지속가능한 운영 모델 정립

- 마을 어르신을 '숲 해설사' 및 '숲 지킴이' 고용
- 방문객 대상 지역 특산물 홍보 및 직거래 장터 운영
- 아이들의 교육 활동을 지역 산림 가꾸기와 연계한 환경 보호 캠페인

- 예정위치 : 보은산 또는 만덕산 일원
- 사업예산 : 100억 원 (국비사업 유치 중심)
- 이행기간 : 2027년~2029년 (부지 확보 및 유치 추진)
- 재원조달 : 국비
산림청 국립 산림교육시설 조성(국비 100%)
- 우선순위 : 2순위
- 사업목표 : 국립 숲유치원 유치 확정
연간 교육생 5,000명 수용
생태 교육 만족도 95%

나. 산업·경제

1) 강진 정착 목적의 취업·창업 교육

강진군은 인구 감소추세로 소멸 위험이 매우 높으며, 특히 생산가능인구인 30~40대 비중이 낮아 경제의 활력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현재 취업자의 42%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나, 제조업 비중은 8.3%에 불과해 청년들이 졸업 후 정착할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또한 기존의 취업 교육이 지역 수요와 동떨어져 교육 이수 후 도시로 떠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어, 강진군의 공공 발주 및 특화 산업과 연계된 '지역 맞춤형 인재 양성'이 시급합니다.

강진에서 배우고 강진에서 일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교육생의 선호가 아닌 '강진군의 산업 수요'에 맞춘 취업·창업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실질적인 정착률을 높이겠습니다.

특히 군청에서 발주하는 수의계약 현황을 분석하여 지역 내 부재한 업종의 창업을 유도하고, 초기 공공 발주 물량을 보장함으로써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이 강진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지는 당당한 경제 주체로 성장하도록 돕겠습니다.

강진 산업 수요 연계형 전문 기술 교육

- 강진군 산업(헬스케어, 스마트팜 등) 특화 커리큘럼 설계
- 공공기관 및 기업 실무자가 직접 참여하는 현장 교육
- 자격증 취득 비용 지원 및 지역 취업 시 정착장려금 지급

공공 발주 데이터 기반 전략 창업 지원

- 3년 내 수의계약 데이터 분석을 통한 블루오션 업종 발굴
- 외지 업체 의존도가 높은 품목 중심의 지역 내 창업 유도 프로그램 운영 지원
- 창업 1년 차 대상 강진군 공공구매·수의계약 우선권 부여

정착 상담 및 사후 관리 '정착 코디네이터'

- 교육 수료생 대상 주거·금융·생활 민원 통합 컨설팅 제공
- 정기적 창업자 네트워킹 데이 운영을 통한 정보공유 지원
- 실패 리포트 공유 및 재기 지원 패키지를 통한 끊임없는 지속가능성 확보

- 예정위치 : 강진군 전역 및 강진군 일자리실무센터
- 사업예산 : 20억 원
- 이행기간 : 2027년~2027년
- 재원조달 : 국비, 도비, 군비
고용노동부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사업
- 우선순위 : 1순위
- 사업목표 : 지역 정착형 교육생 200명 양성
신규 창업 20개
공공 발주 매칭률 20% 달성

2) 강진형 창업 파이프라인 구축

강진군 내 사업체 수는 5,876개이나, 대부분 1~4인 규모의 영세 사업체로 구성되어 있어 지속가능한 성장에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청년 창업가들은 초기 자금 부족과 판로 개척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무엇을 하려 해도 안 된다는 편견"에 부딪혀 창업의 꿈을 접고 있습니다.

현재 강진은 귀농 인구는 있으나 비농업 분야의 창업 지원 체계가 미비하여 청년들이 가진 다양한 아이디어가 지역 경제의 혁신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아이디어가 실제 비즈니스가 되고 지역에 안착할 수 있도록 창업 파이프라인을 설계하겠습니다. 현장 기반의 인턴십부터 팝업상점 실험, 초기 시드 펀드 지원, 전문 멘토링까지 단계별 성장 경로를 구축하겠습니다.

실패가 낙인이 아닌 자산이 되도록 '실패 리포트' 제도를 도입하고, 재도전 기회를 보장하여 청년들이 마음껏 도전할 수 있는 '리턴시티 강진'을 만들 예정입니다. 청년의 활기가 강진의 골목 경제를 살리는 강력한 동력이 될 것입니다.

현장 기반 '팝업 인턴십' 및 실무 경험 지원

- 지역 기업·농가와 연계한 단기 프로젝트형 실습기회 제공
- 참여청년 대상 활동비 지급 및 직무 역량 강화 교육 병행
- 현장 경험 데이터화, 개인별 디지털 포트폴리오 구축 지원

창업 실험실 '강진 팝업상점' 인큐베이팅

- 전통시장 및 읍내 유희 공간을 청년 창업 실험장으로 무상으로 제공하는 사업 단계적 추진
- 3~6개월 단위의 실제 판매 경험을 통한 시장성 검증 기회 부여

- 우수성과팀 사업화 자금지원 및 정식 창업 전환 연계

전문가 매칭 '강진 멘토스테이션' 운영

- 은퇴 기술자, 성공 사업가와 청년 창업가 간 멘토링 지원
- 법률·회계·마케팅 분야 전문 컨설팅 및 투자 유치 피칭 데이 개최
- 선배 창업가와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정서적 안정 및 정보 공유

- 예정위치 : 강진읍 시장 내 공실 및 유휴 공공시설
- 사업예산 : 15억 원
- 이행기간 : 2027년~2028년
- 채용조달 : 국비, 군비
중소벤처기업부 지역가치 창업가 육성
중소벤처기업부 시군구 연고산업육성
- 우선순위 : 2순위
- 사업목표 : 팝업상점 10팀 육성
청년 창업 펀드 1억 조성
인턴십 정착률 30% 달성

3) AI 고령친화산업 육성

우리 강진군에는 약 12,000여 명의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노인 돌봄과 건강 관리가 행정의 핵심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최근 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 등 산업 구조 전환을 꾀하고 있으나, 생산된 전기를 활용해 지역에 특화된 고부가가치 산업을 유치하는 전략은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복지 수요는 급증하는데 이를 뒷받침할 산업 기반이 없어 예산만 소모되는 구조를 탈피하고, 복지와 경제가 상생하는 새로운 모델이 절실합니다.

강진의 풍부한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AI 고령친화산업을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현재 조성 중인 제2산업단지를 돌봄 로봇, 보행 보조기 등 첨단 기기의 생산 및 실증거점으로 구축하여 산업화와 복지 해결을 동시에 꾀하겠습니다.

강진 어르신들이 먼저 기술의 혜택을 누리는 테스트베드 역할을 수행하며, 고독사 예방과 건강 관리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강진을 전남을 넘어 대한민국의 '실버테크 산업'의 메카로 키워나가겠습니다.

AI 고령친화 산업단지 조성 및 기업 유치

- 돌봄 로봇, 웨어러블 기기 생산기업 대상 부지 지원 추진
- 산업단지 내 RE100 기반 저렴하고 안정적인 재생에너지 공급
- 기업 지원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센터 및 공동장비실 구축

강진형 실버테크 테스트베드(실증단지) 운영

- 어르신 가구 대상 첨단 돌봄 기기 무상 보급 및 사용 데이터 수집

- ICT 기반 24시간 원격모니터링 관제 및 안전망 구축

디지털 시니어 일자리 및 관리 인력 양성

- 돌봄 로봇 및 스마트 기기 운영·관리 청년·중장년 전문 인력 양성 지원
- 건강한 어르신 대상 기기 활용 교육 강사 등 시니어 일자리 창출
- 지역 대학 및 연구소와 협력하여 고령 친화 산업 전문 학위 과정 연계

- 예정위치 : 성전면 강진 제2일반산업단지 내
- 사업예산 : 300억 원 (국비 공모유치 중심)
- 이행기간 : 2027년~2030년
- 재원조달 : 국비, 도비, 군비, 민자
산업통상자원부 스마트특성화 기반구축사업
- 우선순위 : 2순위
- 사업목표 : AI 고령친화 기업 10개 유치
실증주택 10개 건립
노인 고용 일자리 100개 창출

4) 농기계 구독시스템 구축

강진군 농가 인구는 10,630명으로 전체의 32%를 차지하나, 고가의 농기계 구입비는 농가 부채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4개의 임대사업소를 운영 중이지만, 거리상의 불편함과 기계 관리의 어려움으로 소농들이 이용하기에는 여전히 문턱이 높습니다.

특히 고령 농업인들은 "기계가 있어도 고장 나면 고쳐줄 사람이 없다"며 농작업의 한계를 호소하고 있어, 소유 중심의 농기계 문화를 공유와 서비스 중심의 '구독 모델'로 전환해야 합니다.

농기계를 빌려 쓰는 단계를 넘어, 관리와 작업까지 패키지로 누리는 '구독 시스템'을 도입하겠습니다. 개별 농가가 역대 장비를 소유할 필요 없이, 거점별 구독센터를 통해 필요할 때 언제든지 최신 기계를 사용하고 전문 정비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겠습니다.

마을 유희 창고를 활용한 정비 거점에 은퇴 기술자와 청년을 배치하여 일자리도 함께 만들 예정입니다. 농민이 오직 작물 재배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농가 경영비를 획기적으로 절감하겠습니다.

스마트폰 기반 '강진 농기계 구독 앱' 개발

- 실시간 예약, 결제, 장비 위치 확인 및 정비 요청 통합 플랫폼 개발 지원
- 고령 농업인을 위한 전화 기반 음성 예약 시스템 병행 운영
- 사용시간과 면적에 따른 합리적 구독 요금제 설계

마을별 농기계 공유 및 정비 거점 센터 조성

- 읍·면 유희시설 리모델링 농기계 보관 및 정비소 설치

- 숙련된 은퇴 기술자를 마스터 멘토로 위촉하여 수리 지원
- 이동을 지원하는 전용 운반 트럭 서비스 상설 운영

청년 농기계 매니저 양성 및 대행 서비스

- 기계 조작 및 정비 능력을 갖춘 청년 인력 양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 기기 사용이 어려운 고령 농가를 위한 '찾아가는 농작업 대행' 서비스 제공
- 기기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한 정기 현장 순회 점검 및 안전 교육 실시

- 예정위치 : 강진군 읍·면별 거점 농기계 공유센터 11개
- 사업예산 : 50억 원
- 이행기간 : 2027년~2027년
- 재원조달 : 국비, 군비
농림축산식품부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주산지 일관 기계화 지원
지방소멸대응기금
- 우선순위 : 1순위
- 사업목표 : 농가당 기계 구입비 30% 절감
공유센터 3개 구축
정비 인력 5명 고용

5) 창업농 육성을 위한 선도 농가 멘토링

강진군은 쌀, 귀리 등 전통 작물뿐만 아니라 한옥우사육(41,280두) 등 전남 상위권의 축산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롭게 농업에 도전하는 창업농들은 현장 실전 경험과 판로 개척의 부족으로 초기 정착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이론 교육만으로는 기후 변화나 병해충 등 농업 현장의 위기 대응 능력을 키우는 데 한계가 있어, 해당 분야 '고수'들의 노하우를 직접 전수받는 밀착형 교육 체계가 시급합니다.

품목별 최고 기술을 가진 '선도 농가'와 '창업농'을 일대일로 잇는 '강진 농업 스승제'를 추진하겠습니다. 선도 농가를 정규 멘토로 지정하여 농장 실습부터 컨설팅, 판로 공유까지 정착 전 과정을 의무적으로 책임지게 하는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참여 멘토에게는 농업 기계 우선 지원 등 파격적인 혜택을 부여하고, 창업농에게는 농자재 패키지 지원을 통해 초기 실패 위험을 낮출 예정입니다. 도농을 잇는 실질적인 기술 전수로 강진 농업의 세대교체를 성공시키겠습니다.

강진 품목별 기술 명장(멘토) 선정 및 위촉

- 귀리, 쌀, 축산 등 강진 10대 특화품목별 선도농가 선발
- 멘토 대상 강의 기법 및 창업 컨설팅 전문 교육 실시
- 멘토수당 지급 및 기술보급사업 가점 등 인센티브 제공

현장 밀착형 '도제식 영농 실습' 프로그램

- 연간 최소 100시간 이상의 1:1 현장실습 및 노하우 전수

- 토양 관리, 재배 기술, 병해충 대응 등 시기별 실전 커리큘럼 운영 지원

- 창업농 농장에 멘토가 방문하는 상설 '현장 주치의' 활동

창업농 정착을 위한 '강진 정착 패키지' 지원

- 멘토링 이수자 대상 초기 종자, 비료 등 보조

- 창업농 농지 확보를 위한 정보 제공과 시설 하우스 구축비 지원 단계별 강화

- 멘토가 보유한 기존 납품처 및 유통 판로 공유를 통한 소득 안정정책 지원

- 예정위치 : 강진군 농업기술센터 및 선도 농가 사업장

- 사업예산 : 10억 원

- 이행기간 : 2027년~2027년

- 재원조달 : 국비, 도비, 군비, 민자
농림축산식품부 청년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
전라남도 청년 창업농장 조성 지원

- 우선순위 : 2순위

- 사업목표 : 멘토-멘티 50쌍 매칭
창업농 정착률 90% 달성
기술 만족도 95% 이상

6) 청년농 대상 스마트팜 지원

강진군의 농가 인구는 지속 감소 중이며, 60세 이상 고령층이 주를 이루고 있어 미래 농업을 책임질 젊은 인력 확보가 절실합니다.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청년들은 '몸이 부서지는 노동' 대신 '스마트폰으로 하는 유능한 농업'을 꿈꾸지만, 수익원에 달하는 초기 시설투자비용이 장벽이 되고 있습니다.

역대 빚을 지고 시작하는 현재의 창업 구조는 청년들의 농촌 유입을 원천 차단하고 있어, 공공이 주도하는 저위험 고효율 스마트농업 정착 모델이 필요합니다.

청년들이 자본 걱정 없이 기술만으로 농부의 꿈을 시작하는 '임대형 스마트팜'을 조성하겠습니다. 강진군이 기반 시설을 갖춘 단지를 조성해 저렴하게 임대하고, 데이터 기반의 정밀 농업 시스템을 보급하여 생산성을 극대화하겠습니다.

특히 고령 농업인과 청년농을 매칭하는 '세대 통합 멘토링'을 통해 어르신들의 경험과 청년의 IT 감각을 결합하여 가업 승계와 기술 전수의 다리를 놓을 예정입니다. 농업을 강진에서 가장 '힙하고 유망한 비즈니스'로 재정 의하겠습니다.

청년 진입장벽 해소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 조성

- 유리온실, 자동 관수, 환경 제어 시스템 등 시설 구축
- 청년 대상 연단위 저렴한 임대료 적용 제공
- 스마트팜 운영 경험이 없는 입주자 대상 6개월 사전 실습

데이터 기반 '강진형 정밀농업' 표준 시스템 구축

- AI기술을 활용하여 농장별 생육 데이터를 수집·분석하여

최적의 재배 처방 제공

- 에너지 비용 절감 위한 재생에너지 냉난방 시스템 도입
- 공동선별과 데이터 통합관리로 고품질 균질상품생산 지원

세대 상생 '디지털 농업 가업 승계' 지원

- 은퇴희망 고령농가와 창업희망 청년농 매칭시스템 운영
- 청년의 IT기술로 부모가 경영하던 농장을 스마트화할 경우 시설비 추가 지원
- 어르신은 지혜를 전수하고 청년은 수익을 나누는 공동 경영 모델 정착

- 예정위치 : 강진군 성전면 또는 도암면 일원 휴경지
- 사업예산 : 80억 원 (국비 확보 중심)
- 이행기간 : 2027년~2028년
- 재원조달 : 국비, 도비, 군비, 민자
농림축산식품부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농림축산식품부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지원
전라남도 전남형 스마트팜 자립 지원
- 우선순위 : 1순위
- 사업목표 : 임대형 스마트팜 20동 조성
청년농 50명 유치
데이터 농업 전환율 40%

7) 컨테이너 수직농장 보급

강진군 내에는 장기간 방치되어 농촌 경관을 해치고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빈집과 폐컨테이너가 다수 분포하고 있으나 정확한 통계조차 미비한 실정입니다.

폐컨테이너는 단순한 흉물을 넘어 불법 쓰레기 투기장이나 화재 위험 지대로 전락하여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휴 자원을 수거하여 최근 도시농업의 혁신 모델로 부상한 '실내 수직농장'으로 재활용함으로써 환경 개선과 고소득 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합니다.

강진군 전역의 폐컨테이너를 전수 조사하여 수거하고, 이를 고소득 작물을 키우는 '모듈형 스마트팜'으로 변모시키겠습니다. 딸기, 허브 등 부가가치가 높은 작물을 연중 생산하는 '공원형 수직농장'을 조성하여 청년들의 소자본 창업을 지원하겠습니다.

단순히 농장을 넘어 카페, 갤러리, 농산물 판매장 기능을 결합한 '디자인 컨테이너 파크'를 구축하여 강진의 새로운 관광 명소로 키울 예정입니다. 버려진 자원이 강진의 맛과 멋을 생산하는 보물로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폐컨테이너 전수 조사 및 디자인 재생 프로젝트

- 방치 컨테이너 위치·상태 GIS DB화 및 수거 캠페인
- 전문 디자이너와 청년 예술가 참여, 외관 리모델링 실시
- 사용 불가 컨테이너는 폐기물 처리하고 활용 가능한 컨테이너는 공적인 과정을 거쳐 확보

모듈형 '강진 수직농장' 보급 및 창업 지원

- 컨테이너 내 LED 조명, 자동 급수 장치 등 수직 재배 설비 구축 지원

- 딸기, 고추냉이, 샐러드 채소 등 사계절 생산 고소득 작물 중심으로 재배품목 선정

- 수직농장 창업 희망 청년 대상 기술 교육 및 운영비 대출

수직농장 기반 '팜-카페 & 갤러리' 복합 공간 조성

- 생산된 농산물을 즉석에서 소비하는 친환경 레스토랑 연계 운영을 통한 6차산업 활성화

- 주민창작실 및 관광 안내 센터 등 커뮤니티공간 활용

- 컨테이너 파크 조성을 통한 정주 환경 개선 및 관광객의 강진 유입 유도

- 예정위치 : 강진읍 구도심 및 주요 관광지 인근 자투리 땅

- 사업예산 : 20억 원

- 이행기간 : 2027년~2027년

- 재원조달 : 국비, 도비, 군비, 민자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공간 정비
농림축산식품부 스마트농업 확산 및 보급 지원
전라남도 전남형 청년 창업농장 조성 지원

- 우선순위 : 2순위

- 사업목표 : 폐컨테이너 100개 수거 및 재활용
수직농장 20개 보급
신규 일자리 30개 창출

8) 강진 AI농업시범단지 조성

전 세계적으로 AI 농업이 화두이나, 대규모 자본과 기술을 가진 기업 중심으로 전개될 경우 강진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소농들이 기술 소외와 도태를 겪을 위험이 큼니다.

강진군은 취업자의 높은 비중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어, AI 기술이 단순히 효율성을 높이는 도구가 아니라 중·소농의 소득을 보전하고 노동력을 줄여주는 상생 기술로 정착되어야 합니다. 특히 비싼 로봇이나 드론을 개별 농가가 구입하기 어려운 구조를 해결할 수 있는 공공 주도의 실험 장이 절실합니다.

중·소농이 배제되지 않는 ‘강진형 AI 농업 모델’을 검증하기 위한 AI농업 시범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단순히 생산을 넘어서 드론을 통한 방제, 자율주행 농기계, 자동 수확 로봇의 실효성을 실험하고 표준 데이터를 축적하는 허브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개별 농가가 비싼 장비를 사지 않고도 기술을 누릴 수 있도록 로봇 공동협동조합을 설립하여 영농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조를 만들 예정입니다. 기술이 우리 군 농민의 삶을 더 편안하게 만들고, 소득을 확실히 보장하는 농업 혁신을 강진에서 선도하겠습니다.

강진 AI 농업 실증 및 데이터 센터 구축

- 자율주행, 드론, 로봇 수확 등 첨단 기술 농업 현장 적용
- 강진의 자연적인 지형과 기후 및 작물에 최적화된 학습 데이터 축적 및 알고리즘 개발
-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정밀 농업 가이드라인 지역 농가 배포

중·소농을 위한 '로봇 공동이용 협동조합' 육성

- 비싼 AI 농기계를 공동 구매·관리하는 주민 참여형 조합 설립 지원
- 조합 소속 전문 운영 요원이 농가를 방문하여 작업 대행 서비스 실시
- 로봇 이용료 일부를 지역 화폐나 햇빛 연금 포인트로 결제 연계

AI 기반 농산물 가격 예측 및 계약재배 시스템

-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작물별 수급량 및 가격 변동 예측 정보 제공
- 데이터 근거 기반의 적정 생산량 조절 및 안정적인 판로 계약 지원
- 농민이 '제값을 받는 구조'를 만들기 위한 유능한 유통 지원 시스템

- 예정위치 : 강진군 작천면 또는 군동면 일원 시범포 부지
- 사업예산 : 150억 원 (국비 사업 공모)
- 이행기간 : 2027년~2029년 (중기 사업)
- 재원조달 : 국비, 도비, 군비
농림축산식품부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지정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용 로봇 실증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스마트 빌리지 보급 확산
전라남도 전남형 스마트팜 확산
전라남도 첨단 농기계보급 지원
- 우선순위 : 1순위
- 사업목표 : AI 농업 기술 실증 20건
로봇 협동조합 5개 육성
생산비 20% 절감 달성

9) 농산물 직거래와 지역브랜드 개발

강진군은 쌀, 귀리, 한육우 등 우수한 품질의 농특산물을 보유하고 있으나, 투박한 포장과 부족한 마케팅으로 인해 제값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농민들은 정성을 다해 키운 농산물의 판로를 찾지 못해 막막해하고, 소비자들은 강진 농산물이 품은 진솔한 이야기를 알 기회가 부족합니다.

브랜드화는 단순히 가격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농부의 손길과 강진의 사계를 소비자에게 정직하게 전달하여 강력한 '신뢰 자산'을 쌓는 과정이 되어야 합니다.

강진의 맛이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가 되도록 농산물 직거래 시스템과 강진 박스 브랜딩을 강화하겠습니다. 농부의 이름과 밭의 좌표, 조리법을 담은 QR코드 라벨을 도입하여 상품에 살아있는 이야기를 입히겠습니다.

정기 구독 모델을 통해 안정적인 소득원을 확보하고, 도시 레스토랑과 협업한 '강진 메뉴' 개발로 프리미엄 판로를 넓힐 예정입니다. 강진이라는 이름만으로 소비자가 믿고 선택하는 '신뢰 농업'의 표본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야기가 있는 '강진 농산물 디지털 라벨링' 도입

- 주력 상품에 생산자 영상, 밭 위치, 요리법 연결 QR 부착
- 상품디자인 및 패키지를 MZ 감성에 맞춰 고도화 지원
- 강진 풍경과 농부의 진심을 담은 콘텐츠 제작, SNS 홍보

제철 건강 배달 '강진 박스', 구독 모델 활성화

- 강진의 친환경 식재료를 매달 구성하여 배송하는 정기 구독 상품 운영
- 구독자 대상 강진 팜파티 초청 및 농장 체험 연계 제공
- 지역 내 공동 선별·가공 시설을 통한 품질 균일화 및 유통망 확충 지원

수도권 유명 셰프 연계, 강진군 특화메뉴 팝업 마케팅

- 대도시 유명 레스토랑과 협업하여 강진 특산물 활용 메뉴 개발·판매
- 장터 팝업상점과 연계하여 도시 소비자와 생산자의 직접 만남 주선
- 수도권 대형 유통망 내 강진 브랜드 전용 코너 개설 및 공동 판촉

- 예정위치 : 강진군 전역 및 수도권 거점 직매장
- 사업예산 : 12억 원 (연간 운영 및 브랜딩 지원)
- 이행기간 : 2027년~2027년
- 재원조달 : 국비, 도비, 군비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융복합산업 지구 조성
농림축산식품부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전라남도 농특산물 디자인 개발 마케팅 지원
전라남도 남도장터 입점 및 온라인 판촉 지원
- 우선순위 : 1순위
- 사업목표 : 강진 브랜드몰 가입자 5만 명
정기 구독 5천 가구 달성
농가 소득 15% 증대

10) 강진군민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

지방 소멸의 위기 속에 연천, 순창 등 10개 지자체가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시작했으나, 강진군은 아직 대상지에 포함되지 못해 군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큰 상황입니다.

낮은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로 인해 기본소득 지급의 큰 걸림돌로 지목되지만, 이는 단순히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예산의 우선순위를 '사람'에게 두는 행정 철학의 문제입니다.

재생에너지 발전 수익 등 지역 자원을 공평하게 나누는 '균제'의 원리를 통해 군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구조적 결단이 시급합니다.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최소한의 안전망으로서 '강진형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을 반드시 실천하겠습니다. 불필요한 토건 예산을 과감히 정리하고 재생에너지 이익 공유금 등을 묶어서 '농어촌 지속가능기금'을 반드시 조성하겠습니다.

기본소득은 지역 화폐로 지급하여 지역 내 상권으로 돈이 흐르게 함으로써, 소상공인과 농민이 함께 사는 경제 생태계를 만들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강진에 산다는 것 자체가 자부심"이 되는 경제적 주권을 확립하겠습니다.

기본소득 재원 확보를 위한 '예산 재구조화' 단행

- 성과 미비한 반복적 토건 사업 일몰로 사람중심예산 전환
- 강진 농어촌 지속가능기금 설치 및 재생에너지 수익금 일정 비율 적립
- 기본소득 관련 국가 시범사업 유치를 위한 중앙부처 및 국회협력 강화

지역 경제 선순환을 위한 강진사랑상품권 지급

- 기본소득을 지역 내에서만 사용 가능한 지역 화폐로 지급
-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점포 이용 시 추가 포인트 적립 인센티브 부여
- 기본소득 수혜자의 지역 소비 데이터를 기반으로 지역 상권 맞춤 지원

거주 기간 및 연령별 강진 정착소득 체계 수립

- 청년, 신규 귀농·귀촌인 등 취약계층 대상 우선 지원 설계
- 거주기간에 따른 단계적 인상모델을 통해 장기 정주 유도
- 기본소득의 공익적 가치(식량 주권, 환경 보전)에 대한 국민 교육 병행

- 예정위치 : 강진군 전 지역
- 사업예산 : 100억 원 (초기 기금 적립 및 시범 지급)
- 이행기간 : 2027년~2030년 (지급 대상 단계적 확대)
- 재원조달 : 국비, 도비, 군비
농림축산식품부 소농 직불금
전라남도 농어민 공익수당
군비 구조조정, 재생에너지 수익금 활용
- 우선순위 : 1순위
- 사업목표 : 기본소득 대상자 100% 확대
지역 화폐 2회 이상 회전율 90%
정착 의지 30% 향상

11) 수산업과 양식업 혁신

강진 바다는 풍부한 자원의 보고이나, 해조류 및 수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가공 및 바이오 산업 기반은 여전히 미비합니다. 현재 어민들은 자연재해와 가격 폭락 등 모든 리스크를 개별적으로 감당하고 있으며, 분산된 데이터로 인해 과학적인 양식 관리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사람이 떠나고 고령화된 수산 현장에 첨단 기술과 젊은 인재를 수혈하지 않으면, 강진의 해양 경제는 존립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어 획기적인 혁신이 필요합니다.

바다를 데이터와 기술의 일터로 바꾸는 '해양 데이터 플랫폼'과 '공공 인프라 모델'을 도입하겠습니다. 위성·드론을 활용한 실시간 양식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개인에게 맡겨졌던 가공·저장·유통을 군이 지원하는 공공 인프라로 전환하겠습니다.

특히 수산업과 재생에너지를 융합하여 에너지를 획기적으로 낮추고, 해조류 기반의 미래 대체식품 산업을 강진의 핵심 성장 동력으로 키울 예정입니다. 강진 바다가 청년 어부들의 꿈과 일자리를 만드는 기회의 장이 될 것입니다.

ICT 기반 강진 스마트 해양 데이터 플랫폼 구축

- 위성·드론·센서를 활용한 수온, 염분, 질병 등 실시간 정보 통합
- 어민 대상 양식 생산량 예측 및 기후 변화 대응 조기 경보 서비스
-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어장 관리로 폐사율 감소 및 생산성 향상

수산업-에너지 융합 저탄소 양식 시스템 도입

- 양식장 시설 활용 수상 태양광 설치로 에너지자립화 달성
- 수산 부산물(패각 등)을 활용한 바이오가스 발전 및 자원화 시범 사업
- 저온 폐열 활용 에너지 순환 모델 도입으로 어가 운영비 대폭 절감

해조류 기반 '미래 대체식품 및 바이오' 산업 육성

- 해조류, 해양 미생물을 활용한 건강기능식품 및 대체육 연구 지원
- 지역 내 수산물 전문 공공 가공 시설 및 공동 브랜드 플랫폼 구축
- 청년 수산 창업 실습장 운영 및 외국인 숙련 인력 정착 지원 확대

- 예정위치 : 마량항 및 대구면·신전면 해안가 일원
- 사업예산 : 50억 원
- 이행기간 : 2027년~2028년
- 재원조달 : 국비, 도비, 군비, 민자
해양수산부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 조성
해양수산부 수산물 산지거점유통센터 건립
전라남도 전남형 해조류 바이오 지원
전라남도 미래 대체식품 육성 지원
전라남도 친환경 에너지 보급
- 우선순위 : 2순위
- 사업목표 : 해양 데이터 플랫폼 1개 구축
수산물 부가가치 20% 향상
청년 어업인 20명 창업

12) 가치소비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강진읍시장은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선정되었으나, 인구 감소와 소비 트렌드 변화로 인해 방문객과 매출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특히 MZ세대를 중심으로 확산되는 '가치소비'와 친환경 소비 요구를 전통시장이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어, 단순히 물건을 사고파는 공간을 넘어선 매력적인 브랜드 전략이 부재한 상황입니다.

이용의 불편함을 뛰어넘는 전통시장만의 특별한 경험과 가치를 제공하여 고정 고객을 확보하는 혁신적 전환이 시급합니다.

강진읍시장을 전국 제1호 가치소비 선도 시장으로 탈바꿈시키겠습니다. 점포마다 녹색 식물을 가꾸는 '녹색 점포 캠페인'과 쓰레기 없는 제로 웨이스트(Zero-Waste) 점포를 전면 도입하여 시장의 이미지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잇는 푸드그리드 스마트 점포를 통해 안전한 농산물을 신속하게 거래하는 디지털 유통 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가치 있는 소비를 즐기는 젊은 층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활기찬 강진의 심장을 만들겠습니다.

친환경 테마의 그린&제로 웨이스트 시장 조성

- 점포 앞 수직 정원 조성 및 시장 내 공동 녹색 쉼터 구축
- 무포장 판매 진열대 설치 및 장바구니 대여
- 가치소비 점포 대상 '강진 그린 인증마크' 부여

스마트 유통 '푸드그리드 연동형 점포' 도입

- 점포 내 터치 디스플레이 설치를 통한 스마트팜 농산물

직거래 연결

- QR코드를 활용한 생산자 정보 및 잔류 농약 검사 결과 실시간 공개
- 구매와 주문이 동시에 이뤄지는 옴니채널 유통 및 지역 내 배송 서비스

지역 예술가와 협업한 시장 문화 브랜딩

- 시장 내 유희 공간을 청년 팝업스토어 및 로컬 크리에이터 활동지로 활용
- 강진의 이야기가 담긴 특화 굿즈 개발 및 시장 투어 프로그램 운영
- 정기적인 '가치소비 마켓' 축제 개최를 통한 젊은 고객 유입 촉진

▪ 예정위치 : 강진읍 시장 및 병영·성전·마량 시장

▪ 사업예산 : 8억 원 (인프라 및 마케팅 지원)

▪ 이행기간 : 2027년~2027년

▪ 재원조달 : 국비, 도비, 군비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 육성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 ESG 실천

중소벤처기업부 제로웨이스트 캠페인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지역 먹거리 종합전략 패키지

전라남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및 활성화

▪ 우선순위 : 2순위

▪ 사업목표 : MZ세대 방문율 30% 증가

폐기물 제로 점포 20개

시장 매출 10% 증대

13) 공동체를 살리는 순환형 지역화폐 도입

현재 강진군에서 사용되는 지역화폐는 일회성 할인 혜택을 주는 상품권의 기능에 머물러 있어, 공동체 활성화와 선순환 경제 구축이라는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충남 부여군의 '굿뜨래' 사례처럼 가맹점 간의 순환 시스템이 부재하여, 지역 내에서 돈이 여러 번 돌며 가치를 창출하는 효과가 미비한 실정입니다. 또한 시간, 건강, 돌봄 등 눈에 보이지 않는 공익적 가치를 경제적 자산으로 치환할 수 있는 플랫폼이 없어 공동체 의식을 높이는 동력이 부족합니다.

강진의 지역화폐를 단순한 돈을 넘어서 '공동체 에너지가 도는 혈액'으로 진화시키겠습니다. 가맹점끼리 서로 결제할 수 있는 순환 시스템을 강화하고, 돌봄이나 환경보호 활동을 하면 적립되는 기부·활동 화폐 기능을 통합하겠습니다.

이른바 시간화폐와 건강화폐를 지역화폐와 연동하여 주민의 선한 노력이 지역 경제의 자산이 되는 강진형 사회보상 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돈이 없어도 시간과 노력이 대접받는 따뜻한 품앗이 경제를 복원하겠습니다.

가맹점 간 B2B 순환 결제 시스템, '강진 루프' 구축

- 가맹점주가 받은 지역화폐를 다시 지역 내 거래처 결제에 사용하도록 장려
- 순환 결제 참여 점포 대상 수수료 면제 및 세제 지원 인센티브 부여
- 지역 내 원부자재 거래 매칭 플랫폼 연동을 통한 지역 자본 유출 방지

공익활동 보상으로 강진활동 화폐 도입 및 연동

- 마을 돌봄, 쓰레기 줍기 등 자원봉사 시간당 일정액 포인트를 적립해서 지역화폐로 지급
- 어르신들이 건강 걷기 등 건강 증진 활동을 달성했을 때 지역 화폐로 전환 지급
- 적립된 포인트는 강진 내 모든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 가능하도록 설계

지역 화폐 기반 '강진 공동체 펀딩' 플랫폼 운영

- 주민이 지역 사업에 본인의 지역 화폐 포인트를 소액 투자하는 기능
- 청년 창업이나 마을 기업 프로젝트에 주민 참여형 클라우드 펀딩 연계
- 펀딩 성공 시 지역 상품권이나 포인트로 이익을 공유하는 상생 모델

- 예정위치 : 강진군 전역 적용 (모바일 앱 플랫폼 중심)
- 사업예산 : 5억 원 (시스템 고도화 비용)
- 이행기간 : 2027년~2029년
- 재원조달 : 국비, 도비, 군비
 행정안전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행정안전부 디지털 타운 조성 사업
 농림축산식품부 농촌 돌봄서비스 활성화 지원
 전라남도 전남형 사회적 경제 혁신사업
 우선순위 : 1순위
- 사업목표 : 가맹점 간 순환 거래액 50억 달성
 활동 화폐 가입자 5천명
 공동체 지수 향상

14) 지역화폐를 활용한 공사대금 지급

강진군에서 발주하는 수많은 공공 공사가 외지 업체의 낙찰로 인해 예산이 외부로 유출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공사 대금이 지역 내 소상공인의 매출로 이어지지 않는 '경제적 단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금의 일부가 반드시 강진 내에서 소비되도록 하는 강제적인 선순환 장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는 법적 근거(지방계약법, 근로기준법) 마련과 당사자 간의 합의가 수반되어야 하는 복잡한 과제로, 철저한 조례 제정과 사회적 합의 절차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강진군의 공공 발주가 지역 경제의 마중물이 되도록 '공사대금 지역 화폐 지급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전체 공사 금액의 5%~20% 범위를 지역 화폐로 지급하여 지역 내 물품 구매와 서비스 이용을 유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강진군 공공 계약 지역 경제 활성화 조례」를 제정하고, 계약 단계부터 명시적 합의와 근로자 동의를 확보하는 표준 절차를 확립할 예정입니다. 예산이 담 너머로 새나가지 않고 강진 골목 구석구석을 적시는 단단한 독을 쌓겠습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 지원 공공계약 조례 제정

- 공사 대금 일부(최대 20%)의 지역 화폐 지급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지역 업체 우선 낙찰 및 지역 장비·인력 활용 시 가점 부여 기준 명시
- 하도급 업체 및 근로자 권익 보호를 위한 임금 지급 보장 규정 포함

계약 당사자 간 '상생 협약' 및 표준 계약서 보급

- 입찰 공고 시 지역 화폐 지급 조건을 명확히 고지하여 자발적 합의 유도
- 근로자의 동의 절차를 포함한 표준 근로 계약서 및 지침 제작 배포
- 지역 화폐 지급에 따른 업체의 번거로움을 덜어주는 간편 정산 시스템 지원

공사 현장 주변 상권과 연계한 '현장 포인트' 운영

- 공사 현장 인근 식당, 숙박업소 등을 지역 화폐 전용 사용처로 매칭
- 공사업체 대상 지역 내 구매 영수증 제출 시 인센티브 제공 등 환류 관리
- 지역 내 소비 실적을 데이터화하여 차기 발주 시 우대 가점 반영 체계 구축

- 예정위치 : 강진군 전역 적용 (공공 발주 공사 현장)
- 사업예산 : 비예산 (제도 및 조례 정비 중심)
- 이행기간 : 2027년~2030년 (조례 제정 및 시범 도입)
- 자원조달 : 비예산사업
- 우선순위 : 2순위
- 사업목표 : 군비지역 화폐 환류액 연 30억 달성
지역업체 낙찰률 10% 향상
상권 매출 기여도 증대

다. 문화관광·스포츠

1) 찍으면 엽서가 되는 강진 조성

강진군은 수려한 자연경관을 보유하고 있으나, 방치된 지하수 장옥과 빈집, 폐컨테이너 등 3대 경관을 저해하는 시설이 관광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2025년 12월 기준 강진군 주택의 45.2%가 1979년 이전에 건축된 노후 주택으로 전남 평균을 크게 상회하며, 마을 곳곳에 방치된 폐컨테이너는 범죄 위협과 환경 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들은 주요 도로변과 마을의 첫인상을 훼손하여 '남도 답사 1번지'라는 명성을 위협하는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어 체계적인 정비가 시급합니다.

강진의 농어촌 풍경을 집중 정비하여 '사진만 찍어도 엽서가 되는 관광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3대 경관 저해 요소를 GIS 기반으로 DB화하여 마을 단위 실태 지도를 제작하고, 주민과 함께 우선 정비 대상을 선정합니다.

노후 장옥은 지역 작가와 협업한 외벽 그래픽을 적용하고, 빈집은 농림부의 농촌공간 정비 사업비를 활용해 청년 주거나 마을 커뮤니티 센터로 전환하겠습니다. 경관 개선이 곧 관광 소득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확립할 예정입니다.

GIS 기반 강진군 경관 실태 DB 및 지도 제작

- 빈집, 폐컨테이너, 노후장옥 전수조사 및 위치정보 시각화
- 정비 시급성에 따른 등급분류 및 단계별 정비로드맵 수립
- 주민이 스마트폰으로 경관 저해 요소 신고 시스템 운영

방치 장옥 및 컨테이너 '아트 프로젝트' 전개

- 지역예술가와 주민이 참여하는 외벽벽화타일아트 시공
- 방치 컨테이너 대상 '정비·철거 행정명령제' 도입 및 지원
- 수거된 컨테이너를 청년 창작실이나 농산물 직거래 부스로 리모델링

노후 빈집 '수요 맞춤형 공간 비즈니스' 전환

- LH 빈집 정비 사업 연계 마을 호텔 및 감성 스테이 조성
- 방치된 가옥을 청년 및 귀농인 임대 주택으로 제공
- 마을 커뮤니티 공간과 결합한 '우리 마을 갤러리' 설치

- 예정위치 : 강진군 전 지역
(주요 진입도로 및 농촌 마을 일원)
- 사업예산 : 40억 원
- 이행기간 : 2027년~2029년
- 재원조달 : 국비, 도비, 군비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공간정비사업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주택개량사업
문화체육관광부 공공디자인으로 공간만들기
전라남도 전남형 마을공동체 정원 조성
- 우선순위 : 1순위
- 사업목표 : 경관 저해 시설 300개 정비
마을 경관 지도 11개 제작
관광객 만족도 90% 달성

2) 세계적으로 유명한 공동체 축제 개발

강진군은 매년 다양한 축제를 개최하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나, 전국적 인지도를 갖춘 브랜드 축제가 부족하고 주민들의 소득 연계도 미비한 실정입니다.

2023년 결산 기준 문화 및 관광 분야 예산은 833억 원에 달하지만, 대규모 기획사 주도의 행사는 축제가 끝난 뒤 쓰레기만 남기고 주민들은 단순 동원의 대상으로 전락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관광객의 체류 시간이 짧아 실제 상권 매출 기여도가 낮다는 점은 강진 축제 행정의 가장 큰 약점으로 지적됩니다.

외부 기획사에 의존하던 축제를 군민이 주도하는 '커뮤니티 축제'로 대전환하겠습니다. 강진의 청년들이 직접 축제를 기획하고, 주민들이 무대의 주인공이 되는 '축제 민주주의'를 실현하겠습니다.

축제 현장을 프리미엄 농특산물 구독과 청년 창업의 테스트베드로 활용하여 실질적인 지역 매출을 창출하겠습니다. 다산의 실용 정신과 풍류를 잇는 고품격 인문학 축제를 브랜딩하여, 전 세계인이 강진의 일상을 보러 오게 만드는 '축제 도시 강진'을 완성할 예정입니다.

외부 기획사 탈피 '강진 청년 축제 기획단' 육성

- 지역 청년 인재 대상 축제 기획 전문 교육 및 실무 프로젝트 지원
- 주민자치위원회 중심의 마을별 '작은 축제' 기획 및 공모
- 비싼 외부연예인 섭외 대신 강진예술인 및 주민 공연단 중심으로 무대를 구성하는 원칙 도입

장터와 브랜드가 결합한 '경제 활성화 축제' 모델 도입

- 축제 현장 내 강진 특산물 구독 전용 부스 및 '강진 박스'

체험관 운영

- 청년 창업가 대상 축제장 팝업스토어 입점 지원 및 시장 반응 조사
- 축제 방문객 대상 지역 식당·숙박업소 연계 할인 패키지 상품 개발

다산의 지혜를 잇는 '강진 인문학 축제' 브랜딩

- 다산의 '여민동락' 가치를 담은 시민교육 결과물(연극, 전시) 상설화
- 강진의 사계절 풍경을 활용한 사색과 치유 테마의 소규모 분산 축제
- 해외 인플루언서 초청 강진 공동체 문화 체험 '강진 글로벌 위크' 개최

- 예정위치 : 강진읍 오감통, 강진만 생태공원 등 축제 거점
- 사업예산 : 30억 원 (연간 축제 예산 재구조화)
- 이행기간 : 2027년~2031년 (시범 사업 후 전면 시행)
- 재원조달 : 국비, 도비, 군비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관광축제 지원사업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공연 통합패키지
문화체육관광부 인문학 관광 자원화
전라남도 전라남도 대표축제 육성 지원
우선순위 : 2순위
- 사업목표 : 군민 기획 축제 비율 50% 달성
축제장 지역화폐 사용액 20% 증대
재방문율 40%

3) 강진만 생태 치유벨트 조성

강진만은 갈대숲과 갯벌 등 천혜의 생태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현재의 관광은 단순 관람에 그쳐 지역 경제와의 연계성이 낮습니다.

우리 군 면적의 21.8%가 자연환경보전지역인 만큼 개발이 제한적이지만, 이를 거꾸로 활용한 생태 관광의 잠재력은 매우 높습니다.

한편, 강진을 찾는 관광객들이 "볼거리는 많으나 즐길 거리와 숙소가 부족하다"는 불만을 제기하고 있어, 단순 방문을 넘어선 '체류형 생태 관광 거점' 구축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자원을 인위적으로 개발하기보다 가치를 극대화하는 '생태 치유 벨트'를 조성하겠습니다. 탐진강과 강진만이 만나는 기수역의 생태 원형을 복원하고 저영향 탐방로를 조성하여 전 세계인이 찾는 생태 관광지로 키우겠습니다.

강진만 낙조를 즐길 수 있는 고품격 친환경 숙소와 야영장을 마련하여 체류 관광을 유도하겠습니다. 다산의 사색철학을 프로그램에 녹여 지식과 감동이 있는 인문·생태 관광 브랜드를 완성하여 군민의 '생태 주권'을 확립하겠습니다.

갯벌 자정 능력 회복 및 생태적 원형 복원 사업

- 오염원 차단을 위한 하수관로 정비 및 주민 주도 갯벌 생태 모니터링 강화
- 인공 구조물 최소화 '친환경 저영향 탐방로(Bypass)' 조성
- 강진만 고유 생물 종 복원 및 탐진강 습지 보전 지구 연계 강화

강진만 낙조 중심 '체류형 감성 스테이' 구축

- 인근 마을 노후 가옥 리모델링을 통한 '갯벌 뷰' 감성 숙소 조성 지원
- 탄소 발생 최소화 친환경 글램핑장 및 무장애야영장 설치
- 숙박객 대상 강진 식재료 활용 조식 바구니(Catering) 제공 시스템 도입

주민 가이드와 함께하는 강진만 생태 트레일 운영

- 지역 주민을 생태 해설사 및 복원 요원으로 양성하여 일자리 창출 지원
- 갯벌 소리 듣기, 씨앗 심기 등 오감 체험형 생태 교육 프로그램 개발
- 다산의 자연관을 따라 걷는 '인문 사색 길' 연계 및 안내 시스템 구축

- 예정위치 : 강진만 생태공원 및 남포·칠량 해안 일원
- 사업예산 : 150억 원
- 이행기간 : 2027년~2032년 (중장기 사업)
- 재원조달 : 국비, 도비, 군비
환경부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환경부 국가 생태탐방로 조성
문화체육관광부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사업
문화체육관광부 지역특화관광콘텐츠 개발 지원
전라남도 전남형 생태관광 거점마을 육성
- 우선순위 : 1순위
- 사업목표 : 연간 방문객 100만 명 달성
체류형 숙소 100실 확보
생태 일자리 50개 창출

4) 질환별 치유농업 프로그램 개발

최근 농업의 공익적 가치가 주목받으며 '치유농업'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으나, 현재 강진의 체험 농장은 단순 관람 위주로 운영되어 의학적·정서적 치유 효과를 보장하는 전문 프로그램이 부족합니다.

네덜란드 등 선진국은 치매 어르신 등을 위해 치유농장을 복지 시스템과 결합하고 있어, 강진도 친환경 농업 기반을 활용한 과학적 치유 모델 도입이 필요합니다.

농업을 보건의료와 연계하여 세대별·질환별 강진형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개발하겠습니다. 치매, 우울증, 당뇨 등 특정 질환에 최적화된 원예 및 동물 교감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대학과 연계해 의학적 효능을 입증하겠습니다.

강진군 치유농업센터를 건립하여 농장 인증과 치유농업사 양성을 지원하고, 소외 계층을 위한 치유농업 바우처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농업이 생업을 넘어 군민의 건강을 지키는 '사회적 백신'이자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도약하게 될 것입니다.

강진군 치유농업 센터 건립 및 거점 기능 강화

- 치유 정원, 원예 감각치유존, 동물교감 실습실 등 기반 시설 구축 지원
- 치유농업사 양성 및 인증 농가 품질 관리 전담 인력 배치
- 의료기관과 연계하여 환자별 맞춤 치유 처방 시스템 구축

질환 특화형 치유농업 모델 개발 및 데이터 검증

- 치매 예방(인지 기능), 우울증 완화(정서 안도) 등 질환별 특화 설계
- 농작물 수확과 연계한 '당뇨 조절 영양 요리' 등 융합 프로그램 운영

- 참여 전후 건강 지표 변화 데이터를 수집하여 의학적 실험 효성 증명

강진형 '치유농업 서비스 바우처' 제도 시행

- 장애인, 홀몸 어르신 등 취약계층 대상 연간 치유 농장 무료 이용권 지급
- 평생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치유 농업 대중화 추진
- 치유 농장 생산물 로컬푸드 브랜드화 및 유통 판로 지원

- 예정위치 : 강진군 농업기술센터, 인증 농가 20개
- 사업예산 : 30억 원
- 이행기간 : 2027년~2030년
- 재원조달 : 국비, 도비, 군비
 농촌진흥청 치유농업센터 구축 및 운영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농촌 돌봄서비스 활성화 지원
 보건복지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전라남도 전남형 치유농장 육성 지원
- 우선순위 : 2순위
- 사업목표 : 질환별 프로그램 10종 개발
 치유 농가 20개 육성
 바우처 수혜자 1,000명 지원

5) 문화예술 치유마을 운영

강진군은 다산과 청자, 영랑생가 등 전국적인 문화 예술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나, 이를 군민의 정신건강 회복과 연결하는 정책은 미비합니다. 2023년 말 기준 강진군의 공공도서관은 1개이며, 문화유산 보존 비율은 높지만 주민들이 일상에서 창작 활동을 즐길 수 있는 거점 공간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학교폭력이나 사회적 고립 등 심리적 상처를 입은 주민들을 위한 전문적인 치유 콘텐츠 개발은 지방 소멸을 막고 정주 만족도를 높이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강진을 대한민국 대표 '문화예술 치유 도시'로 선포하고, 예술을 매개로 마음을 돌보는 치유 마을을 운영하겠습니다. 문체부 산하 기관과 협업하여 부적응 청소년, 치매 위험 어르신, 1인 가구를 위한 '문학·미술·음악·무용' 융합 치유 프로그램을 전개하겠습니다.

마을 유희 공간을 리모델링하여 창작 공방과 예술 치유 산책길을 조성하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누구나 쉽게 참여하게 하겠습니다. 군민의 정서적 주권을 지키고 관광객에게는 품격 있는 치유 경험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마을 유희 시설 리모델링 및 예술 치유허브 조성

- 기존 경로당이나 빈집을 리폼하여 '독서 치유 도서관' 및 '명상실' 운영
- 마을 골목길을 활용한 예술 치유 테마 산책로 및 벽면 갤러리 설치
- 은퇴 예술인을 치유 멘토로 초빙, 주민 밀착형 창작 지도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술 치유 프로그램 상설 운영

- 청소년 정서 안정을 위한 '영랑 시 쓰기 및 낭송' 심리 치

유 클래스 지원

- 어르신 소근육 강화와 치매 예방을 위한 '청자 빗기' 손맛 치유 교실 운영
- 다문화 가정을 위한 '고유 무용 및 음악' 융합 공동체 회복 활동 지원

디지털 기반 '강진 예술 치유 플랫폼' 구축

- 비대면 치유 활동이 가능한 온라인 콘텐츠 개발 및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 제공
- 치유 기록을 데이터화하여 맞춤형 전문가 상담 매칭 지원
- 활동 결과물을 지역 축제와 연계한 전시·공연 기회 확대

- 예정위치 : 강진읍 시문학파기념관 인근 마을 및 읍·면 유희 공간
- 사업예산 : 20억 원
- 이행기간 : 2027년~2029년
- 재원조달 : 국비, 도비, 군비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공간정비사업
전라남도 전남형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
- 우선순위 : 2순위
- 사업목표 : 치유 마을 2개 지정
전문 치유사 30명 양성
주민 참여 만족도 95% 달성

6) 다산 생활교육 프로그램 운영

다산 정약용 선생의 유배지인 강진은 실학의 산실이지만, 현재의 교육은 다산을 박물관 속 인물로만 박제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강진의 초등학생 수는 900여 명, 중학생은 700 여명으로 지속 감소하고 있으며, 아이들이 지역에 대한 자긍심을 잃고 도시로 떠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식 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다산의 실용 정신과 공렴(公廉) 가치를 아이들의 일상에 이식하여, 강진의 미래를 책임질 건강한 시민 의식을 가진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산 정신이 책장을 넘어 우리 아이들의 살아있는 시민성으로 피어나도록 다산 생활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산의 실학을 계승하여 지역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보는 현대판 소학 프로젝트를 정규 교육과 연계하겠습니다.

청소년들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고 예산 심의를 체험하는 청소년 시민 의회를 상설화하여 주권자로서의 감각을 길러주겠습니다. 세대를 잇는 '다산 멘토링'을 통해 어르신들의 지혜가 아이들의 꿈으로 이어지는 가장 따뜻한 교육 공동체 강진을 만들겠습니다.

다산의 실용정신을 잇는 현대판 소학(小學) 프로젝트

- 우리 마을 문제 발견 및 해결 대안 설계형 현장 프로젝트 수업 운영
- 결과물을 실제 군정에 제안하고 우수 제안에 대한 소액 펀드 지원
- 학교-지역사회-다산박물관이 연계한 지역학(강진학) 필수 이수제 도입

공립가치 실현을 위한 강진 청소년 시민의회 상설화

- 청소년 의원들이 직접 아동·청소년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 및 심의
- 행정 집행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모니터링하는 '주니어 감사관' 활동
- 주요 정책에 대한 청소년 청문회 및 제안 보고회 개최

우리 동네 역사를 기록하는 '디지털 역사학자' 육성

- 마을 어르신들의 삶을 인터뷰하고 구술사를 기록하는 영상 제작 활동
- 지역 유적지에 대한 청소년 도슨트(해설사) 전문 교육 및 봉사 매칭
- 강진의 문화유산을 모티브로 한 굿즈 및 콘텐츠 창작 경진대회 지원

- 예정위치 : 다산박물관 및 강진군 관내 각급 학교 마을 교육 거점
- 사업예산 : 10억 원
- 이행기간 : 2027년~2030년 (상설 운영)
- 재원조달 : 국비, 도비, 군비
국가유산청 우리 고장 국가유산 활용 사업
국가유산청 국가유산 교육 강화 주간
전라남도 남도 역사·문화 인물 선양 교육
- 우선순위 : 2순위
- 사업목표 : 참여 학생 정체성 지수 30% 향상
프로젝트 이수율 90%
멘토-멘티 100쌍 결연

7) 주민창작과 문화 브랜드 육성

강진군은 고려청자 요지와 다산 유적지 등 세계적인 문화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자원 간 연계가 부족하고 주민 참여가 관람에 머물러 있습니다.

현재 고려청자 요지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가 추진 중(3단계 완료)이나,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청자 문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소득과 연결하는 창작 활동은 미진한 상태입니다.

문화재 지정 건수는 많지만 산발적인 관리에 그쳐 관광객의 체류 시간이 짧고 강진만의 선명한 문화 브랜드 이미지를 남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진 고려청자 요지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반드시 완수하고, 주민을 문화 창작자로 높이는 '문화 주권 시대'를 열겠습니다. 청자-다산-시문학-병영성을 잇는 '문화 로드'와 음악창작소-오감통-청자촌을 묶는 '문화 벨트'를 연결하여 관광 코스를 완성하겠습니다.

빈집이나 폐컨테이너를 주민들이 자유롭게 활동하는 주민창작실과 로컬 호스텔로 전환하여 집 근처에서 창작을 즐기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주민의 창의력이 강진의 가장 강력한 문화 브랜드가 될 것입니다.

고려청자 요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지원

- 학술 연구 고도화 및 보존·관리 시스템의 글로벌 스탠다드화 추진
- 고려청자박물관 내 디지털 실감 콘텐츠 도입 및 전시 공간 혁신
- 유네스코 등재 기원 주민 서명 운동 및 글로벌 홍보 앰버서더 운영

자원과 이야기를 연결하는 강진 문화벨트

- 청자-다산-영랑-병영성을 돌면서 운행하는 '강진 문화 순환 버스' 운영
- 걸어서 만나는 문화 로드 가이드북 제작 및 AR(증강현실) 안내판 설치 확대
- 각 유적지별 테마가 있는 로컬 굿즈 공동 개발 및 상점 입점 지원 확대

마을 속 작은 문화 터전 주민창작센터 보급

- 폐교 및 빈집 리모델링을 통한 11개 읍·면별 '생활 창작실' 운영프로그램 지원
- 도예, 서예, 공예 등 장인들의 기술을 전수하는 '마을 예술 학교' 개설
- 주민 창작물 전문 갤러리 카페 및 아트 마켓 '강진 프리마켓' 상설화

- 예정위치 : 고려청자박물관, 강진읍 구도심(오감통 등) 읍·면 창작 거점
- 사업예산 : 50억 원 (세계유산 등재 지원 포함)
- 이행기간 : 2028년~2030년
- 재원조달 : 국비, 도비, 군비
국가유산청 세계유산 등재 추진 지원
국가유산청 국가유산 활용 사업
전라남도 전남형 지역성장 전략사업
- 우선순위 : 2순위
- 사업목표 : 세계유산 등재 우선 목록 선정
주민창작 거점 11개 조성
문화 관광객 20% 증가

8) 세대통합 스포츠 플랫폼 구축

생활체육은 군민의 건강을 지키는 생존 복지이지만, 현재 강진군의 체육시설은 세대별로 파편화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인구가 12,444명에 달하는 초고령 사회임에도 불구하고 어르신 전용 게이트볼장과 젊은 층 위주의 시설이 분리되어 있어 세대 간 교류와 사회적 결속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에 공공체육시설 68개가 운영 중이나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체계적인 체력 관리 시스템이 부재하여 주민 체감 만족도가 높지 않은 실정입니다.

체육시설을 선수들만의 공간이 아닌 '전 세대가 어우러지는 통합 플랫폼'으로 전면 개편하겠습니다. 할아버지는 파크골프를, 아이들은 모험 놀이터를 즐기며 서로 응원하는 '세대통합 레저 허브'를 구축하겠습니다.

'강진 365' 시스템과 연동한 스마트 체력 관리 서비스를 도입하여 맞춤형 운동 처방을 내리고 성실 참여자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마을의 유휴 시설을 활용한 10분 실내체육관을 보급하여, 운동이 일상이 되고 공동체가 다시 살아나는 강진을 만들 예정입니다.

공간 공유 기반 '강진 세대통합 레저 허브' 건립

- 유아 놀이존, 청년 피트니스, 시니어 재활 시설이 결합된 복합 건축
- 세대 간 함께 즐기는 '멀티 스포츠 코트' 설치 및 공유 락커룸 운영
- 어르신과 손주가 함께 참여하는 '세대 공감 운동회' 매 분기 개최

'강진 365' 연동 AI 맞춤형 체력 관리 시스템

- 기초 체력 측정 데이터 기반의 개인별 '디지털 운동 처방

전' 발행

- 운동 목표 달성 시 지역 화폐로 환급해 주는 '건강 보상제' 도입
- 보건소 방문 간호 서비스와 체육 시설 이용 데이터를 결합한 밀착 관리

마을 밀착형 우리 동네 10분 실내체육관 보급

- 방치된 농협 창고나 마을 창고를 리모델링하여 전천후 소규모 체육관 전환
- 어르신 보행 훈련 시설 및 청소년 야간 스포츠용 조명 인프라 확충
- 마을 주민들이 운영하고 관리하는 '주민 체육 관리단' 구성 및 운영 예산 지원

- 예정위치 : 강진군 종합운동장 부근 및 11개 읍·면별 거점
- 사업예산 : 100억 원
- 이행기간 : 2027년~2028년
- 재원조달 : 국비, 도비, 군비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센터 건립
문화체육관광부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력100, 체력인증센터
전라남도 전남형 스포츠 클럽 육성 및 지원
- 우선순위 : 1순위
- 사업목표 : 통합스포츠센터 건립
스마트 체력 가입자 5,000명 확보
의료비 절감액 연 10억 원 달성

9) 스포츠를 통한 체류형 관광 유치

강진군은 사계절 온화한 기후와 풍부한 스포츠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으나, 관광객들이 머물지 않고 떠나는 '스쳐 지나가는 관광'으로 인해 상권 매출이 정체되어 있습니다.

반면 스포츠 전지훈련이나 전국 대회는 체류 기간이 최소 5일에서 15일로 일반 축제보다 경제 파급 효과가 훨씬 큼니다. 현재 전남 내에서도 스포츠 마케팅 경쟁이 치열하지만, 강진만의 차별화된 숙박 패키지와 지역 밀착형 혜택이 부족하여 고정적인 선수단 유입을 위한 획기적인 전략 전환이 요구됩니다.

스포츠 인프라를 외부로 개방하여 강진의 지갑을 채우는 유능한 경제 엔진으로 가동하겠습니다. 강진을 사계절 전지훈련의 메카로 재건하고, 선수단에게 지역 식당·상점 혜택을 주는 '스포츠 멤버십'을 도입하여 골목 경제에 온기를 불어넣겠습니다.

빈집을 고품격 숙소로 리모델링한 '강진 스테이'를 선수단과 관광객에게 제공하여 하룻밤의 가치를 높이겠습니다. 스포츠와 축제, 장터를 결합한 '체류 캘린더'를 운영하여 365일 사람이 붐비는 활력 넘치는 강진을 만들 예정입니다.

전국 1번지 위상 회복을 위한 스포츠 유치 전략 추진

- 최신식 실내 연습장 및 선수 전용 재활 센터 등 인프라 고도화
- 종목별 전국 단위 대회 및 리그전 적극 유치를 위한 전담 팀 운영
- 참여 선수단 대상 '강진 스포츠 멤버십' 발급 및 지역 화폐 연계 인센티브

스포츠 특화 강진 스테이, 숙박 인프라 확충

- 선수단 장기 투숙에 적합한 대규모 숙소 리모델링 및 단지화 지원
- 청년 예술가와 협업한 감성 스테이 운영으로 선수 가족 유입 유도
- 지역 민박업소 대상 메뉴 개발 및 서비스 교육 지원을 통한 품질 향상

스포츠-관광-상권 연계, '강진 체류 캘린더' 운영

- 비수기 훈련 기간 중 주민들이 여는 '작은 장터'와 '팝업 공연' 배치
- 대회 기간 중 선수단 가족 대상 강진 문화 유산 투어 패키지 제공
- 훈련 일정을 데이터화하여 지역 상권이 물량을 사전 준비하는 정보 공유

- 예정위치 : 강진군 스포츠타운 일원
- 사업예산 : 30억 원 (인프라 개선 및 유치 마케팅)
- 이행기간 : 2027년~2029년
- 재원조달 : 국비, 도비, 군비
문화체육관광부 지방소득 기반 전지훈련 유치
문화체육관광부 전지훈련 특화시설 설치 지원
행정안전부 고향올래사업
전라남도 전지훈련 유치 시군 인센티브
- 우선순위 : 2순위
- 사업목표 : 전지훈련 유치 인원 연 5만 명
평균 체류 기간 7일 이상
상권 매출 증대율 15% 달성

10) 파크골프장의 세대공감형 체육시설 전환

파크골프는 고령화 사회에서 가장 주목받는 생활체육이나, 강진의 파크골프장은 현재 9홀 규모로 전남 내 최하위권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용률은 폭증하고 신규 회원도 급증하고 있지만, 시설 한계로 인해 도 단위 대회를 개최하지 못하는 등 스포츠 마케팅 효과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파크골프가 "어르신들만의 운동"이라는 인식이 강해, 세대 간 소통 창구로서의 잠재력을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어 획기적인 공간 혁신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파크골프장을 단순한 경기장을 넘어 전 세대가 함께하는 세대 공감형 복합시설로 확충하겠습니다. 홀 규모를 대폭 확대하여 전국 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유소년 퍼팅 교육장과 타깃 연습장을 함께 조성하여 전 세대 유입을 유도하겠습니다.

스마트 센서와 자동점수 시스템 등 IT 기술을 적극 접목하여 파크골프를 '관광형 스포츠'로 발전시키겠습니다. 손주와 할아버지가 팀을 이루는 세대 리그전 운영을 통해, 파크골프가 강진군의 공동체를 잇는 튼튼한 다리가 될 것입니다.

전국 대회 개최 규격의 '강진 파크골프 메카' 조성

- 현 9홀에서 36홀 이상으로 규모 확대 및 천연 잔디 품질 관리 강화
- 대규모 방문객 수용을 위한 클럽하우스, 주차장, 편의시설 대폭 확충
- 야간 경기가 가능한 친환경 LED 조명 설치로 이용 시간대 다각화

아이부터 어른까지 즐기는 '세대 통합형 공간' 설계

- 어린이·청소년 전용 연습용 미니홀 및 퍼팅체험존 조성
- 파크골프와 캠핑, 로컬 푸드 체험이 결합된 '스포츠 파크'화 강력 추진
- 세대 혼합 복식 경기 등 세대 교류 활성화를 위한 정기 이벤트 개최 지원

IT 기반 스마트 파크골프 및 마케팅 전략 도입

- 모바일 앱 기반 실시간 예약, 점수 자동 집계 및 랭킹 시스템 운영
- 전국 파크골프 동호인 대상 '강진 투어 패키지(숙박+식사+라운딩)' 개발
- 스포츠 인플루언서 연계 홍보 및 강진 파크골프 브랜드 굿즈 제작

- 예정위치 : 강진읍 보은산 일원 및 군동면 수변 공간
(부지 확보)
- 사업예산 : 50억 원
- 이행기간 : 2027년~2029년
- 재원조달 : 국비, 도비, 군비
문화체육관광부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전라남도 체육시설 지원사업_파크골프장 조성
- 우선순위 : 1순위
- 사업목표 : 36홀 규모 파크골프장 조성
연간 이용객 10만 명
전국 대회 연중 2회 유치

11)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강진군은 농어촌 지역 중에서도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많으나, 이들을 위한 공공 여가 공간과 산업 기반은 거의 전무한 상태입니다. 반려동물은 고령층과 홀몸 어르신들의 정서 안정 및 건강 증진에 큰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많으나, 정작 강진에는 이를 전문적으로 지원할 '동물 교감 치유' 시스템이 부재합니다.

반려 인구 1,500만 시대에 맞춰 반려동물 동반 관광객 유입을 위한 특화 시설이 조성된다면 강진은 새로운 관광 활력을 찾을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강진형 반려동물 테마파크'를 조성하겠습니다. 놀이터, 수영장, 야영장은 물론이고 어르신과 아이들의 마음을 돌보는 '동물교감치유센터'를 핵심 시설로 구축하겠습니다.

치유센터를 통해 고령층 인지력 저하 예방과 청소년 정서 교육 프로그램을 보급하여 강진을 치유 도시로 브랜딩하겠습니다. 테마파크를 거점으로 반려동물 간식 개발 등 관련 창업을 지원하여, 새로운 일자리와 소득을 만드는 미래 산업 생태계를 완성할 예정입니다.

반려동물 가족 전용 종합여가 및 숙박 공간 구축

- 대형견·소형견 분리 운동장, 어질리티 공간, 반려동물 전용 수영장 설치
- 반려동물 동반 가능 '벳 캠핑장' 및 가족 쉼터와 전용 카페 조성 지원
- 24시간 응급 진료 연계 및 반려동물 호텔링 서비스 운영

사회적 약자를 위한 강진 동물교감치유센터 운영

- 홀몸 어르신 대상 유기견 매칭 및 교감을 통한 정서 지원

- 발달 장애 아동 및 청소년 대상 동물을 활용한 심리 치료 클래스 운영
- 치유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 과정 개설 및 노인 일자리 창출 연계

반려동물 친화, '강진 펫-산업 생태계' 육성

- 강진 친환경 농산물을 활용한 '강진 표 애견 수제 간식' 개발 및 창업 지원
- 반려동물 동반 가능 식당·숙박업소 '펫-프렌들리 (Pet-Friendly)' 인증제 실시
- 전국 규모의 '반려가족 힐링 페스티벌' 정례화를 통한 지역 브랜드 강화

▪ 예정위치 : 강진군 작천면 또는 성전면 일원 유희지

▪ 사업예산 : 45억 원

▪ 이행기간 : 2028년~2030년 (공모 및 착공)

▪ 재원조달 : 국비, 도비, 군비

농림축산식품부 반려동물 서비스산업 육성

농림축산식품부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

문화체육관광부 반려동물 동반 여행 거점도시

전라남도 반려동물 공원 조성 지원

▪ 우선순위 : 3순위

▪ 사업목표 : 반려동물 테마파크 1개 조성

치유 프로그램 연 50회 운영

반려동물 동반 관광객 연 3만 명 유치

라. 도시·교통

1) 주거·창업·보조금 패키지 지급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 수많은 ‘귀농·귀촌 지원금’을 투입했으나, 일회성 보조금만으로는 한 사람의 인생 경로를 바꾸기에 역부족이라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2025년 12월 말 강진군 인구가 31,799명으로 감소한 상황에서, 단순히 몇백만 원의 장려금은 무모한 도박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특히 7세에서 18세 사이의 학령기 인구가 교육 문제로 도시로 떠나는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단순한 금전 지원을 넘어 정주 여건 전반을 아우르는 획기적인 지원책이 필요합니다.

삶의 터전을 옮기는 모험이 ‘안전한 선택’이 되도록 주거, 창업, 교육, 보조금을 하나로 묶은 ‘강진형 리턴 패키지’를 지급하겠습니다. 집 한 칸, 아이 돌봄, 초기 자금, 그리고 현장에서 도와줄 전문가 멘토까지 패키지로 구성하여 귀향의 문턱을 획기적으로 낮출 예정입니다.

특히 전남 화순군을 시작으로 전주나 우산 등 전국으로 확산되는 모델을 벤치마킹한 ‘월세 1만 원 주택’ 공급과 전국 최고 수준의 청소년 수당을 연계하여, 강진을 대한민국에서 가장 아이 키우기 좋고 도전하기 쉬운 ‘리턴 시티’의 표본으로 만들겠습니다.

강진형 월세 1만 원 청년·귀농인 주택 공급

- 빈집 및 노후 공공시설 리모델링을 통한 안심주거 확보
- 최장 5년 이상 장기 거주 보장으로 지역 안착 기간 제공
- 주거환경개선과 연계한 스마트가전 및 에너지 설비 지원

창업 및 정착을 위한 '강진 시드머니' 패키지

- 일회성 장려금이 아닌 단계별 창업 성공 보수 및 정착 수당 지급
- 지역 특화 산업 창업 시 설비 투자비 및 홍보 마케팅비 집중 지원
- 햇빛연금 등 지역소득 모델과 연계한 가계안정 자금 지원

강진 청소년 수당 및 맞춤형 교육 환경 구축

- 7세~18세 대상 연령별 생활·문화·체육 지원금 차등 지급
 - 체육·문화·학습시설 무료 이용권 및 셔틀 버스 제공
 - 1인 1스포츠 및 1문화예술 활동비 지원
-
- 예정위치 : 남성리, 호계리 일원
(귀농·귀촌 희망 지역 및 읍·면 중심지)
 - 사업예산 : 60억 원 (연간 분할 집행)
 - 이행기간 : 2027년~2030년 (지속 추진)
 - 재원조달 : 국비, 도비, 군비
국토교통부 지역수요 맞춤 지원
행정안전부 지방소멸대응기금
행정안전부 청년마을 조성
전라남도 전남형 만원주택
 - 우선순위 : 1순위
 - 사업목표 : 귀향 가구 연간 100호 유치
정착 성공률 90% 달성
청소년 수당 수혜자 100% 확대

2) 지역맞춤형 주거재생 모델 개발

2024년 기준 강진군의 주택 중 1979년 이전에 건축된 노후 주택 비중은 45.2%로, 주민들의 정주 여건이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특히 읍·면 중심지의 노후 주택과 장기간 방치된 빈집은 안전사고 위험은 물론 범죄의 온상이 될 우려가 있으며, 이는 강진의 아름다운 경관을 해치는 핵심 장애물입니다.

현재 강진의 주거 정책은 단순철거 위주로 진행되어 마을 고유의 정취를 잃고 있으며, 청년 및 귀농인이 정착하고 싶은 매력적인 주거 모델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회색빛 노후 마을을 삶과 관광이 공존하는 감성 주거지로 재생하겠습니다. LH 및 농림부의 농촌공간 정비 사업비를 적극 확보하여 단순 철거가 아닌 리모델링 중심의 ‘마을 호텔’ 및 ‘테마형 스테이’를 조성하겠습니다.

읍·면 중심지에 옥상 녹화와 벽면 녹화를 도입하여 열섬 현상을 해결하고, 자투리 공간에 작은 정원을 만들어 걷는 것 자체가 여행이 되는 보행자 친화 도시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군민의 삶의 질을 높임과 동시에 생활 공간 자체가 강력한 관광 자원이 되는 ‘그린시티 강진’을 실현하겠습니다.

강진형 ‘마을 호텔 및 감성 스테이’ 리뉴얼 지원

- 방치된 노후 가옥을 LH와 협업하여 청년·유학생 전용 주거로 전환
- 개인 소유 노후 주택 리모델링 시 비용 보조 및 디자인 컨설팅 제공
- 지역 청년 크리에이터와 연계한 ‘예술 스테이’ 브랜드화 및 위탁 운영

열섬 저감을 위한 생활권 녹색 지붕&벽면 녹화

- 전통시장, 상가, 공공기관 옥상에 고반사 도료 도포
- 공공건물 외벽 ‘그린 커튼(덩굴식물)’ 설치 지원
- 미세먼지 저감과 냉방비 절감을 동시에 잡는 친환경 건축 가이드라인 배포

골목길 자투리 공간 활용, 마을 속 작은 정원 조성

- 골목 어귀, 교차로 모서리 등에 화초와 벤치를 결합 쉽터
 - 고령자 이용 많은 곳에 집중적인 그늘막 및 안전바 설치
 - 주민이 직접 가꾸는 ‘우리 동네 정원사’제도 운영 지원
-
- 예정위치 : 강진읍 구도심, 병영면 성곽 주변
각 면 단위 노후 주거 밀집지
 - 사업예산 : 120억 원 (국비 사업 공모 중심)
 - 이행기간 : 2027년~2030년 (중장기)
 - 재원조달 : 국비, 도비, 군비
국토교통부 노후주거지 정비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공간정비사업
행정안전부 빈집 정비 지원
지방시대위원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전라남도 농촌주택개량사업
 - 우선순위 : 2순위
 - 사업목표 : 노후 주택 50동 리모델링
마을 정원 11개 조성
정주 만족도 90% 이상 달성

3) 리턴랩 운영을 통한 정착 지원

강진으로 돌아오거나 새로 정착하려는 청년들에게 가장 큰 장벽은 정착에 필요한 정보와 교육, 그리고 네트워크의 부재입니다. 현재 농업기술센터 등에서 산발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주거, 직업, 창업, 보육 문제를 한 곳에서 상담하고 해결해 주는 통합 창구는 부족합니다.

특히 초기 정착 단계에서 겪는 정서적 고립감과 시행착오 비용은 청년들이 다시 강진을 떠나게 만드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이를 밀착 지원할 전문적인 거점 공간이 절실합니다.

귀농, 창업, 보육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청년 정착의 전초기지 ‘강진군 리턴랩(Return Lab)’을 운영하겠습니다. 리턴랩은 단순히 교육 장소를 넘어 청년들이 함께 아이디어를 나누는 커뮤니티 공간이자, AI 영농 교육과 실전 창업 인큐베이팅이 동시에 이뤄지는 정착의 실험실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공공과 민간의 일자리를 1 : 1로 매칭해 주고, 정착 코디네이터를 배치하여 주거 계약부터 자녀 보육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리턴랩을 통해 청년의 감각과 우리 강진군의 자원이 결합해서 새로운 활력을 만드는 ‘리턴시티 강진’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청년 통합 지원 거점 ‘강진 리턴랩’ 조성 및 운영

- 코워킹 스페이스, 공유주방, 세미나실 등 기반 구축
 - 상설 정착 상담 창구 운영을 통한 맞춤형 패키지(주거·금융) 추천 시스템 구축
 - 디지털노마드를 위한 고성능 와이파이, 방송스튜디오 제공
- AI 기반 영농 및 지역 특화 창업 아카데미 상설화

- 농업기술센터 연계 스마트팜 실습 및 가공기술 전문 교육
- 지역 수의계약 데이터 분석 기반의 블루오션 업종 창업 교육 과정 운영
- 실패해도 괜찮은 ‘도전 펀드’ 지원 및 실패 리포트 공유

민·관 일자리 매칭 및 ‘동행지기’ 멘토링 프로그램

- 군청 및 유관기관 청년 인턴십 및 정규직 채용 정보 관리
- 성공한 선배와 신규 정착 청년 간의 1:1 결연 지원
- 지역 주민과 청년이 어우러지는 ‘마을 환영 파티’ 및 네트워킹 지원

▪ 예정위치 : 강진읍 내 유희 공공시설(또는 폐교 리모델링)

▪ 사업예산 : 30억 원 (인프라 구축 및 운영비)

▪ 이행기간 : 2027년~2027년 (설립 및 운영)

▪ 재원조달 : 국비, 도비, 군비
 행정안전부 청년마을 조성사업
 고용노동부 청년성장프로젝트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사업
 전라남도 전남형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
 청년 창업지원 패키지 사업

▪ 우선순위 : 1순위

▪ 사업목표 : 리턴랩 가입자 연 100명
 취·창업 매칭 50건
 청년 정착 성공률 30% 향상

4) 문화·관광·교통·공공시설 무료특구 조성

강진은 다산 유적지, 고려청자 요지 등 우수한 관광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각 시설마다 입장료를 따로 받고 교통편이 복잡하여 관광객의 체류 시간이 짧고 비용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관광객들이 일부 명소만 보고 빠르게 떠나게 되어 지역 내 실질적인 소비 증대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어촌 지역의 특성상 주민들의 문화·체육시설 접근성이 도심에 비해 낮아, 교통비와 이용료 부담이 주민들의 여가 생활을 제약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강진 전역을 하나의 패스로 즐기는 ‘전국 최초 무료 관광특구’를 조성하겠습니다. 문화관광시설, 체육시설, 군내 버스를 하나의 카드로 통합하는 ‘강진 통합요금제’를 도입하여 관광객은 편리하게 체류하고, 주민은 문화 복지를 누리게 하겠습니다.

주요 유적지와 박물관 입장료를 사실상 무상화하거나 획기적으로 인하하여 남도답사 1번지를 넘어 무료로 즐기는 힐링 도시로 브랜딩할 예정입니다. 편리한 이동과 자유로운 이용이 강진의 새로운 경쟁력이 되어 체류형 관광 경제를 확실히 살려내겠습니다.

원패스 ‘(가칭)강진 통합관광카드’ 시스템 구축

- 유적지, 박물관, 수영장, 버스를 카드 하나로 결제·이용하는 플랫폼
- 강진방문 관광객용(단기 패스)과 주민용(생활 복지형) 카드를 구분 설계
- 모바일 QR 결제 및 실물 카드 발급 병행으로 전 연령대의 제공

주요 문화·관광시설 입장료 무상화 및 파격 할인 실시

- 다산박물관, 청자박물관 등 공공 시설물의 단일 티켓 및 무료화 추진
- 통합 패스 소지자 대상 지역 식당 및 카페 10% 추가 할인 가맹점 확대
- 비수기 평일 ‘무료 관광의 날’ 운영을 통해 강진 체류 인구 추가 유입 유도

교통약자와 군민을 위한 ‘교통-문화 복지 서비스’

- 어르신, 아동, 장애인 대상 통합 패스 기반 버스 무료 이용 제도화
- 체육시설 및 도서관 프로그램 성실 참여자 대상 포인트 적립 시스템
- 적립된 포인트를 강진사랑상품권으로 전환하여 지역 상권 소비 유도

- 예정위치 : 강진군 주요 관광지
(주요 관광지, 체육시설, 농어촌 버스)
- 사업예산 : 20억 원 (시스템 구축 및 요금 보전비)
- 이행기간 : 2028년~2030년 (시범 운영 후 확대)
- 재원조달 : 국비, 도비, 군비
문화체육관광부 관광특구 활성화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스마트관광도시 운영
국토교통부 벽지노선 지원·공공형 택시 운영
전라남도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 우선순위 : 2순위
- 사업목표 : 통합 패스 발급 10만 매
관광객 체류 시간 50% 증가
군민 문화시설 이용률 2배 달성

5) 편리하고 빠른 시내 무료교통 제공

강진군민들이 일상에서 겪는 가장 큰 고통 중에 하나는 대중교통의 빈틈입니다. 읍내에서 떨어진 면 지역 주민들은 병원 한 번 가기 위해 반나절을 허비하며, 이동성의 결핍은 의료와 교육의 차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상황에서 자동차가 없는 청년들은 교통 불편 때문에 강진을 떠나고 있습니다.

이미 2023년 경북 청송군을 시작으로 전국 16개 지자체, 전남에서는 완도, 진도, 영암군에서 시내버스 무료화를 시행하며 교통 복지를 실현하고 있는 만큼, 인구 소멸 대응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교통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시급합니다.

교통은 더 이상 비용이 아닌 군민의 당연한 ‘기본권’으로 정의하고 ‘무료 대중교통’을 실천하겠습니다. 강진 내 모든 농어촌 버스를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하여 교통비 부담을 없애고 주민 간 접촉을 늘려 따뜻한 공동체를 복원하겠습니다.

터미널과 강진역에서 내리면 기다림 없이 목적지로 연결되는 ‘심리스(Seamless) 교통 체계’를 설계할 예정입니다. 편리하고 빠른 무료 교통이 강진의 상주인구를 늘리고 관광객의 발길을 머물게 하는 강력한 성장의 엔진이 될 것입니다.

강진군 무상 시내버스 제도 전면 도입

- 군민, 학생, 외지인 등 누구나 카드 한 장으로 버스 무료 탑승 실시
- 운수 업체와의 협약을 통한 공영화 또는 손실보전금 정산 체계 확립
- 버스 무료화에 따른 유희 차량 정비 및 서비스 품질 개선 모니터링

거점 중심의 빠른 연결·환승 시스템 구축

- 강진역, 버스터미널을 기점으로 주요 관광지와 면 단위를 잇는 급행 순환 노선
- 버스 도착 정보를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스마트 쉼터’ 및 정류장 고도화
- 버스 하차 후 자전거나 키포드로 연결되는 ‘라스트 마일’ 모빌리티 지원

교통 데이터를 활용한 ‘공동체 활력’ 분석 및 환류

- ‘강진 365’ 플랫폼을 통해 노선별 이용 패턴과 주민 만족도 상시 측정
- 버스를 매개로 한 마을 어르신들의 외출 빈도와 건강 지표 연관성 분석
- 주민들의 이동 데이터를 기반으로 비효율적 노선을 탄력적으로 재설계

- 예정위치 : 강진군 전역 (1읍 10면 버스 노선 전역)
- 사업예산 : 40억 원 (연간 운행 손실 보전 및 운영비)
- 이행기간 : 2027년~2030년 (전면 실시)
- 재원조달 : 국비, 도비, 군비
국토교통부 벽지노선 활성화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농촌형 교통모델
전라남도 전남형 대중교통 이용활성화 지원
전라남도 스마트 청년·학생 교통비 지원
- 우선순위 : 1순위
- 사업목표 : 버스 이용률 30% 향상
가계 교통비 연간 50만 원 절감
자동차 이용률 감소

6) 수요응답형 버스(DRT) 도입

강진군 면 지역은 인구 밀도가 낮아 정기 노선버스를 운영할수록 적자가 커지고 주민들은 여전히 긴 배차 시간을 감내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옴천면과 같은 인구 희소 지역은 버스를 1시간 이상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며, 이는 교통이 오히려 불평등과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가용 위주의 이동 문화는 기후 위기 시대에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가로막고 있어, AI 기술을 활용해 승객이 부르면 달려오는 ‘수요 중심’의 혁신적 교통 체계 도입이 절실합니다.

고정된 노선 대신 군민의 요청에 따라 최적의 경로로 움직이는 ‘수요응답형 버스(DRT)’를 전면 도입하겠습니다. 스마트폰 앱이나 전화 한 통으로 차를 부르면 집 앞까지 와서 터미널, 병원, 역으로 모셔다드리는 ‘강진형 부름 버스’를 운영하겠습니다.

특히 기존 택시 업계를 공공 대중교통의 파트너로 편입하여 100원 택시와 DRT가 조화를 이루는 통합 모빌리티(MaaS) 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기술이 사람을 찾아가는 따뜻한 교통 혁명을 통해, 강진 어디에 살아도 이동의 제약이 없는 ‘가까워서 강한 강진’을 만들겠습니다.

AI 기반 ‘강진 부름 버스’ 호출, 배차 플랫폼 구축

- 승객 위치와 목적지를 분석해 실시간 최적 경로를 산출하는 알고리즘 적용
- 디지털 취약 계층을 위한 읍·면별 전용 콜센터 및 마을회관 전용 단말기 배치
- DRT 차량 내 무료 와이파이 및 건강 체크 기기 탑재

택시·버스의 결합 ‘강진 통합 모빌리티(MaaS)’ 구현

- 기존 택시를 DRT 서비스로 활용하는 ‘바우처 택시’ 제도 확대 및 단가 조정
- 장애인, 노인 등 교통 약자 전용 무장애 호출 서비스 최우선 제공
- 하나의 앱으로 시내버스 시간표 확인과 DRT 예약을 동시에 수행하는 시스템 구축

데이터 기반 교통혁신 성과지표(KPI) 관리

- 개인별 이동 시간 단축 및 여가 시간 증가율을 ‘강진 365’ 대시보드에 공개
- 온실가스 저감 및 주차장 공사비 절감액 등 사회적 가치 데이터화 지원
- 주민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운행 구역 및 대수를 실시간 최적화

- 예정위치 : 강진군 전역 (특히 버스 미운행지 및 면 단위 외곽 지역)
- 사업예산 : 15억 원 (시스템 구축 및 시범 운행비)
- 이행기간 : 2027년~2027년 (단계별 도입)
- 재원조달 : 국비, 도비, 군비
국토교통부 중소도시 스마트시티 조성
농림축산식품부 농촌형 교통모델 DRT/택시
전라남도 전남형 대중교통 활성화 지원
전라남도 100원 택시 운영 지원
- 우선순위 : 1순위
- 사업목표 : 평균 이동 시간 20% 단축
교통 소외 마을 제로 달성
탄소 배출량 20% 저감

7) 15분 생활권 스펀지시티 조성

강진읍을 중심으로 인구의 약 40%(12,490명)가 밀집해 있으나, 보행로와 자전거 도로의 연결성이 낮아 자가용 의존도가 높은 실정입니다. 읍내 주요 거점(시장, 군청, 병원)을 15분 내에 보행이나 녹색 교통으로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은 정주 여건 개선의 핵심입니다.

특히 강진읍 주택의 45.2%가 1979년 이전 건축된 노후 주택으로, 침수 취약 지역이 산재해 있어 빗물이 잘 스며드는 ‘배수성 포장’과 보행로 정비를 결합한 구조적 대응이 시급합니다.

강진읍과 주요 면 소재지를 물이 스며들고 사람이 걷기 행복한 스펀지 시티로 전환하겠습니다. 화순군의 15분 생활권 모델을 도입하여 강진읍 중심지에 보행전용 거리와 녹색 자전거 도로를 구축하겠습니다.

도로 포장 시 배수성 공법을 전면 적용하여 침수 피해를 예방하고 열섬 현상을 저감하겠습니다. 걷는 것만으로도 시장과 병원을 편리하게 오갈 수 있는 체계를 완성하여, 강진을 노후 주거지의 한계를 극복한 ‘작지만 강한 도시’로 재설계할 예정입니다.

보행자 중심 ‘그린 슈퍼블록’ 및 전용로 구축

- 강진읍 시장~군청 구간 보행자 전용 특화 거리 조성
- 차량 속도 20km 이하 제한 구역 설정 및 보도단차 제거
- 유모차·휠체어가 자유로운 무장애 설계 적용

침수 예방을 위한 ‘배수성·투수성 도로’ 전면 확대

- 골목길·주차장에 빗물 침투형 잔디블록 및 투수콘 시공
- 토지피복도 관리로 기후 변화 집중호우 대응력 강화

- 비점오염 저감을 위한 식생 도랑 및 빗물 가든 설치 지원

개인형 모빌리티(PM) 및 공공자전거 거점 연결

- 버스정류장과 주거지를 잇는 '라스트 마일' 주차장 확충
- 강진만 생태공원과 연계한 관광형 자전거 스테이션 운영
- PM 이용 안전을 위한 전용 보험 가입 및 안전 교육 실시

- 예정위치 : 강진읍 도심 및 10개 면 소재지 중심지
- 사업예산 : 50억 원
- 이행기간 : 2027년~2031년
- 재원조달 : 국비, 도비, 군비
국토교통부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환경부 스마트 물순환 도시 조성
전라남도 보행자 중심 도로환경 개선
- 우선순위 : 2순위
- 사업목표 : 투수성 보행자 전용도로 5km 확충
배수성 포장률 30% 달성
이동 만족도 85% 확보

8) 미래형 드론·UAM 물류 배송 거점 구축

강진군은 산지와 야산이 많은 지형적 특성으로 인해 면 단위 외곽 지역과 낙도 지역의 물류 배송 서비스가 도심에 비해 현저히 낮습니다. 생필품과 의약품 배송의 신속성이 생존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미 가까운 고흥군, 충남 보령(원산도), 인천의 옹진군처럼 도서 지역에 드론을 활용한 물류 서비스가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강진도 미래 교통 기술을 도입하여 지리적 한계를 극복하고 물류 소외 지역을 없애는 혁신적 대안 마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강진역과 마량항을 기점으로 하는 ‘드론·UAM 물류 배송 허브’를 구축하겠습니다. 배송 차량이 접근하기 힘든 산간 오지와 섬 지역에 드론을 활용한 ‘하늘 택배’ 시스템을 도입하여 물류 사각지대를 제로화하겠습니다.

향후 개통될 강진역 주변에 도심 항공 터미널 (Vertiport) 부지를 선제적으로 확보하여 인근 시군과의 광역 교통 연계성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기술이 사람을 찾아가는 유능한 행정을 통해 강진 어디에 살아도 도시 수준의 생활 편의를 누리는 ‘모빌리티 선도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강진역 거점 ‘모빌리티 환승 및 물류 허브’ 조성

- UAM이착륙장(버티포트) 및 드론 스테이션 기초시설 설계
- 철도-버스-드론이 연계되는 통합 물류 환승 시스템 구축
- AI 기반 무인 항공기 다층 물류 센터 시범 운영

물류 취약지 대상 ‘드론 배송서비스’ 시범 사업

- 움천면 등 오지 마을 대상 생필품 및 의약품 드론 배송
- 마량항~가우도 등 도서 관광지 연계 드론 물류망 확장

- 마을회관 옥상 활용 드론 착륙패드 및 자동 수령함 설치

강진군 드론 산업 육성 및 전문 인력 양성

- 드론비행 및 정비 교육을 위한 ‘강진 드론 아카데미’ 운영
- 청년창업과 연계 드론영상 촬영 및 방제서비스기업 육성
- 드론-수소 연계 차세대 모빌리티 테스트베드 유치 추진

- 예정위치 : 강진역세권 및 마량항, 옴천면 등 물류 취약지
- 사업예산 : 30억 원
- 이행기간 : 2027년~2030년 (중장기 로드맵)
- 재원조달 : 국비, 도비, 군비
국토교통부 드론 실증도시 구축
국토교통부 드론 상용화 지원
국토교통부 스마트시티 조성 모빌리티형
전라남도 차세대 드론산업 생태계 조성
우선순위 : 3순위
- 사업목표 : 드론 배송 거점 5개 구축
긴급 물류 배달 시간 50% 단축
UAM 실증 부지 확보

9) 어린이와 어르신 동행, ‘생명보호구역’ 확대

강진군에는 13개 초등학교가 운영 중이나, 대다수 통학로가 국도나 지방도와 인접해 있어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합니다. 어린이뿐만 아니라 어르신들의 보행 안전 역시 중요한 과제이지만, 현재는 CCTV 확충 등 단순 시설 보강에 머물러 있습니다.

첨단 IT 기술과 녹색 공간을 결합하여 교통 약자의 생명과 건강을 동시에 지키는 종합적인 안전 대책이 절실합니다.

스쿨존과 실버존을 하나로 묶어 ‘강진형 생명보호구역(Life Zone)’으로 전면 개편하겠습니다. 단순히 과속을 막는 것을 넘어 IoT 기술을 활용해 보행자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음성으로 안내하는 ‘스마트 안전 시스템’을 도입하겠습니다.

보호구역 내 도로 폭을 줄여 서행을 유도하는 ‘슈퍼블록’을 조성하고, 식물 방음벽을 설치하여 미세먼지와 소음으로부터 아이들과 어르신들을 보호할 예정입니다. 부모는 안심하고 아이는 즐거운, 군민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는 강진을 만들겠습니다.

IoT 융복합 기반 ‘스마트 횡단보도’ 및 알림 시스템

- 보행자 감지센서를 활용한 자동 조명 및 음성안내기 설치
- 어린이 보행 상황을 운전자에게 시각적으로 알리는 LED 표지판 구축
- AI 기반 불법 주정차 자동 단속 및 실시간 과태료 부과 시스템

안전과 건강을 결합한 ‘그린 생명존’ 리모델링

- 화강암 사고석 감속 포장 도입으로 차량 서행 자연 유도

- 통학로 주변 식물울타리·차단숲 조성을 통한 공기 질 개선
- 어르신 보행속도에 맞춘 횡단보도 신호자동연장기술 적용

어르신·어린이 ‘교통 안전 지킴이’ 일자리 운영

- 어르신을 생명존 모니터링 요원으로 선발, 일자리 창출
- 학교별 녹색어머니회·주민자치회 연계 안전 교육 강화
- 사고 다발 구역 데이터 분석 기반 ‘안전 지도’ 제작

- 예정위치 : 관내 초등학교 13개, 노인복지시설 주변 20개
- 사업예산 : 40억 원
- 이행기간 : 2027년~2029년
- 재원조달 : 국비, 도비, 군비
 행정안전부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개선
 국토교통부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산림청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
 전라남도 전남형 교통안전 모델 창출
- 우선순위 : 2순위
- 사업목표 : 생명보호구역 30개 조성
 보행 사고 50% 감소
 안전시설 만족도 95% 달성

10) 농어촌 에너지 복지, ‘LPG 배관망’ 고도화

강진군은 강진읍 일부 지역(3,878세대)에만 도시가스가 공급되고 있으며, 면 지역 대다수 주민은 여전히 개별 가스통 배달 방식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가스통 운반 방식은 도시가스 대비 가격이 비쌀 뿐만 아니라 고령층이 직접 관리하기에 안전사고 위험이 큼니다.

화순군의 경우 2019년부터 2023년까지 6개 마을(374세대)에 마을 단위 농촌형 LPG 공동 공급 인프라를 보급했습니다. 위 사례처럼,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농촌 마을에 소형 저장탱크와 배관망을 구축하여 에너지 복지 격차를 해소하고 주민들의 가계 부담을 덜어주어야 합니다.

도시가스 사각지대에 놓인 면 단위 마을을 대상으로 ‘LPG 집단 공급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마을 중심부에 소형 저장탱크를 설치하고 각 가정을 배관으로 연결하여 도시가스 수준의 편리함과 안정성을 제공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연료비를 최대 30% 이상 절감하고 가스통 교체의 번거로움을 없애 어르신들의 생활 편의를 획기적으로 높일 예정입니다. 자연이 주는 에너지 혜택에서 소외되는 군민이 없게 에너지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마을단위 ‘LPG 소형 저장탱크 및 배관망’ 설치

- 마을별 유희 부지에 안전 펜스를 갖춘 저장탱크 설치
- 가스배관 지중화 및 가정별 스마트계량기(원격 검침) 보급
- 가스 누출 감지기 및 자동 차단 장치 설치로 안전성 확보

연료비 부담 완화 및 ‘에너지 복지 카드’ 연계

- 공동 구매 방식을 통한 단가 인하 및 가격 투명성 확보

- 취약계층 동절기 가스 요금 바우처 지급 및 포인트 지원
- 햇빛연금 수익 일부를 연료비로 결제하는 시스템 연동

사용 후 시설 관리 및 ‘마을 에너지 매니저’ 운영

- 지역 내 가스전문업체를 관리주체로 지정하여 정기점검
- 마을 청년 및 은퇴 기술자를 에너지 관리 도우미로 고용
- 노후화 대비 수선 유지비 적립 및 투명한 기금 관리 지원

- 예정위치 :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인 10개 면 단위 마을
- 사업예산 : 100억 원 (개당 약 8~10억 원)
- 이행기간 : 2027년~2029년 (단계적 확대)
- 재원조달 : 국비, 도비, 군비
 산업통상자원부 읍·면단위 LPG 배관망 사업
 산업통상자원부 마을단위 소형 저장탱크 보급
 우선순위 : 2순위
- 사업목표 : LPG 배관망 10개 마을 구축
 연료비 30% 절감
 에너지 만족도 90% 달성

11) 강진만 자전거 고속도로, 퍼스널 모빌리티망 구축

우리 군에는 강진만을 따라 ‘U’자 형으로 아름다운 해안 도로가 있으나, 관광지 간 자전거 도로나 보행로 연결이 끊겨 있어 친환경 관광의 시너지 효과가 떨어집니다. 자전거 고속도로 구상과 15분 생활권의 녹색교통 모델을 결합하면, 강진은 단순한 관광을 넘어 능동적으로 즐기는 관광 도시로 도약할 수 있습니다.

특히 2025년 기준 전기차·하이브리드 보급률은 늘고 있지만 1인 모빌리티 인프라는 미비하여, 관광객과 청년 정착민을 위한 새로운 교통 수단 확보가 시급합니다.

강진만을 한 바퀴 도는 ‘자전거 고속도로’를 완공하고, 이를 읍내 주요 생활권과 연결하겠습니다. 단절된 구간을 튜브형 고가도로나 데크형 도로로 연결하여 사고 위험 없는 안전한 주행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관광지 곳곳에는 전기 자전거와 전동 킥보드 스테이션을 설치하여, 차 없이도 강진의 정취를 오감으로 체험하는 ‘녹색 교통 선도 도시’를 완성할 예정입니다. 탄소 중립 실천과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동시에 잡는 강력한 성장의 동력이 될 것입니다.

강진만 일주 ‘논스톱 자전거 고속도로’ 정비

- 끊어진 해안 자전거 도로를 데크 및 전용 차로로 연결
- 자전거 이용자 전용쉼터 및 공기주입기, 간단 수리점 구축
- 주요지점 스마트조명 설치로 야간라이딩 관광객 모집

‘강진형 공유 모빌리티’ 플랫폼 운영

- 읍내 터미널~강진만 생태공원 전기 자전거 스테이션 배치
- 모바일앱 하나로 예약·결제 가능한 통합이용시스템 구축
- 이용 거리만큼 지역화폐로 보상하는 에코 마일리지 도입

보행자-자전거 '안전 공존 가이드라인' 수립

- 생활권내 자전거우선도로 지정 및 전동 킥보드 안전 구역 설정을 통한 이용자 안전 확보
 - 사고 예방을 위한 노면 컬러 코딩 및 지능형 CCTV 모니터링 추진
 - 관내 학교 대상 '안전 자전거 교실' 운영 및 안전 헬멧 대여 서비스 제공
-
- 예정위치 : 강진만 해안선 및 강진읍~생태공원 연결 도로
 - 사업예산 : 30억 원
 - 이행기간 : 2028년~2031년
 - 재원조달 : 국비, 도비, 군비
행정안전부 자전거 이용 활성화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
국토교통부 스마트시티 조성_모빌리티형
전라남도 전남형 자전거도로 정비
전라남도 블루 이코노미 관광 거점 조성
 - 우선순위 : 2순위
 - 사업목표 : 단절 구간 50% 연결
공공 모빌리티 200대 도입
연간 이용객 5만 명 확보

12) 군민 안전을 지키는 스마트 세이프 로드

강진군은 소방서 1개와 소방차 8대로 넓은 면적 (500.9km²)을 담당하고 있어, 화재나 사고 시 골든타임 확보에 물리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군의 최북방인 움천면 등 인구가 적은 지역은 가로등과 안전 인프라가 부족해 야간 보행 및 주행 시 범죄와 사고 위험이 높다는 주민들의 고충이 큼니다.

요즘에는 수도권 뿐만 아니라 도농복합도시와 농어촌에서도 스마트 교통·안전 인프라를 구축하는 곳이 많습니다. AI 기술과 데이터를 결합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위급 상황 시 즉각 대응하는 ‘지능형 안전망’ 구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강진의 어두운 길을 ‘스마트 세이프 로드’로 밝히겠습니다. 인적 드문 면 단위 마을 길과 읍내 골목에 비상벨과 지능형 CCTV가 결합된 ‘스마트 안전 가로등’을 대폭 확충하겠습니다. 야간에 보행자가 감지되면 조명이 밝아지고, 비명이나 이상 소음 발생 시 즉시 통합관제센터와 연결되는 지능형 보안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기술이 군민의 안전을 24시간 감시하는 ‘안심 강진’을 만들어, 단 한 사람의 군민도 범죄와 사고의 불안 속에 남겨두지 않겠습니다.

지능형 CCTV 결합 ‘안심 스마트가로등’ 보급

- 보행자 감지 시 밝기 자동 조절(에너지 절감) 및 음성 알림을 제공하는 가로등 보급
- 비상벨을 누를 때 신고자와 경찰과 소방센터 3자가 실시간 대면 통화를 하는 시스템 개발 보급
- 취약 지역 고화질 CCTV 데이터 연동을 통한 실시간 상황 모니터링

AI 기반 ‘안전 지도’ 구축 및 대시보드 운영

- 사고발생지 및 민원지역 데이터 분석, ‘위험 지역’ 시각화
- 마을별 가로등 조도와 안전시설 상태를 관리하는 디지털 관리망 구축
- 강진 365 플랫폼을 통해 군민이 직접 안전 위험 요소를 신고하는 기능

사회적 약자 전용 ‘귀가 동행 앱’ 및 서비스

- 심야 시간 귀가 시 가족에게 위치를 실시간 공유하는 전용 앱 운영
- 자율방범대와 연계한 ‘안심 귀가 서비스’ 활동비 지원
- 고령 독거 어르신 외출 시 보행 데이터 분석을 통한 실종 예방 시스템

- 예정위치 : 면 단위 외곽 마을 및 읍내 노후 골목길 50개
- 사업예산 : 15억 원
- 이행기간 : 2027년~2029년
- 재원조달 : 국비, 도비, 군비
행정안전부 지역치안 및 생활안전 환경개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스마트빌리지 보급 확산
국토교통부 생활밀착 도시재생 스마트기술지원
전라남도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 사업
- 우선순위 : 2순위
- 사업목표 : 스마트 가로등 200개 설치
응답 시간 10분 이내 단축
범죄 예방 지수 30% 향상

13) 지역 상권에 ‘걷기 활력거리’ 조성

강진읍시장은 강진군 경제의 중심지지만, 주변 도로의 주차난과 보행 환경 악화로 관광객과 주민들이 오래 머무르기 불편한 구조입니다. 가평군은 잣고을시장 일원을 ‘힐링문화-여기도시’로 조성했습니다.

단절된 생활권과 상권을 연결하는 보행전용 터널이나 특화거리 조성이 상권 활성화의 열쇠입니다. 특히 강진의 역사적 자산인 ‘영랑생가’와 시장을 잇는 구간을 걷고 싶은 거리로 브랜딩한다면, 스쳐 지나가는 관광을 머무는 소비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단절된 골목을 잇고 상권에 온기를 불어넣는 ‘걷기 활력거리’를 조성하겠습니다. 강진읍 시장과 주변 상가를 연결하는 보행 통로에 감성적인 조명과 아트워크를 설치하여 그 자체로 관광 명소가 되게 하겠습니다.

차량 통행을 제한하는 주말 보행 전용 구역을 운영하고, 자투리 공간을 활용한 야외 쉼터와 거리 공연장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주민과 관광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활력 넘치는 강진의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들겠습니다.

시장과 도심을 잇는 ‘라이트웨이(Light-way)’ 조성

- 어두운 골목에 특색 있는 경관 조명 및 바닥 아트 시공
- 지역 예술가 협업, 강진의 역사를 담은 벽화 갤러리 구축
- 시장 입구에 스마트 주차 정보 안내 시스템 및 무인 배송 보관함 설치

주말 ‘차 없는 거리’ 운영 및 골목 축제 활성화

- 특정 구간 주말 차량 진입 차단 및 보행자 전용 문화 공간 전환사업 추진
- 청년 상인 팝업스토어 및 로컬푸드 야시장 운영 지원

- 버스킹·문화 공연 전용 ‘포켓 무대’를 거리 곳곳에 배치

도심 속 자투리 땅 ‘그린 포켓 쉼터’ 확충

- 유휴 부지를 벤치와 화초가 있는 ‘작은 정원’으로 재생
- 보행 편의를 위한 50m 간격 ‘잠시 쉼터’ 및 그늘막 설치
- 생활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벽면 녹화 및 분무 냉방(쿨링포그) 도입

- 예정위치 : 강진읍 시장, 영랑생가, 군청 일원 골목 및 연결로
- 사업예산 : 25억 원
- 이행기간 : 2027년~2029년
- 재원조달 : 중소벤처기업부 동네상권발전소
중소벤처기업부 지역상권 활성화
행정안전부 지역특성 살리기
전라남도 전남형 지역성장 전략사업
전라남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 우선순위 : 2순위
- 사업목표 : 보행 유동 인구 20% 증가
시장 매출액 15% 증대
보행 만족도 90%

마. 환경·에너지

1) 생태환경을 지키는 그린 강진 클러스터

강진군은 전남 내에서도 높은 수준인 90.7%의 폐기물 재활용률을 기록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녹색 산업 기반은 미비한 실정입니다. 현재 환경 보호는 주로 규제와 비용의 관점에서 다뤄지고 있으며, 청년들이 정착할 수 있는 환경 분야의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합니다.

특히 2025년 말 인구 3만 2천 명이 붕괴된 위기 상황에서, 강진의 청정한 자연환경(자연환경보전지역 21.8%)을 단순히 보존하는 것을 넘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환경을 지키는 일이 곧 군민의 소득이 되는 ‘그린 경제’ 시대를 열겠습니다. 폐기물 처리 전 과정을 디지털 데이터로 관리하는 스마트 시스템을 구축하여 청년들을 위한 자원순환 코디네이터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또한 강진의 낡은 산업단지를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는 ‘제로에너지 지구’로 재생하여 탄소 중립과 산업 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할 예정입니다. 환경 교육부터 녹색 기업 육성까지 이어지는 선순환 클러스터를 조성해서 대한민국 그린 경제의 선도 모델로 만들겠습니다.

데이터 기반 ‘스마트 자원순환 시스템’ 구축

- 분리배출부터 재활용까지 전 과정 ICT 모니터링 도입
- 청년 ‘자원순환 코디네이터’ 양성 및 현장 배치 지원
- 재생 원료의 지역 내 산업 자원 활용 선순환 체계 마련

강진 산단 내 ‘제로에너지 그린 지구’ 조성

- 노후 공장 건물 단열 강화 및 지붕 태양광 설치 지원

- 산단 내 에너지 통합 관리 플랫폼 구축으로 비용 절감
- 지속가능 가치 중심의 저탄소 미래 기업 적극 유치

강진형 ‘저탄소 농법’ 브랜드화 및 판로 지원

- 스마트팜과 저탄소 공법을 결합한 친환경 농산물 육성
- “지구를 살리는 강진의 맛” 친환경 브랜드 마케팅 강화
- 도시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한 탄소 배출량 인증제 실시

- 예정위치 : 성전면 일반산업단지, 환경자원사업소 일원
- 사업예산 : 50억 원
- 이행기간 : 2027년~2028년
- 재원조달 : 국비, 도비, 군비
 환경부 환경친화적 자원순환 클러스터 조성
 환경부 스마트 그린도시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립형 스마트산단 조성
 전라남도 전남형 탄소중립 선도마을 조성
- 우선순위 : 2순위
- 사업목표 : 녹색 일자리 50개 창출
 제로에너지 건물 10개 전환
 재활용 효율 15% 향상

2) 자연이 주는 햇빛연금·바람연금

강진군은 풍부한 일조량과 해상 풍력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그동안 에너지 사업의 혜택이 외지 자본이나 특정 사업자에게 집중되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자연은 군민 모두의 공공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경관 훼손과 갈등만을 떠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2026년 예산 기준 재정자립도가 7.5%, 재정자주도는 58.1%로 유사단체보다 다소 낮은 강진군의 현실을 고려할 때, 지역 자원을 활용해 주민들의 소득을 직접 보전하고 가계 경제를 자립시킬 수 있는 획기적인 모델 도입이 시급합니다.

자연이 주는 혜택을 모든 군민이 공평하게 나누는 에너지 민주주의를 실현하겠습니다. 군민들이 에너지 사업에 ‘주주’로 참여하는 에너지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햇빛과 바람이 만드는 수익을 ‘배당금’ 형태로 직접 지급하겠습니다.

이 연금은 지역화폐로 환원하여 지역 소비를 촉진하고 어르신들의 노후 자금과 청년들의 정착 자금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이익 공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강진군민이라면 누구나 에너지 주권을 체감하는 도시를 완성하겠습니다.

주민 참여형 ‘강진 에너지 협동조합’ 설립 지원

- 에너지 사업 추진 시 주민 지분 참여 의무화 조례 제정
- 청년들이 운영을 맡고 어르신들이 수익을 얻는 상생 모델
- 유희 농경지 및 노후 저수지 수면 활용 태양광 확대

‘햇빛·바람 연금’ 지급 체계 구축 및 운영

- 발전 수익의 일부를 군민 통장에 직접 배당하는 시스템

- 정착 초기 귀농·귀촌인 대상 ‘정착 장려 연금’ 가산 지급
- 지역화폐 지급을 통한 장터 상권 및 골목 경제 활성화

블록체인 기반 ‘실시간 에너지 수익 공개’ 플랫폼

- 우리 지역 발전량과 수익 계산법을 투명하게 시각화 제공
- 스마트폰으로 본인 배당 내역을 실시간 확인하는 앱 개발
- 에너지 민주주의 확산을 위한 주민 교육 및 홍보 프로그램

- 예정위치 : 강진군 전역
(해상 풍력 단지 및 유희 공공부지 연계)
- 사업예산 : 100억 원 (연차별 기금 조성 및 배당 지원)
- 이행기간 : 2027년~2030년 (지속 추진)
- 재원조달 : 국비, 도비, 군비, 민자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 이익공유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
전라남도 전남형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
전라남도 공공주도형 해상풍력 개발 지원
- 우선순위 : 1순위
- 사업목표 : 군민 주주 가입률 30% 달성
연간 1인당 배당금 목표 수립
지역화폐 환류액 증대

3) 월급을 주는 컬러태양광 주택 보급

강진군은 단독주택 비율이 높으나 1979년 이전에 건축된 노후 주택이 45.2%에 달해 주거 환경 개선과 에너지 비용 절감이 동시에 필요한 상황입니다. 기존의 태양광 패널은 까만색 일색으로 도시 경관을 해치고 주민들의 거부감을 불러일으키는 요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기후 위기 시대에 주택은 더 이상 단순한 거주 공간이 아니라 전기를 생산하고 수익을 만드는 ‘주택 발전소’로 진화해야 하며, 이는 도시민의 강진 정착을 유도하는 강력한 유인책이 될 수 있습니다.

집이 스스로 수익을 만들어 월급을 주는 ‘에너지 자립 주거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건축자재 자체가 태양광 패널이 되는 건물일체형 태양광(BIPV)과 세련된 컬러 태양광을 도입하여 경관을 보존하면서 에너지를 생산하겠습니다.

60평 규모 주택 기준 월 약 50만 원의 전기 판매 수익을 창출하는 주택 모델을 보급하여 주민들의 생활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출 예정입니다. ‘집이 돈을 벌어드리는 도시 강진’이라는 브랜드를 통해 귀촌 인구 유입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실물형 주택발전소 ‘Real Build Expo’ 마을 조성

- 실제 거주가능한 제로에너지 하우스 전시 및 분양 추진
- 수요자가 설계 단계부터 참여하는 맞춤형 에너지 주택
- 단지 내 에너지 교육 및 실증 공간 마련으로 관광 자원화

디자인을 살린 ‘컬러 BIPV’ 기반 건축 지원

- 기와, 창호, 외벽과 일체화된 심미적 태양광 설비 보급

- 노후 주택 리모델링 시 컬러 태양광 설치 비용 집중 보조
- 경관 훼손 없는 ‘태양광이 아름다운 도시’ 브랜드 선점

지역 시공업체 육성 및 행정 인센티브 제공

- BIPV 시공 전문 교육 및 지역 업체 인증 프로그램 운영
- 에너지 주택 건축 시 인허가 신속 처리 및 재산세 감면
- 에너지 수익 공유 가이드라인 배포로 가계 경제 안정화

- 예정위치 : 강진읍 구도심, 신규 주거단지
- 사업예산 : 80억 원 (전시 마을 조성 및 보조금 지원)
- 이행기간 : 2027년~2028년
- 재원조달 : 국비, 도비, 군비, 민자
국토교통부 민간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지원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전라남도 신재생에너지 보급주택지원
전라남도 전남형 만원주택
- 우선순위 : 2순위
- 사업목표 : 주택발전소 100호 보급
가구당 월 소득 50만 원 이상 창출
건축 인증 획득

4) 단계별 무상전기 보급

강진군은 폭염과 한파 시 독거노인 및 에너지 취약계층의 전기요금 부담이 생존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재의 에너지 복지는 단순 감면이나 소액 지원에 그치고 있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며, 특히 농업용 전기를 다량 사용하는 농가들은 요금 인상에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에너지를 비용이 아닌 군민의 당연한 ‘기본권’으로 정의하고, 자연이 준 풍부한 햇빛과 바람의 혜택을 군민에게 직접 되돌려주는 구조적 전환이 필요합니다.

단계별 무상전기 보급을 통해 군민의 에너지 비용 제로화를 실현하겠습니다. 우선 1단계로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게 소규모 태양광을 우선 보급하여 기본 생활 전력을 무상화하겠습니다.

2단계로 마을회관과 경로당의 전기요금을 제로화하고, 3단계로 농업용 전기를 자체 생산하여 농민들의 부담을 덜어드린 뒤, 최종적으로 군민 전체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군민이 주도하고 군민에게 수익이 돌아오는 자생적 에너지 공동체를 구축하여 ‘가장 따뜻한 에너지 복지 도시’를 완성하겠습니다.

취약계층 대상 ‘기본 생활 전력’ 무상 보급

-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 가구 소규모 태양광 우선 설치
- 기본 사용량 무상 제공 및 초과 발전량 판매 수익 환원
- 여름철 냉방비와 겨울철 난방비 걱정 없는 안전망 구축

공공시설 및 경로당 ‘에너지 제로화’ 프로젝트

- 마을회관과 복지시설 지붕을 활용한 전력 자급 체계 마련
- 절감된 운영비를 어르신 돌봄 서비스 강화 재원으로 활용
- 주민이 모이는 공간을 가장 쾌적한 피서지·피난처로 조성

농가 맞춤형 농업용 전기 자체 생산 지원

- 축사 및 비닐하우스 상부 태양광 설치로 영농 비용 절감
- 마을 단위 에너지 협동조합을 통한 전력 공유 모델 도입
- 에너지 비용 절감액을 농가 기본소득으로 환산 관리 실시

- 예정위치 : 강진군 전 지역
(에너지 취약 가구 및 경로당, 농가 참고 등)
- 사업예산 : 60억 원 (단계별 시행)
- 이행기간 : 2027년~2030년 (4단계 추진)
- 재원조달 : 국비, 도비, 군비, 민자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
농림축산식품부 농업 생산기반 정비
전라남도 전남형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
전라남도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 우선순위 : 1순위
- 사업목표 : 취약계층 1,000가구 무상전기
경로당 300개 제로 전기요금
농가 자급률 50% 달성

5) 강진 RE100 산업단지 유치

강진군의 제조업 비중은 8.3%로 매우 낮으며, 양질의 일자리 부족은 청년 인구 유출과 지역 소멸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전 세계적인 탄소 규제 강화로 재생에너지로만 제품을 생산하는 RE100 이행이 기업 유치의 필수 조건이 되었으나, 수도권은 전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강진은 해상 풍력과 태양광 전력을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어, 전기가 산업을 찾아가는 ‘전력 주도형 산업 혁신’을 통해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

강진의 풍부한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전기가 싸고 안정적인 RE100 산업단지’를 유치하겠습니다. 해상풍력 유지보수 산업과 그린 식품 가공 클러스터 등 강진의 규모와 특성에 맞는 미래 산업군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탄소 다소비 중소기업에 RE100 입지를 제공하고 저렴한 전기를 장기 공급하여 기업 경쟁력을 극대화할 예정입니다. 산업단지의 수익을 주민 펀드와 연계하여 기업과 군민이 함께 부유해지는 ‘상생형 산업 모델’의 표준을 제시하겠습니다.

서남해 해상풍력 유지·보수 거점 기지 구축

- 재생에너지 기자재 점검 및 원격 모니터링 전문 기업 유치
- 청년 대상 풍력 발전 기술 교육 및 기술직 고용 매칭
- 공장 없이도 지속 가능한 고부가가치 기술 일자리 확보

에너지 융합 ‘그린 식품 가공 클러스터’ 조성

- 냉동·저장 등 전력 소비가 많은 식품 공정을 RE100 전환

- 강진 친환경농산물을 활용한 ‘탄소중립 식품’ 브랜드 육성
- 수출경쟁력을 갖춘 고부가가치 가공산업 경쟁력 강화

주민 참여형 에너지 수익환류 시스템 운영

- 산업단지 입주 이익 일부를 지역 복지 및 교육 기금 적립
- 군민 펀드 조성을 통해 기업 성장의 과실을 주민과 공유
- 갈등없는 산업유치를 위한 주민 참여형 운영위원회 구성

- 예정위치 : 강진 제2일반산업단지 예정지 (성전면 일원)
- 사업예산 : 300억 원 (인프라 구축 및 기업 지원책 포함)
- 이행기간 : 2027년~2030년 (중장기)
- 재원조달 : 국비, 도비, 군비, 민자
 산업통상자원부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립형 스마트산단
 전라남도 전남형 RE100 전용 산업단지 조성
 전라남도 지방투자촉진보조금 활용
- 우선순위 : 1순위
- 사업목표 : RE100 기업 10개 유치
 일자리 300개 창출
 재생에너지 공급률 100% 달성

6) 일석4조 태양광 뚝방 보급

강진군은 넓은 면적(500.9km²) 대비 소방차 8대 등 재난 인프라가 취약하며, 기후 변화로 인한 집중호우와 가뭄, 산불 위험이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홍수와 가뭄 대책이 사후 복구 위주로 진행되어 예산 낭비가 크며, 산지나 농지에 무분별하게 설치되는 태양광은 경관 훼손의 주범으로 지목받고 있습니다.

기술의 발달로 여러 재난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융합 행정이 가능해진 만큼, 전통적인 농업 인프라인 ‘뚝방’을 21세기형 기후대응 자산으로 재탄생시켜야 합니다.

휴경지에 저류 기능을 갖춘 뚝방을 조성하고 수면에 회전형 수상 태양광을 설치하는 ‘일석4조 태양광 뚝방’을 보급하겠습니다. 이 시설은 재생에너지 생산은 물론, 홍수 시 빗물 저장, 가뭄 시 용수 공급, 산불 시 소방 용수 거점이라는 네가지 핵심기능을 동시에 수행할 것입니다.

특히 회전형 기술을 적용해 발전 효율을 극대화하고, 농지를 보전하면서도 에너지를 얻는 실용적인 모델을 구축하겠습니다. 재난을 기회로 바꾸고 자연을 지키며 전기를 만드는 ‘기후안전도시 강진’의 대표 브랜드로 키우겠습니다.

재난 예방과 에너지 생산을 융합한 ‘뚝방’ 설계

- 수심 2m 내외 대형뚝방 조성 및 회전형 수상태양광 설치
- 집중호우 시 하류 침수 방지를 위한 일시 저류 기능 탑재
- 가뭄 및 산불 발생 시 소방 헬기 즉시 취수 거점 활용

농지 보전형 ‘민관협력 투자(SPC)’ 운영 모델

- 농지를 깎지 않고 유희수면을 활용하는 환경친화적 개발
- RE100 기업과 장기 계약을 통한 안정적 발전 수익 확보

- 수익 일부를 마을 기금과 주민 ‘햇빛 연금’으로 직접 환원

둠병 기반 ‘특별한 낚시·관광지’ 연계 개발

- 수상태양광 원판 위 낚시공간 조성 등 이색 관광 상품화
- 둠병주변 수변 공원 조성으로 주민쉼터 및 정주여건 개선
- 사후 복구가 아닌 사전 대비형 ‘기후안전 표준 모델’ 정립

- 예정위치 : 하천 주변 저지대, 유희·휴경 농지
- 사업예산 : 150억 원 (개당 약 5~10억)
- 이행기간 : 2027년~2029년 (단계적 설치)
- 재원조달 : 국비, 도비, 군비, 민자
환경부 스마트 물순환 도시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
민관협력 SPC
- 우선순위 : 1순위
- 사업목표 : 태양광 둠병 20개 조성
저류 용량 확보
발전 수익 주민 환원

7) 강진형 생활권 녹색 관광도시 조성

강진군은 천혜의 관광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관광객들이 특정 명소만 보고 떠나는 스쳐 지나가는 관광 구조로 인해 상권 매출이 정체되어 있습니다.

강진읍, 병영면 등 중심지는 주거와 상업 시설이 밀집해 있어 열섬 현상이 나타나고 보행 환경이 악화되어 정주 만족도를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관광객이 머물고 싶고 주민이 걷기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단순히 나무를 심는 수준을 넘어, 생활 공간 자체가 아름다운 녹색 풍경이 되는 획기적인 도시 녹화 전략이 필요합니다.

생활 공간을 푸르게 덮어 ‘걷는 순간마다 풍경이 되는 녹색 관광 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읍·면 중심지 공공건물과 상가 옥상에 녹색 지붕을 만들고 외벽에는 그린 커튼을 설치하여 도시 열섬을 줄이고 미적 가치를 높여겠습니다.

골목 자투리 땅에는 주민들이 직접 가꾸는 ‘마을 속 작은 정원’을 조성하여 생활 관광 동선을 자연스럽게 연결할 예정입니다. 단순히 명소를 찍고 떠나는 도시가 아니라, 강진의 골목을 걷는 것 자체가 최고의 여행이 되는 골목 관광의 기반을 군민과 함께 만들겠습니다.

공공 및 민간 건물의 벽면 녹화 및 그린 커튼 도입

- 읍면사무소, 학교·병원 외벽에 덩굴식물 활용 차양막 설치
- 전통시장 및 상가밀집지역 옥상녹화 지원 및 관리
- 여름철 냉방 에너지 절감 및 미세먼지 저감 데이터 공개

골목길 자투리 땅 ‘마을 속 작은 정원’ 조성

- 교차로 모서리, 버스정류장 인근 벤치와 화초 결합 쉼터

- 강진읍 구도심과 관광지를 잇는 ‘녹색 테마 산책로’ 정비
- 어르신과 아동이 안전하게 쉬어가는 그늘 집중 배치

군민이 주도하는 ‘우리 동네 정원사’ 육성 및 지원

-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마을 녹화 활동비 및 교육 지원
- 우수 정원 마을 선정 및 관광 코스 편입을 통한 ‘골목 관광’ 활성화
- 스마트 센서를 활용한 생활권 미세먼지·온도 실시간 정보 제공으로 지역주민들의 기후위기 극복 동참 확대

- 예정위치 : 강진읍 구도심, 병영면 성곽 주변
성전면 중심지 일원
- 사업예산 : 40억 원 (인프라 개선 및 정원 지원)
- 이행기간 : 2027년~2028년
- 재원조달 : 국비, 도비, 군비
환경부 도시 소생태계 조성
환경부 스마트 그린도시
산림청 생활밀착형 숲 조성
전라남도 숲속의 전남 만들기
- 우선순위 : 2순위
- 사업목표 : 녹색 지붕 30개
마을 정원 50개
보행 만족도 40% 향상

8) 자원순환 보상, ‘강진 에코포인트’ 운영

우리 강진군은 매년 폐기물 재활용률이 약 90%수준으로 매우 높으나, 주민들이 느끼는 실질적인 보상 체계는 아직 미비하여 자발적인 참여 동력이 약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제주 지역의 ‘재활용도움센터’는 주민이 직접 운영하는 센터를 구축하고, 노년층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되었습니다. 고령층이 많은 강진의 마을 공동체를 활용해 쓰레기 배출을 노동이 아닌 수익으로 전환하는 혁신적인 보상 체계 도입이 필요합니다.

군민이 쓰레기를 분리할 때마다 통장에 포인트가 쌓이는 ‘강진 에코 포인트’ 시스템을 전면 도입하겠습니다.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에 설치된 AI 재활용 자판기에 투명 페트병이나 빈 병을 넣으면 즉시 포인트가 적립되고, 이를 지역 화폐인 강진사랑상품권으로 환전해 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분리수거 지도를 담당하는 어르신과 청년들을 자원순환 관리사로 임명하여 보람 있는 일자리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환경을 지키는 노력이 가계 소득이 되는 ‘똑똑한 환경 행정’을 실천하겠습니다.

AI 기반 ‘에코 포인트 자동 적립 자판기’ 보급

- 투명 페페트병, 캔, 종이팩 등 유가품에 대해 품목별 포인트 차등 지급
- 어르신 이용할 수 있는 음성 안내 및 카드터치 방식 적용
- 마을별 배출량을 실시간 집계하여 ‘자원순환 우수 마을’ 추가 인센티브 부여

지역 경제 연계형 ‘강진 에코 포인트’ 유통 체계

- 적립된 포인트를 강진사랑상품권으로 즉시 전환하는 전용

앱 개발 보급 운영

-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점포 이용 시 에코 포인트 추가 적립 혜택 부여
- 탄소 포인트제와 통합 관리하여 국민 1인당 연간 최대 10만 원 보상 목표

마을 주도 ‘팝업형 분리배출장’ 및 자원 관리사 육성

- 주민이 정한 요일에 집중 배출하는 ‘클린 데이’ 운영 및 현장 지도
- 폐지 줍는 어르신과 경력 보유 여성을 ‘자원순환 관리사’로 선발 지원
- 수거된 고품질 재생 원료를 지역 산업체와 직접 거래하는 마을기업 육성

- 예정위치 : 1읍 10면 마을회관
아파트 단지 및 학교 50개
- 사업예산 : 10억 원
- 이행기간 : 2027년~2027년
- 재원조달 : 국비, 군비
환경부 탄소중립포인트제
환경부 스마트 그린도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스마트빌리지 보급 확산
- 우선순위 : 3순위
- 사업목표 : 에코 포인트 가입자 1만 명 달성
재활용 수익금 20% 향상
자원 일자리 50개 창출

9) 전봇대 활용 ‘강진형 촘촘 전기차 충전망’ 보급

강진군은 전기차 등록 대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충전 시설은 주로 읍내 공공기관에 편중되어 면 단위 주민과 관광객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전체 차량 중 친환경차 비중이 낮아 전환 지원이 시급하지만, 농촌 지역의 넓은 대지와 산재된 주택 구조상 대규모 충전소 건설은 효율이 낮습니다. 전봇대 활용 충전 모델(영국 Ubitricity 방식)을 벤치마킹하여, 별도의 부지 확보 없이도 집 근처에서 충전할 수 있는 촘촘한 인프라 구축이 필요합니다.

기존의 전봇대와 가로등을 활용한 ‘농촌형 스마트 충전망’을 전국 최고 수준으로 구축하겠습니다. 도로 굴착이나 대규모 공사 없이도 전봇대에 충전기를 부착하여 마을 구석구석을 전기차 충전소로 만들겠습니다.

특히 전기 트럭과 경운기 등 전기 농기계 보급 추세에 맞춰 농협 주차장과 미곡처리장(RPC)에도 전용 충전기를 우선 설치할 예정입니다. 충전이 편리해지는 순간, 강진은 탄소 중립을 앞당기고 관광객의 발길이 머무는 ‘친환경 교통 천국’이 될 것입니다.

저비용·고효율 ‘전봇대 거치형 스마트 충전기’ 확대

- 한전·전기안전공사와 협력하여 설치 가능 전봇대 조사
- 부지확보 없이 주택가농로 주변에 초밀착 충전망 형성
- 스마트폰 앱을 통해 충전기 위치와 사용 가능 여부 실시간 확인 시스템 구축

마을 주도형 ‘공동체 충전소’ 운영 및 수익 환원

- 마을회관과 경로당 주차장에 설치된 충전기 운영권을 마을회에 위임하여 관리

- 충전 수익의 일부를 마을 기금으로 적립하여 복지 및 시설 관리 재원으로 활용

- 주민이 충전 수요지를 신청하는 ‘수요맞춤형 신청제’ 도입

농업용 전기 트럭 및 전기 농기계 전용 인프라 구축

- 농가창고 및 축사주변 고출력 충전시설 단계적 보급 지원

- 농업용 EV 전환보조금과 연계한 패키지인프라서비스 제공

- 태양광-ESS 기반 자립형 충전 스테이션 시범 운영

- 예정위치 : 강진군 전역 마을 길 전봇대 및 가로등, 농협 주차장 등

- 사업예산 : 20억 원

- 이행기간 : 2027년~2027년

- 재원조달 : 국비, 도비, 민자

환경부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 사업

환경부 전기차 공용 충전시설 설치 보조

전라남도 친환경차 보급 지원

- 우선순위 : 3순위

- 사업목표 : 전봇대 활용 충전기 300대 설치

마을별 충전소 접근 거리 500m 이내 달성

10) 수산 부산물 자원화, ‘해양 바이오매스 센터’ 건립

강진군은 전남 상위권의 수산업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패각(조개껍데기)과 폐어구 등 매년 발생하는 대규모 수산 부산물 처리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방치된 수산 부산물은 악취와 경관 훼손은 물론 연안 환경 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으며, 이를 단순히 폐기물로 처리하는 비용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버려지는 자원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고 지역 산업의 원료로 재활용하는 순환 경제 모델 구축이 시급합니다.

강진 바다의 골칫거리인 수산 부산물을 보물로 바꾸는 ‘해양 바이오매스 자원화 센터’를 건립하겠습니다. 패각을 미세 분쇄하여 친환경 건축 자재나 농업용 비료, 그리고 탄소 흡수제로 재탄생시키겠습니다.

폐어구와 해양 플라스틱은 세척과 재가공 과정을 거쳐 지역 굿즈 제작이나 재생 원료로 수출하여 청년들을 위한 ‘그린 일자리’를 창출할 예정입니다. 버려지는 자원이 다시 강진의 경제 자산이 되는 깨끗하고 유능한 ‘순환 해양 도시’를 완성하겠습니다.

수산 부산물 수집·가공·유통 거점 ‘바이오매스 센터’ 구축

- 패각, 폐어구 등 해양 폐기물 전용 자동 수거 및 선별 시스템을 전 군에 보급
- 열처리 및 분쇄 공정을 통한 산업용·농업용 원료 생산 라인을 가동하는 시스템 구축
- 데이터 기반 수산 부산물 발생량 예측 및 체계적인 수거 동선 관리

‘강진형 업사이클링 제품’ 개발 및 판로 지원

- 패각 활용 친환경 타일 및 보드블록 제작 시범 사업 추진

- 해양 미생물을 이용한 수산 부산물 퇴비화 시설 보급
- 지역 청년 크리에이터와 연계한 ‘강진 바다 굿즈’ 브랜드 마케팅 강화

‘해양 환경 지킴이’ 및 교육 운영

- 어민들을 대상으로 수산 부산물 분리 배출 교육 및 인센티브 제도 시행
- 폐기물 불법 투기 감시를 위한 스마트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해양 환경 지킴이 모집
- 하천 및 연안 부유 목재 부산물 자원화 연계를 통한 일자리 창출 강화

- 예정위치 : 마량항 인근 및 일반산업단지 내 유희 부지
- 사업예산 : 50억 원
- 이행기간 : 2027년~2028년
- 재원조달 : 국비, 도비, 군비
해양수산부 수산부산물 재활용 시설 구축
해양수산부 수산폐기물 정화사업
환경부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
전라남도 해양수산 핵심사업 육성
- 우선순위 : 3순위
- 사업목표 : 수산 부산물 재활용률 80% 달성
친환경 제품 5종 개발
녹색 일자리 30개 창출

11) 관광객의 발걸음이 에너지가 되는 ‘압전 파크’

강진만 생태공원은 연간 수십만 명이 찾는 강진의 대표 관광지이나, 관광객의 이동이 지역에 실질적인 에너지나 소득으로 연결되는 장치는 부족합니다.

관광객이 걷는 것만으로도 전기가 생산되는 체험형 친환경 기술 도입은 기후 위기 대응에 대한 주민 인식을 개선하고 볼거리를 제공하는 1석3조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강진의 재생에너지 전략을 관광과 결합하여 '에너지 자립 도시'라는 브랜드를 국민에게 각인시켜야 합니다.

강진만 생태공원 산책로와 읍내 주요 보행로에 ‘압전 에너지 블록’을 설치하겠습니다. 관광객의 발걸음으로 생산된 전기는 야간 경관 조명이나 스마트폰 충전 시설의 동력으로 활용하여 군민과 관광객이 기술의 혜택을 직접 체감하게 하겠습니다.

압전 블록이 밟힌 자리를 실시간으로 시각화하여 재미를 더하고, 이를 강진 365 포인트로 환산하여 지역 상권 결제에 사용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걷는 행위가 강진을 살리는 에너지가 되는 ‘빛나는 강진’을 만들겠습니다.

체험형 ‘압전 에너지 보도’ 및 인터랙티브 경관 조성

- 공원에 압전 패널 설치 및 야간 LED 조명 연동
- 발걸음 강도와 횟수를 데이터화해 전광판에 실시간 표시
- 생산된 전기를 활용한 관광객 전용 ‘스마트 벤치’ 운영

걷기 운동 보상 ‘강진 건강·에너지 화폐’ 연동

- 압전 보도 이용객 대상 ‘에코포인트’ 및 지역상품권 지급
- 학교와 연계하여 학생들의 ‘발걸음 기부’ 캠페인 운영
- 건강 앱과 연계해 누적 보행량에 따른 인센티브(햇빛 연금 포인트) 부여

스마트 세이프티 및 데이터 모니터링 연계

- 압전 신호를 분석하여 보행 인구 밀집도를 파악하고 안전 사고 예방
 - 시설물 유지 보수 전력을 압전 및 태양광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구축
 - 압전 에너지 생산량을 ‘강진 365’ 대시보드에 공개하여 홍보 효과 극대화
-
- 예정위치 : 강진만 생태공원 산책로, 영랑생가 거리, 강진역 광장
 - 사업예산 : 15억 원
 - 이행기간 : 2027년~2027년 (시범 설치 후 확대)
 - 재원조달 : 국비, 도비, 군비
국토교통부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환경부 스마트 그린도시
전라남도 전남형 탄소중립 선도마을 조성
 - 우선순위 : 2순위
 - 사업목표 : 압전 블록 3개 구역 설치
에너지도로 체험객 연 10만 명
생산 전력 자급률 확보

12) 마량항 수소선박 그린 인프라 구축

마량항은 강진의 해양 경제 거점이지만, 선박과 물류 차량에서 배출되는 탄소와 대기 오염 물질은 청정 해역의 이미지를 저해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최근 수소법을 시행하고 소규모 수소 생산 기지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충남권역에 포진한 선진 지자체들은 수소 버스와 충전소 인프라를 빠르게 확충하고 있습니다.

강진의 풍부한 해상 풍력 전력을 활용해 그린 수소를 생산하고, 이를 선박과 드론의 연료로 공급하는 차세대 에너지 거점화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마량항을 대한민국 최초의 '그린 수소 해양 특구'로 선포하고 수소 충전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경유를 사용하는 노후 어선을 수소 전기 선박으로 전환하는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수소 드론을 활용한 실시간 연안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하겠습니다.

해상 풍력 에너지가 바다의 힘이 되는 전주기 에너지 순환 체계를 마량항에서 완성하겠습니다. 환경과 산업이 공존하는 마량항이 강진의 새로운 해양 미래를 이끌게 될 것입니다.

마량항 '수소·전기 해양 모빌리티 충전소' 구축

- 선박과 차량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복합 수소 충전 스테이션 설치사업 추진
- 해상 풍력 잉여 전력을 활용한 그린 수소 생산(P2G) 실증단지 연계
- 소형 선박용 전기급속충전시설 및 이동식 충전 장비 도입

노후 어선 '친환경 수소·전기 선박' 교체 지원

- 수소 연료전지 탑재 선박 구매 시 보조금 지급

- 어민 대상 수소 선박 운용 및 안전 관리 전문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선박 폐열을 활용한 마량항 수변 공원 난방 및 공공 편의 시설 운영

수소 기반 해양 안전 및 스마트 관리 체계

- 수소 드론을 활용한 불법 어업 감시 및 해양 사고 실시간 구조 지원
- 항만 내 대기 질 측정 센서를 통한 수소 인프라 환경 개선 효과 분석
- 그린수소 테마 해양관광코스 개발 및 수소셔틀버스 운행

- 예정위치 : 마량면 마량항 일원 및 인근 해상 풍력 단지
- 사업예산 : 200억 원 (국비 공모 및 민자 유치)
- 이행기간 : 2027년~2030년 (중장기)
- 재원조달 : 국비, 도비, 군비, 민자
산업통상자원부 수소생산기지 구축
해양수산부 친환경선박 보급
환경부 수소충전소 설치 보조
전라남도 전남형 수소산업 육성
- 우선순위 : 3순위
- 사업목표 : 수소 충전소 1개
수소 어선 10척 전환
해양 탄소 배출 20% 저감